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아버지, 신의 자유를 따라 이 땅에 온 믿음의 선진들을 따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지표 삼고 살아가는 크리스천들에게 어떤 방해나 핍박도 능히 이기도록 더 큰 믿음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호와를 경외함이 곧 지혜의 근본이라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좋은 자식이 있나니 여호와를 찬송함이 영원히 있으리라
로마
시편 111편 10절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 L.A. :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Tel.323-665-0009 Fax.323-665-0056 Email: lachpress@gmail.com
□ N.Y. : 143-17 Franklin Ave. 5Fl.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nychpress@gmail.com

www.chpress.net

주후 2018년 9월 22일 (토) 제 1699호
사시: 바른신학 바른교회 바른생활 바른선교

미 정치에서 종교영향 여전히 유효!

월드, AP & 시카고대학 NORC센터 공동설문 결과 보도

미국 사회에서 크리스천들의 입지가 감소되고 있기는 하지만 종교는 여전히 정치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함수다. 다시 말해서, 공적 영역에서 종교의 역할은 아직까지도 유효하다고 볼 수 있다. 월드(World)지는 최근 AP통신과 시카고 대학 NORC센터가 공

동으로 여론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11월에 있을 중간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공직에 출마한 후보자들의 신앙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Religious influence on the ballot box).

이번 설문 조사 결과는 지난 달 미 전역에서 무작위로 선정된 성인 1,055명을 대상으로 나온 결과로, 설문 주제는 △종교에 대한 생각과 △미국 정치나 정책 결정에서 종교의 영향이었다.

먼저 미국 유권자 중 25%는 공직 후보자가 강력한 종교적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주/지극히 중요하다고 응답했다. 반면에 43%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고 응답하고 있었다. 그러나 23%나 되는 유권자들은 후보들의 신앙 여부가 어느 정도는 표심을 결정짓는 함수가 될 수 있다고 응답했다.

따라서 공적 영역에서의 종교의 역할은 미국 사회에서 48% vs. 43%로 한 자리 차이라는 근소한 우세를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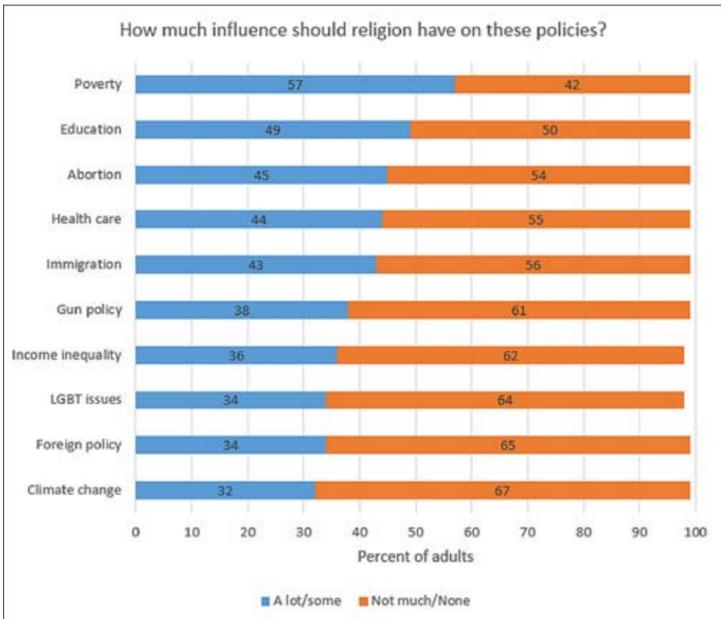
그러나 공적 영역에서 신앙이 표현되는 점에서는 오히려 역전이 된다(47% vs. 42%). 아직까지 정치와 종교의 분리라는 건국 원칙 영향에서, 47%는 공직 후보자가 공공연하게 자신의 신앙을 나누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고 여기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19%는 후보자가 신앙을 나누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23%는 어느 정도 중요하다고 응답했다.

힐스데일 칼리지 정치학과 조교수 아담 카링턴은 이번 설문 결과는 그전에 교회나 성당에 다녀오지 않거나 지금은 어떠한 종교적 소속이나 유대를 가지지 않고 있는 미국인들(Religious Nones)의 성향이 배어 있다고 말해준다:

“교회, 성당에 가지 않아도 종교가 여전히 삶의 의미와 목적이 된다고 여기는 종교적 넌스들이기에, 외형적으로는 크리스천들의 숫자가 위축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중간 선거에서 이들이 결정적인 차이를 충분히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카링턴 교수는 한마디로, 기존의 교회나 성당 같은 기관을 벗어나 개인적 차원에서



영성을 추구하는, 한때는 크리스천이었던 후보자들의 표심은 여전히 신앙이라는 필터링을 통해서 행사된다는 점을 말해주고 있다.

예상되는 것처럼, 백인으로 중생을 경험하거나 복음주의적 크리스천일수록, 신앙이 후보자를 결정하는데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과반수를 가까스로 넘긴 51%가 아주/지극히 중요하다고 응답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백인이 아닌 개신교인들 중 47%가 후보자 결정에 신앙 함수가 아주/지극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그렇다면 크리스천들은 정책 결정에서는 어떠한 쟁점들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을까? 우선순위로 보면 △빈곤 퇴치(57%) △교

육 정책(49%) △낙태(45%) △헬스케어(44%) △이민 정책(43%) 순이었다.

△동성애에 문제는 61%나 되는 복음주의적 크리스천들과 미국인 2/3가 정반대의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쉽게 말하자면, 동성애는 복음주의적 입장에서는 죄악이나 성적 성향이 되지만 미국인들에는 ‘아쩔 수 없는 사랑’이기에 혐오 대상이 아닌 권리로 수용되고 있는 것이다.

힐스데일 칼리지에서 역사학 교수로 저명한 데릴 하트는 이번 설문 결과에서 가장 충격적인 결과가 바로 크리스천들이 낙태나 결혼(동성애)보다 빈곤 문제에 더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라고 분석한다. (3편으로 계속)

“목사님 감사합니다!”

세계한기독교연립회 Pastor Appreciation Day 캠페인

오는 10월 둘째 주일인 14일은 "목회자 감사의 날(Pastor Appreciation Day)"이다. 미국교회들은 이미 1992년부터 10월이 되면 목회자 감사의 날(Pastor Appreciation Day)을 정해 지켜오고 있다. 그러나 한인들에는 아직 익숙하지 않아 생소할 수도 있겠다.

세계한기독교연립회(회장 임승래)는 이민사회의 특수성 가운데 힘들게 목회하고 있는 사역자들에게 힘을 북돋아 주고 진정한 기쁨과 위로의 날이 되기를 소원하며 '목회자 감사의 날' 캠페인을 시작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에도 한인교회가 수천에 이른다. 이중 어떤 교회는 교세와 재정이 안정되어 목회자들에게 편안한 사역의 길을 열어 주기도 하지만 아직도 많은 교회들이 미자립교회로 힘겹게 목회를 하고 있는 목회자들도 많이 볼 수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앞장서서 교회를 이끌어 가야하는 목회자의 길이 날마다 꽃길만은 아닌 것은 자명한 일이다.

모든 목회자들은 올바른 진리를 선포해야 하고 주어진 양떼들을 푸른 풀밭 맑은 물가로 인도하며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야 하기 때문에 목회자들은 날마다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그 길을 걷고 있다고 믿는다. 물론, 때로는 본이 되지 못하는 목회자들의 소식도 인해 세상의 지탄을 받기도 하고 도매금으로 목회자들의 위상이 한꺼번에

땅에 떨어질 때도 없지 않지만 말이다. 목회자의 날에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몸담고 있는 교회와 담임목사를 비롯한 리더들을 돌아보자. 사실 우리의 영적 리더들에 대한 감사는 1년 내내 해도 모자라지만 그들의 헌신이 당연한 것처럼 잊고 살아가지 않았는지... 최소한 '목회자 감사의 날'만이라도 진심으로 목회자들을 위로하며 사랑을 표할 수 있기를 소망해 본다.

글로벌 세계한기독교연립회에서는 목회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방법을 통해 감사의 마음을 전해 볼 것을 제시한다.

- △전화, 텍스트 메시지, 카카오톡을 통해 "감사합니다" 인사하기
 - △감사편지 쓰기
 - △"이 세상에서 #1 목회자" 등의 문구를 새긴 티셔츠 선물하기
 - △주일예배 후 목사님을 크게 포옹하기
 - △목회자를 위해 기도하고 있음을 알리기
 - △설교하는 모습, 교회행사 등의 사진 및 동영상으로 슬라이드쇼를 제작해 선물하기
 - △목회자 가족을 식사에 초대하기
 - △목회자 취향을 고려한 선물하기
 - △주일 친교시간에 공개적으로 감사 인사나 감사 메시지를 담은 대형카드, 배너 장식하기
 - △목회자 자녀 베이비시터 해주기
- (이성자 기자)



시론
민경엽 목사



2면
한국 선교, 그 역사를 찾아서
손상용 목사



16면
이벤트, 복음뉴스, CSN뉴스

“세계 어느 곳에서든 온라인으로 공부합니다”

준학사 / 학사
석사
박사
수료증

성서학과, 기독교상담학과
목회학과(M.Div), 신학과, 기독교상담학과
목회학과(D.Min), 교회음악학부(DCM-온라인) 캠퍼스
가정상담 사역자, 유아교육 교사원장

ATS 정회원
월드미션대학교
온라인 프로그램

www.wmu.edu

월드미션대학교
500 Shatto Pl. Los Angeles, CA 90020 admissions@wmu.edu, 213) 388-1000

할렐루야 백화점

성경 / 기독교서적 / 일반서적 / 베스트셀러 / 성구 / 성회 책자 / 가운 / 교회용품 / 영문성경 / 영문기독교서적

교회 · 사업체 · 달력 · 기념패전문

뉴욕 Tel. (718) 762-0011
40-21 159th St., #1B Flushing, NY 11358

뉴저지 Tel. (201) 346-0030
5 Brikerhoff Terrace Palisades Park, NJ 07650

www.bestsaver.us 917-863-0301

기독교서적센터
The Christian Book Center

Forever 우표 특별인원 판매

그동안 49센트에 판매되던 Forever 우표 (평상 가격엔들 없음)가 곧 60센트로 오를 예정입니다. 특별가게 38센트로 한정 판매합니다.

www.labookusa.com / cbc0191@hotmail.com
대표 강병찬 323-737-7699, 800-669-0451
1027 S. Western Ave., #2 L.A., CA 90006

영적 성장을 도와드립니다!

생명의 말씀사

교회 음향, 동시통역기, 성경공급 주문 제작, 타일, 선물 주문 제작

TEL. 714.530.2211 | Fax. 714-530-8080 | biblestore@gmail.com
9838 GardenGrove Blvd., Garden Grove, CA 92844

KIM Mission - 월드크리스천 무브먼트 한국어 세미나
(Perspectives on the World Christian Movement - 성경적, 역사적, 문화적, 전략적 관점에서 보는 세계선교)

사역멘토 (KIM Ministry Mentors)

장동찬 목사 (NBA-다국교회 원로목사), 김윤환 목사 (HS Ministry 대표), 박영배 목사 (CA NewLifeMission), 손찬식 목사 (SD 신앙교회), 전광성 목사 (NY의교회), 김용식 목사 (성경연구원), 임재량 목사 (모터시티교회), 김대영 목사 (아스틴교회)

대표: 파송선교사, 이사장, 전임이사장, 부이사장

Rev. Tony Hartman (SA Anglican Fellowship), 김성남 목사 (미육군교회), 용장영 목사 (LW Comm. Church), 배나베스김선교사 (미육군교회), 김정용 박사 (메트로미어), 임이근 장로 (스페인, 라스베가스), 최도문 박사 (차리웨이, 달라스), 강태원 장로 (버지니아, VA)

이광현 장로 (JC Global, NY), 한두희 집사 (충남 일원산교회 대표), 황정규 집사 (버지니아, VA), 손동우 박사 (버지니아, VA), 이원구 안수집사 (산은교회, 서울), 임재원 집사 (K&S 대표, 라스), 임소영 자매 (간호사, NY), 강동철 집사 (버지니아, VA)

지도이사

이순권 박사 (치과의사, TX), 김중대 장로 (토론토교회), 김상익 장로 (WCF 토론토회), 윤세범 장로, 최보람 권사, 윤천경 권사, 최인덕 권사, 서덕희 집사

[다시 업그레이드 된 퍼스펙티브스 - 월드 크리스천 무브먼트 세미나]

KIM Mission은 지난 17년 간 미주와 전세계 선교지 및 한인 디아스포라들을 위해 집중 보급해 온 [월드 크리스천 무브먼트 세미나] (미션 퍼스펙티브스 한국어 세미나)를 보급해 왔습니다 (수료자 4,100명). 우리 KIM Mission 이사회원들은 이 세미나를 여러 차례 수료하고 강의해 온 헌신된 평신도들입니다. 이제 머지않아 youtube.com을 통한 영상 강의도 시작합니다. ("월드 크리스천 퍼스펙티브스"라는 제목으로).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 운동 World Christian Movement 이 전 세계로 확산 될 수 만 있다면, 우리는 어떤 수단과 방법을 사용해서라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라고 외치던 Peter Wagner 박사의 말을 기억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들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들을 시도하라! (Expect great things from God, attempt great things for God!" 라고 외친 현대선교의 아버지 윌리엄 캐리의 좌우명이 우리를 두려웁합니다.

[제55기 월드 크리스천 무브먼트 볼리비아 현지 세미나]

김 미션이 오래 동안 기도해 오던 남미의 오지 국가 볼리비아 현지에서 사역하시는 한인 선교사님들을 위해 55번째 월드 크리스천 무브먼트 세미나가 아래와 같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1주일간의 볼리비아 단기선교와 현지에서 진행될 세미나에 동행, 동참하실 선교 동역자 및 관심자들을 기다립니다.

- 일시 및 장소: 2018년 10월 8일 (월) - 17일(수) 7박9일간 볼리비아 산타 크루즈 Santa Cruz (3일간의 세미나와 3일 볼리비아 한인 선교사님들과 동역)
- 주최: 볼리비아한인선교사협의회 (회장 김이선 선교사)
- 대상: Bolivia 한인선교사 부부
- 강사: 배나베스김선교사 (KIM Mission 대표, 미육군 예비군 군목, Chaplain Clinician; 자비방 선교사); 김용식 목사 (KIM Mission 사역멘토, 상파울루 영광장로교회 담임), 김대영 목사 (KIM Mission 사역멘토, 어스틴 큰빛교회 담임)

[캘리포니아 및 한국방문 사역]

- 캘리포니아 사역: 2018년 9월 23일 - 25일 LW Community Korean Church (담임 용장영 목사, 김미선 사역멘토) & 미주장신대학교/신학대학원 (총장 이상평 박사)
- 한국방문 사역: 2018년 11월 1일 - 11월 14일 (대표 배나베스김선교사)

KOREAN INTERNATIONAL MINISTRIES (KIM MISSION) www.KIMMission.org
* 연락처: 김 미션 본부 (626. 354. 2294 혹은 213. 215. 9834), E-mail: 1020miracle@gmail.com

교회처럼 보이지 않아도 가고 싶은 교회 세우기

처치리더십, 컴, 임팩트교회 O. 브라운 목사의 효과적인 불신자 접근 방법 보도

올루 브라운(Olu Brown) 목사는 11년 전 애틀랜타에서 25명과 함께 임팩트교회(http://www.impactdoingchurchdifferently.org/)를 개척했다. 이제 임팩트교회는 미국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25개의 교회 중 하나이며, 매주 4,400여 명이 예배당 또는 온라인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 브라운 목사는 "교회 사람들" 처

럼 보이지 않거나 "교회 사람들"처럼 행동하지 않아도, 지역사회 불신자들에게 효과적으로 다가가기 위한 조언을 나누어 준다 (Reaching People Who Don't Look or Act Like "Church People").

임팩트교회에서 우리는 다른 사람이 보기에 교회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처럼 보여진다. 우리는 항상 교회 사람들처럼 보이거나 행동하지는 않는다. 그것은 임팩트교회가 누구인지에 대한 "비밀"이다. 그러나 우리는 사람들이 편함을 느낄 수 있도록 돕고 자기 자신이 될 수 있도록 돕는다. 많은 교회가 젊은 사람들에게 다가가지 못하는 주된 이유 중 하나는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성을 대표하는 팀과 함께 한다면 세대, 문화 및 지리를 뛰어넘는 은유를 훨씬 더 잘 제공할 것이다.

정중 파악

21세기의 주요 문화 추세 중 하나는 사람들이 자신에게 제공된 상품을 결정할 때 훨씬 더 많은 선택 가능성을 갖는 자체 설계 시스템의 등장이다. 내가 타겟과 월마트와 같은 대형 매

최고의 현대...타인들과 권력 나눠야

영향력 있는 예배 ("경험")...끊임없이 수정하고 변경

현존/미래 정중 파악...지역사회 핵심요소 알아내야

적절하고 진정성 있는 관계가 중요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재구성하고 재편성하는 것을 꺼리고 있기 때문이다.

최고의 현대

임팩트교회의 한 가지 핵심적 관행은 최고의 현대, 즉 모든 사람이 다 환영받고, 모든 사람이 다 귀중하며, 모든 사람이 다 속할 곳이 있다는 사고방식이다. 이는 다양한 정치적 관점이나 다양한 성적 취향을 뛰어넘어서 적용된다. 모든 사람이 정말로 환영받는다는 것은 단순하지만 파괴적인 것이다. 이러한 접근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임팩트교회로 그리고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왔다. 그러나 슬프게도, 이러한 접근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등을 돌리기도 했다.

어떤 사람들이 환대하고 싶다고 말할 때, 그것은 "나에게 동의하고, 나처럼 보이고, 내 사회 경제적 지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호의를 베풀고 싶다"를 의미한다.

최고의 현대는 다른 사람들과 권력을 나눌 의지가 필요하다. 내가 소그룹을 이끌고 있을 때, 모임을 갖기로 한 식당은 내가 좋아하는 식당이기 때문에 모

든 사람이 그 식당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이 그룹에 참여함에 따라 우리는 그들의 음식 취향이 다른 것을 발견했다. 지도자로서 나는 그들을 포용하기 위해, 내 권력의 일부를 포기하기로 결심했다.

영향력 있는 예배

우리는 임팩트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자들에게 그들이 환영받고 가치 있게 느끼고 행동하도록 이끄는 경험을 제공하고 자 한다. 우리는 예배를 "봉사"라고 부르지 않고 대신 "경험"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강력 한 예배 경험을 형성하는 것 중 하나가 은유를 사용하는 것이다.

예수께서는 우화를 통해 끊임 없이 은유를 그의 가르침에 사용하셨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너무 많은 교회가 21세기의 삶에 적용되는 은유를 주기 위해 노력하지 않는다. 우리가 성경적 예화를 가르칠 때, 우리는 교인들이 설교를 빨리 이해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좋은 은유는 사람들이 교회 주차장에 들어온 순간부터 떠날 때까지 당신의 예배 경험을 형성할 수 있다. 언젠가 임팩트 교회에서 설교 작업 현장에 대한 설교시리즈를 한 적이 있었다. 우리의 안내위원들은 안전 모를 쓰고, 교회 건물 곳곳에 건설 장비들이 놓여있었다. 설교가 시작되거나 심지어 첫 찬양을 부르기도 전에 사람들은 이미 중요한 은유를 알아차린다. 은유는 디지털 통신, 후보, 설교를 통해 전달할 수 있다.

우리는 예배라고 부르는 것을 끊임없이 수정하고 변경한다. 우리는 예배 준비에 팀을 참여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발견했다. 종종 우리는 설교와 예배 계획을 고립되고 격리된 채로 준비한다. 그러나 당신이 다가가기 원하는 청중의 다양

성을 사랑하는 만큼, 미래에 가장 건강한 교회는 빠르게 변화하는 상황에 신속하게 적응하고 변화하기에 좋은 작고 유연한 교회일 것이다.

교회를 시작하거나 현존하는 교회를 한 단계 더 건강하게 성장 시키는 것은 어떤 면에서 사업을 시작하는 것과 유사하다. 당신의 현존 청중이 누군지, 그리고 목표로 하는 청중이 누군지 알아야 한다.

지역사회의 핵심 요소들을 알아내야 한다. 향후 10년간 인구 통계는 어떻게 될 것인가? 주요 인종 또는 문화적 변화가 있을 것인가? 이러한 요소를 무시하고 성장할 것으로 기대할 수는 없다.

(3면으로 계속)



시론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민경엽 목사 (오렌지 카운티 나침반교회)

한국에서는 공산품의 품질 여부를 KS마크로 구별한다. 미국에서는 그것을 UL마크라 한다. 이 마크가 찍힌 것은 비교적 안심하고 쓸 수 있다. 교회에도 이런 시스템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세상에 있는 많은 교회들 중에 믿고 안심할 수 있는 교회가 어느 교회인가? 개인적으로는 참 교회와 거짓 교회, 좋은 교회와 나쁜 교회, 건강한 교회와 병든 교회를 분별하기란 어렵다. 16세기 종교개혁자들도 이런 문제를 고민했던 것 같다. 그들은 교회의 표지(The Sign of Church)를 세 가지로 정했다. 말씀이 바로 선포되는 교회, 성례가 올바르게 시행되는 교회, 그리고 권징이 바로 행해져서 질서가 잡힌 교회. 이 세 가지가 전제되어야 올바른 교회라 할 수 있다.

그 중 개신교회의 성례식은 세례식과 성찬식 두 가지뿐이다. 쉽게 말해, 세례식은 예수님과 결혼식이라 할 수 있다. 남녀 두 사람이 사랑하여 살면 되는데 굳이 손님을 청하여 결혼식을 올리는 이유와 이미 예수님을 믿는 신자에게 세례를 주는 이유가 비슷하다. 이제는 예수님과 연합하여 새로운 인생을 출발하는 것을 알리는 것이다. 세례식이 결혼식이라면, 성찬식은 예수님과 결혼한 사람답게 살기로 결단하는 예식이라 할 수 있다. 결혼한 사람이 결혼 생활에 충실하며 배우자에게 신실함을 요구받는 것처럼 세례를 받은 사람이라면 신랑 되신 예수님에게 충실한 삶을 살 것을 요구받는 것이 당연하다. 성찬식을 영어로는 Communion이다. 이는 '교제'라는 의미가 있다. 그러므로 매주일 선포되는 말씀은 귀로 들음으로 예수님과 교제하며 예수님에게 신실한 삶을 각오하게 한다면, 성찬식은 눈으로 보고, 직접 먹어보도록 예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결단함으로 교제하는 예식이다.

그렇다면 무엇을 결단할 것인가? 첫째로는, 새로운 삶을 결단해야 한다. 떡과 포도주는 음식이며 음식은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다준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몸이 찢어지고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음을 깨닫게 해준다. 떡을 먹음으로 머리되신 예수님의 몸, 즉 교회가 되었음을 기억하게 한다. 붉은 포도주를 마심으로 새 언약을 받았음을 상기시킨다. 행위를 근거로 한 옛 언약에 실패하였기에 믿는 자에게 주신 새 언약은 오직 은혜로만 구원을 성취한다. 우리 모두는 오직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잔을 받으면서 깨달아야 한다. 그러므로 성찬예식의 가장 큰 뜻은 새로운 삶을 살기로 결단하라는 것이다.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기에 모든 신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결코 정죄가 없다. 진리 안에서 절대 자유하다. 그러므로 성도는 자신이 누리게 된 이 영광을 후회 없이 붙어 있는 그 어느 순간에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런 의미에서 성도는 오직 인생을 살아야 한다. 오직이기는 아무리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 죄와 사탄과 심지어 나 자신이 아무리 나 자신을 넘어뜨린다 해도 다시금 벌떡 일어나, 툭툭 털고 일어나 전진해야 한다. 이것을 결단하는 예식이 성찬식이다.

둘째로는, 죄 회개를 결단해야 하는 것이다. 성경은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것 외에 성전에 참여할 수 있는 어떤 자격을 말하지 않는다. 하지만 성전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합당한 자세가 있다. 먼저 자신의 마음과 말과 행동과 태도를 살피고 자신의 죄를 돌아보고 그 죄를 고백해야 한다. 삶 속에서 저지른 죄들을 고백하지 않고 성찬을 받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욕되게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바로 그 죄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반복적인 죄를 짓고 있거나 아주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라면 성찬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 옳다. 마음의 준비 없이 성찬에 임하는 것도 금한다. 성찬에 참여하기 전에 마음에 거리는 일들을 정리하는 것이 옳다. 만약 시간상 미리 준비할 수 없었다면 언제까지 어떻게 어떤 일들을 처리하겠다고 주님께 고백할 수도 있겠다.

셋째로는, 형제 사랑을 결단해야 한다. 성찬의 정신은 하나됨이다. 지금이야 위생상의 이유로 떡마다 이미 나누어져 있고 잔마다 따로 사용하지만 원래는 한 떡이었고 한 잔이었다. 그러므로 성찬식을 거행하면서 한 피 받아 한 몸 이룬 형제애 자매애를 깨달아야 한다. 1960년대 베트남 포로수용소에서 있었던 실화다. 부활주일일이 되어 탐 커티스 대위는 성찬식을 거행하기로 작정했다. 비밀리에 포로들을 예배 장소로 모이게 하였고 전날 배급 받은 빵조각을 аж여서 조금씩 떼어놓은 빵과, 포도주를 마련할 수 없어서 미역국으로 잔을 대신하였다. 커티스 대위가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조용히 말했다고 포로들은 눈물로 빵을 먹고 잔을 들이키면서 그리스도의 희생을 기렸다. 누군가 나지막한 목소리로 "Amazing Grace"를 선창하였고 모두가 눈물을 흘리며 따라 불렀다. 그 성찬식은 그 어려운 포로수용소 시절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되었다. 이렇게 성찬식은 믿는 자들에게 용기와 다짐을 주는 것이 본래의 목적이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은 너무나 가벼이 성찬을 대하는 것은 아닌가?

<p>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p> <p>· L.A. Office 601 N. Vermont Ave. #202, Los Angeles, CA 90004 Tel:(323)665-0009(대 표) (323)665-9025(광고국) Fax:(323)665-0058(편집국) (323)665-0046(광고국) E-mail: lachpress@gmail.com</p>	<p>· N.Y. Office 143-17 Franklin Ave. 5th Fl.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대 표) (718)886-4424(편집국) Fax:(718)886-0074(대 표) E-mail: nychpress@gmail.com</p>
<p>The Korean Christian Press(USPS 746-070)is Published Weekly(every Saturday)except for April 21, and Dec. 29. \$100.00 per year by The Korean Christian Press,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Periodical postages are paid at Los Angeles, CA.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 to The Korean Christian Press,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p>	

교회 이동 디스플레이 및 디자인 전문

카라반캐노피는 대형프린팅 분야에서 18년의 전문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안 수정, 로고 제작, 한글 캘리그래피 디자인등 다양한 서비스가 가능하며 고성능 프린트 작업으로 최고의 만족도를 약속드립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한 모든 디스플레이 제작, 맞춤형 서비스

CARAVAN CANOPY
Division of Faith

- ✓ 현수막 | 천막
- ✓ 접이식 배너 | 디스플레이
- ✓ 프로모션 상품
- ✓ 디자인서비스

VINYL BANNERS
2' X 5' with grommets : \$25 Plus tax if applicable
4' X 5' with grommets : \$50 Plus tax if applicable

MESH/POLY FABRIC BANNERS
2' X 5' with grommets : \$35 Plus tax if applicable
4' X 5' with grommets : \$70 Plus tax if applicable

플래그, X 배너 거치대, 벽걸이 포스터, 롤업배너, 현수막, 미디어벽

14600 Alondra Blvd. La Mirada, CA 90638 | T. 877.922.6679 | 한국어. 714.367.3046 | www.caravancanopy.com

유럽의 “뜨거운 감자”, 시리아 난민 어디로?

뉴스위크, EU 지원받는 터키...경제 악화되면 유럽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어

2015년 시리아인 수백만 명이 4년째 맹렬히 지속되는 잔혹한 전쟁을 피해 육지와 바다의 국경을 넘어 탈출했다. 그들 중 다수는 위태로운 길을 택했다. 그리스를 일차 목적지로 익사 위험을 무릅쓰고 낱아빠진 배에 올라 올레해해를 건너다. 하지만 그리스도 위기에 놓여 있었다. 그곳의 위기는 전쟁이 아니라 경제 난이었다.

유럽연합(EU)은 그리스의 부담을 덜어주고 소위 ‘발칸 루트’(그리스와 발칸반도를 거쳐 서유럽으로 들어가는 길)를 차단할 목적으로 2016년 3월 터키(EU 회원국이 아님)에 거래를 제안했다. 그리스에 불법 입국했다가 송환되는 난민을 터키가 받아들이면 EU가 터키에 약 66억 달러를 지원한다는 거래였다. 아울러 그리스에서 강제 송환되는 난민을 터키가 받아들이면 그간 불법 이민을 시도한 적 없는 터키 내 난민을 EU가 수용하는 이른바 ‘1:1 맞교환방식’도 그 거래에 포함됐다(그러나 EU가 받아들이는 난민 수는 최대 7만2000명으로 제한됐다).

그런데 터키에서도 “경제난”과 정치 불안으로 시리아 난민들의 미래가 불투명하다. 따라서 뉴스위크는 그 위험성을 진단한다(Will Turkey's Currency Crisis Send Millions of Refugees Into Europe and Threaten Merkel's Fragile Coalition?).

터키도 그 제안을 수용했다. 그에 따라 유럽에 정착하는 난민 수는 대폭 줄었지만, 터키는 350만 명의 난민이 사는 세계 최대 난민 수용국이 됐다. 터키에 있는 난민 대다수가 시리아 출신이며, 50만 명 정도가 중동의 다른 지역과 북 아프리카 출신이다.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터키 프로젝트 팀장 블린트 알리리자는 뉴스위크에 “그들이 터키 사회에 완전히 통합되진 않았지만 그들은 터키 정부로부터 상당한 지원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알리리자는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은 그들에게 예산에 없던 200억 달러를 지출했다고 말했다. 그 정도는 기꺼이 지출할 수 있었다는 얘기가. 하지만 난민 100만 명이 추가된다면 계속 그렇게 지출을 늘릴 수 있을까?”라고 말했다.

그 100만 명이란 앞으로 1년 동안 시리아에서 피난할 것으로 예상되는 난민 수다. 그러나 지금의 터키는 2016년과 달리 상황이



많이 어렵다. 미국의 새로운 제재를 포함한 경제적 혼란으로 리라화 가치가 최저치를 기록했고, 인플레이션이 16% 정도로 치솟았다. 그런 어려움 때문에 터키가 앞으로 발생하는 난민을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없다면 그들은 결국 EU로 넘어갈 것이다. 그럴 경우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같은

EU 정치인은 정치적으로 큰 타격을 받는다. 메르켈 총리는 지금도 독일로 유입되는 난민·이주자를 통제하는 문제를 두고 연정 파트너들과 심한 갈등을 빚고 있다. 메르켈 총리의 연정 파트너인 보수 노선의 기독교당(CSU)은 국경 통제를 강력히 주장하면서 우익 정당으로서 평판을 유지하

고자 한다. CSU 대표인 호르스트 제호퍼 내무장관은 메르켈 총리가 유입되는 난민 수를 제한하는 방법을 찾지 않는다면 사임하겠다고 압박했다. 우익의 압박으로 메르켈 총리는 스페인과 이탈리아 같은 다른 EU 회원국과 난민 분산 수용 협상을 추진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만약 터키가 난민과 이주자를 지원하지 못하게 되면 독일이 아니라 그리스 가 가장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예상한다. 아직도 재정적으로 허약한 그리스로선 완전히 재앙이 되겠지만 알리리자 팀장은 나머지 EU 회원국들은 피해를 입지 않을 것으로 판단한다. 그는 “발칸 루트는 폐쇄됐다”고 말했다. “배가 터키를 떠나기 시작하면 다시 그리스에 심각한 문제가 될 것”이라는 것이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2016년 협정과 관련해 EU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여러 차례 협정 파기를 위협했다. 그러나 일부 분석가는 터키의 재정난을 고려하면 에르도안 대통령이 협정을 유지할 수밖에 없으리라고 본다. 무엇보다 그에게 현금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워싱턴DC 소재 싱크탱크 애틀

그리스 부담 덜고 발칸 루트 차단 목적 향후 1년 백만 명 예상...터키경제 불안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터키 프로젝트 팀장 블린트 알리리자는 뉴스위크에 “그들이 터키 사회에 완전히 통합되진 않았지만 그들은 터키 정부로부터 상당한 지원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EU 정치인은 정치적으로 큰 타격을 받는다. 메르켈 총리는 지금도 독일로 유입되는 난민·이주자를 통제하는 문제를 두고 연정 파트너들과 심한 갈등을 빚고 있다. 메르켈 총리의 연정 파트너인 보수 노선의 기독교당(CSU)은 국경 통제를 강력히 주장하면서 우익 정당으로서 평판을 유지하

랜틱 카운슬의 터키 전문가 로스 윌슨은 “단기적으로 EU에 큰 타격을 없을 것으로 전망되지만 터키의 경제위기가 지속되고 터키 정부가 공공지출을 대폭 줄여야 한다면 난민 지원 프로그램이 중대 위기에 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 정치에서 종교영향 여전히 유효!

(1면에서 계속)
그러면서 빈곤이라는 주제에 연관되는 소득불균형(36%)에도 크리스천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해준다.
그러나 인종별 불균형이나 흑인 운동(the Black Lives Matter

movement) 문제들이 설문에서 빠졌다는 점에서는 유감을 표명한다.
결론으로, 미국인들은 전통적으로 정치 영역에서 공직 후보자들의 신앙에 가치를 부여해왔다. 최소한 종교적 배경을 지닌 사람

이 공직에 오르는 것을 선호한다. 퓨리서치에 따르면, 2016년 대통령 선거에서도, 과반수이상의 미국인들이 무신론자 후보에게는 투표하지 않겠다고 응답할 정도다.
결국 외도나 재정적 문제, 심지어 마리아나를 피는 것보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점이 공직에

오르는 사람에게 가장 큰 결여이며 마이너스라고 미국인들은 아직까지 믿고 있다. 따라서 현재 국회 상하원에서 자신을 크리스천이라고 밝히는 의원들이 90% 이상이나 된다는 사실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교회처럼 보이지 않아도 가고 싶은 교회 세우기

(2면에서 계속)
적절성 및 관계
어떤 사람들은 교회가 현재 문화에 적절하게 공존하려면, 교회의 핵심 가치와 메시지에 진정성을 가질 수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오디오 플레이어를 판매하

는 회사의 사례를 생각해보자. 오랜 세월 동안 그들 제품의 목적인 고품질의 음질을 제공하는 것은 바뀌지 않는다. 그러나 성공한 기업은 기술, 포장 및 마케팅이 끊임없이 발전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많은 교회가 젊은 사람들에게

다가가지 못하는 주된 이유 중 하나는 다른 사람들이 듣고 받아들이도록 자신의 메시지를 재구성하고 포장하는 것을 꺼리고 있기 때문이다.

관계가 가장 중요한 요소일 것이다. 우리가 정말로 좋아하지 않거나 이해하지 못하는 누군가를 교회로 데려오기는 어렵다. 나는 젊은 세대가 장년층과 깊고 지속적인 관계를 맺고 싶어 한다는 것

을 발견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관계는 적절하고 진정성이 있어야 한다.

크든 작든 모든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의 표징이다. 우리 사명의 지금 이 단계에서 내가 아니라 우리 팀을 사용하고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린다. 지금부터 20, 30, 40년 후에, 우리 그룹이 처음 상상했던 것보다 더 많은 사람에게 다가갈 수 있기를 바란다.

원로칼럼



박종순 목사
(충신교회 원로)

목사와 돈(상)

목회에 돈은 필요한가? 목사도 돈이 필요한가? 필요하다. 무소유의 삶을 살다 세상을 떠났다는 모승려도 머물 암자가 있었고 출판인 세가 있었다.

목사에게는 얼마의 돈이 필요한가? 그건 믿도 끝도 없다. 적을수록 불편하고 많을수록 좋다. 그것은 호의호식이나 호사와 사치를 위해서가 아니다. 먹고살아야 하고, 자녀를 가르쳐야 하고, 달라는 사람에게 베풀어야 하고, 찾아가서 나눠 줘야 하기 때문이다. 필자가 목회하는 동안 주겠다고 찾아오는 사람이 하나라면, 달라고 찾아오는 사람은 백이 넘었다.

깨끗한 가난

돈은 인격의 시험품이라는 말이 맞다. 돈은 그 사람의 인격과 신앙을 시험한다. 덜된 사람이 돈을 거머쥐면 잠기에 빠지고 추대를 연발한다. 그러나 인격과 삶, 신앙과 훈련으로 다져진 사람은 그가 가진 돈 때문에 타인과 공의, 선한 사업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

목사라고 예외일 수 없다. 교회 덩치가 커지고 만지작거리는 돈의 부피가 커졌을 때 철저한 관리로 자신의 삶을 빛내는 사람도 있고, 관리 부실과 구설수에 휘말리고 망가지는 사람도 있다.

청지기. 그렇다. 우린 청지기일 뿐이다. 교회도, 부모, 영광도 내 것이 아니다. 그런데 내 것으로 만들고 내 것인 양 행세하다가 실족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한 교훈을 준다.

필자가 쓴 줄저 “깨끗한 가난” 머리글을 그대로 옮겨 본다.

가난한 조사(전도사)의 아들로 태어난 저는 가난이 싫었습니다. 먹고사는 것도, 학교에 다니는 것도 힘겨웠고, 홀로 된 어머니가 겪는 생활고도 어린 마음이지만 쓰리고 아팠습니다. 가난이 대물림이라면 그 고리를 끊어서라도 자유하고 싶었고, 부자가 되는 길이 있다면 어느 길이든 상관없이 가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가난을 벗어던진다는 것이 말처럼 쉽지 않다는 것을 나이테를 그을수록 실감하게 됩니다.

제가 세 살 때 아버지가 지병으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저에게 물려준 유산은 “구약·성경”이라는 책 한 권이었습니다. 한 평의 땅도, 그럴싸한 방 한 칸도 물려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난과 맞닥뜨리며 유소년기와 청년기를 보냈습니다. 정신적, 육체적 울타리와 지붕이 없는 터라 고독한 싸움, 홀로 서기를 해야 했습니다. 그런 저를 하나님은 돈 벌여 부자가 되고 잘사는 쪽으로 길을 트지 않으시고 목사가 되는 길을 여셨습니다.

목사란 하늘을 나는 재주가 있어도 물려받은 유산이 없는 한 부자가 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몸에 배인 가난이라 적음이나 수용이 어렵진 않았지만 그래도 가난이 좋다는 생각을 해본 적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철이 들면서 가난도 부모 갈래가 많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깨끗한 가난이 있고, 추한 가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난, 바울의 가난은 깨끗한 가난입니다. 그러나 자기 치고 주색잡기하다 망해서 된 가난은 추한 가난입니다. 힘들지만 가난을 기회로 삼고 넘어가려는 용기는 깨끗한 가난이고, 가난 때문에 자학하고 포기하는 태도는 추한 가난입니다.

부의 경우도 깨끗한 부와 추한 부로 나뉩니다. 바로 벌고 바로 쓰는 부, 거룩한 나라와 그 삶을 위해 쓰는 부는 깨끗한 부입니다. 그러나 목적이 수단도 개의치 않고 이룬 부, 거기다 자기만을 위해 쓰는 부는 추한 부이며 졸부입니다.

깨끗한 부, 깨끗한 가난, 이것이 기독교 경제의 뿌리입니다. 1천2백만 한국 크리스천이 깨끗한 부와 깨끗한 가난의 신앙과 삶을 지녔으면 하는 마음으로 줄저 제명을 “깨끗한 가난”으로 정했습니다.

목회 틈틈이 써 모았던 글들을 한데 묶어서 엮었습니다. 말보다 글은 훨씬 책임이 큼니다. 오래 남고 기억되기 때문입니다. 책 안에 담은 글들은 내세우기엔 미흡하고 버리기엔 아까운 자전적 사교의 열매입니다. 독자들의 너그러운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iamcspark@hanmail.net

풀타임 부목사 및 Youth Pastor 청빙

미 동부 커네티컷에 위치한 하트포드제일장로교회에서 동역할 전임 사역자를 청빙합니다.
The First Korean Presbyterian Church of Greater Hartford (FKPC) is seeking a part-time Youth Pastor who loves the Lord and has passion for young people.

1. 부목사님

- 1) 자격 ① 복음주의 신학 노선의 신학대학원 (M. Div. 이상)을 졸업하신 분
② 예수님을 사랑하며 예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사랑하시는 분
③ 영주권 또는 시민권 소유하신 분

2) 제출서류

- ① 이력서
② 자기 소개서 (본인 및 가족 소개, 신앙고백, 목회 철학, 가족 사진 포함)
③ 설교 영상 링크

* 제출 서류를 검토 후 개별 연락을 드릴 예정입니다. 연락 받으신 분은 학위 증명서 및 목사 안수 증명서, 그리고 목회자 2인의 추천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2. Youth Pastor

1) Qualifications

- ① Currently enrolled in or graduated with a M. Div from an accredited seminary or Christian education
② Passion and vision for youth ministry
③ Must be proficient in speaking English (Bilingual preferred - English, Korean)

2) Required Document

- ① Resume with photo
② Verification of Seminary Degree (M. Div) or Enrollment
③ Philosophy and vision for ministry (one page)

Please submit all documents via swbts2012@gmail.com (Rev. Sungsu An)
300 Chapel Road, Manchester, CT 06040 www.fkpc.org



하트포드제일장로교회
The First Korean Presbyterian Church of Greater Hartford

구독신청서

미주크리스천신문의 정기구독을 신청하며 1년 구독료를 동봉합니다.

★ 1년 구독료	미국	\$100	유럽	\$190
	캐나다	\$110	남미	\$190
	한국및 동남아시아	\$190	아프리카	\$190

신청 유형	<input type="checkbox"/> 본인구독 <input type="checkbox"/> 다른사람에게 선물로 신문을 보냄	
구독자 이름 (혹은 후원자이름)	한글 : _____	목사 <input type="checkbox"/>
	영어 : _____	평신도 <input type="checkbox"/>
배달 주소	_____	
전화/Fax	() ()	
★ 다른사람에게 선물로 신문을 보내는 경우에는 받는 분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적어 주십시오.		
받는분 이름	한글	영어
전화번호/Fax	() ()	() ()
배달 주소	_____	
교회/기관명	_____	

▶ E-mail로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E-mail: nychpress@gmail.com

신청일자: 200년 월 일 신청인 서명: _____

★ 저희 미주크리스천신문을 구독(후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 L.A: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Tel.(323)665-0009, Fax.(323)665-0046
E-mail: lachpress@gmail.com

■ N.Y: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nychpress@gmail.com



목장일기



김재열 목사
(뉴욕 센트럴교회)

로고스는 곧 생명이다

37세의 빅터는 오스트리아 빈에서 화물열차에 던져졌다. 장작개비 포개듯이 밀어 넣고 또 밀어 넣었다. 그 열차에는 모두 1,500명의 포로들이 타고 있었다. 왜 끌려가는지 이유도 모른 채... 어두컴컴한 화물열차는 쉬지 않고 며칠을 달

렸다. 동트는 어느 날 새벽에 지친 사람들은 틈새로 밖을 내다보았다. 순간 저들은 공포에 녹아버렸다. 화물열차는 악명 높은 죽음의 수용소 폴란드의 아우슈비츠 안에 들어와 있었다. 이곳에서의 순간 순간은 죽음과 삶으로 갈라졌다.

자기가 서있는 줄이 죽음인지? 살인지? 아무도 몰랐다. 극도의 공포와 고문과 굶주림의 중노동으로 3년을 보내야 했다. 함께 왔던 포로들 1,300명이 시커먼 연기로 사라졌다. 빅터는 이 죽음의 현장에서 수

많은 사람들을 보았다. 대다수의 포로들은 체념하며 살았다. 산 것이 아니라 죽지 못해서 남겨져 있을 뿐이었다. 이곳에 끌려온 자들에게는 하루에 천천히 죽어 갈만큼의 양식이 배급되었다. 0.5리터의 국자 하나 정도의 묽은 스프와 한 컵의 물이 전부였다. 이걸 먹고 하루 12시간 강제 중노동을 견뎌야 했다. 온 몸의 앙상한 뼈들이 그대로 드러났다. 눈만 감으면 그대로가 시체였다. 저들에게는 미래가 완전히 끊어졌다. 인간은 미래를 먹어야 산다. 미래가 없다는 것은 그 자체가 죽음이다.

그런데 이런 절망 속에서도 자기를 지킨 소수의 포로들이 있었다. 그들의 얼굴과 눈에는 빛이 있었다. 이들은 매일 어김없이 반 컵의 물로 얼굴을 씻었다. 깨어진 유리 조각으로 면도를 했다. 저들은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 자기를 지켰다. 자기를 지키는 것은 곧 자존감을 세우는 길이었다.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공포 속에서도 저들은

인간됨을 잃지 않았다.

빅터 역시 절박한 상황에서도 열심히 꿈을 그렸다. 자유 하게 될 그 날을 그리며 빅터는 날마다 대학 강단에서 신나게 가르칠 꿈을 그리면서 매일 반복되는 현실의 절망을 덮어버렸다. 절망 속에서도 참 의미를 찾아내기 시작했다. 극단적인 현실 속에서 하나하나의 살아야 할 이유를 발견하게 되었다. 모든 의미에는 메시지가 있었다. 그 메시지를 통해서 빅터는 로고스를 들었다.

로고스는 절대자의 말씀이다. 살아있는 로고스를 듣는 순간 자신의 모든 삶의 의미는 강력한 파워로 바뀌는 레마를 체험하기 시작했다. 그 로고파워는 절망과 공포의 현실을 초월해 가기 시작했다. 이 로고스 파워를 맞은 자는 결코 죽을 수 없음을 알았다. 대다수의 죽은 자들은 로고파워를 듣지 못했다. 세미한 로고스를 듣는 자는 살아났다. 그러나 의미를 듣지 못하는 자들은 쓰러져 나갔다.

항거할 수 없는 때죽음 속에서도 의미는 자존감을 지켰고 그 자존감은 곧 생명으로 이어졌다.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는 우리네 속담과도 통했다.

로고스는 의미의 메시지이다. 이름 없는 나뭇잎에도, 돌맹이 하나에도 로고스는 존재한다. 천동번개를 통해서 더 큰 로고스 의미를 듣는다. 세상은 결코 우연히 돌아가지 않는다. 우리가 처한 상황에서 들을 수 있는 의미는 무엇인가? 빅터 프랭크는 이 '로고세라피'와 '의미치료'로 정신치료를 선구자가 되었다. 우리의 모든 삶에는 의미가 있고 의미는 로고스를 전한다. 오늘 나의 모든 삶에서 세미한 로고스를 들어야 산다. 로고스는 의미를 만들고 의미는 자존감을 세운다. 이 로고메시지를 들으면 나이가 죽음을 초월한다. 듣지 못하면 곧 죽음이다. 자존감은 곧 생명으로 이어간다.

jkim47@gmail.com

푸/른/초/장

노기송 목사
(뉴욕새예루살렘교회)



9절, "들의 짐승들이 삼림 중의 짐승들이 다 와서 삼키라."

아무리 이스라엘 파수꾼들의(지도자들)과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의 말씀을 전해줘도 못 깨닫는 자들에게 이방 군대를 불러 정신을 차리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다 와서 삼키라" 마치 대한민국 백성들이 자체적으로 정신을 못 차리니 외부 세력들이 와서 핍박을 받아보아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을 둘러싸고 있는, 북한, 중국, 러시아, 일본, 미국 등 어느 이방 군대가 와서 우리나라를 지배해야 하겠습니까? 참으로 무서운 현실이 눈앞에 닥쳐 있습니다.

차리고 움직여야 할 때 누워서 잠 자기만 좋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무서운 이사야 선지자의 지적이 바로 지금의 한국 교회의 영적 지도자들의 참 모습과 똑같습니다. 꿀 먹은 벼어리. 외쳐야 할 시급한 조국의 현실 앞에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 벼어리 개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피를 토하며 외치고 있습니다.

11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죽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요, 그들은 몰각한 목자들이라 다 자기 길로 돌이키며 어디 있는 자이든지 자기 이만 도모하며."

이 구절은 짓지 못하는 벼어리

급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수많은 백성들이 뭐라고 하던, 자기가 속한 교단이 뭐라고 떠들어 대던, 아무 상관없이 자기 길로만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12절, "피차 이르기를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먹자. 내일도 오늘같이 또 크게 넘치리라 하느니라."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든 관심 없고, 자기를 끼리 취하여 신나게 즐기자는 것입니다. 지금 나라의 현실이 황폐해지고 그야말로 공산화로 치달아도 아무 감각 없이 자기를 배만 채우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들의 짐승 같은 이방 군대들이 와서 삼켜버려야 한다고 피를 토하듯 열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부패한 파수꾼들은 영적 소경 지도자들입니다. 그들은 죄로 인하여 영안이 어두워져서 국가의 운명을 모르며, 그 백성들을 죄악의 구렁이로 인도하는 무지몽매한 자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에 대하여 무지합니다. 자기 욕심만 채우면 됩니다. 이방 나라들이 조국을 집어 먹으려 해도, 나라와 백성들이 잘못된 길로 가도, 벼어리 개처럼 경종을 울리지 않습니다. 자신들의 영적 무감각으로 사회 전체를 혼란케 할 뿐 아니라 국가 존립이 흔들리고 있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오히려 세속적인 것에 취해 있습니다. 감투와 물질에 취해 있습니다. 그래서 선거절만 되면 명예와 돈에 어두워 갖은 불법을 행하고 있습니다.

(11면으로 계속)

“파수꾼들이 깨어 일어나라!”

(이사야 56장 9절-12절)

이사야는 유다 왕 4대에 걸쳐 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활동한 선지자요 예언자요 선각자요 제사장이었습니다. 성경 66권 내용 중 개인적으로 제일 긴 내용을 담긴 최대의 인물이고, 구약 후선지서 중 제일 먼저 나오는 책을 기록했습니다. 또한 기록된 내용들을 보면, 국외적으로는 앗수르, 애굽, 바벨론 등 당대의 초강대국 사이에 끼어 매우 어려운 위기감 속에 있었고, 국내적으로는 사회적 부정의, 도덕적 타락, 우상을 섬기는 불신앙이 만연되어 백성들의 삶은 영육 간에 황폐되어 나라가 망해가고 있었습니다.

마치 그 모습이 오늘날 조국 대한민국 현실을 보는 것 같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국내외적으로 많은 어려운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위정자를 비롯하여 정치인들이나 백성들이 그 위기를 모르고 있다는 것이 더 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요즘 조국이 위기라는 것은 구구절절 표현 안 해도 영적으로 깨어 있는 분들이라면 다 알 것이기에 이 자리에서는 더 자세히 언급을 안 하겠습니다.

이사야 시대 때, 왕과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였으나

그들이 받아들이기를 거부하자 이사야는 유다에 있는 영적으로 살려주는 소수의 무리만이 구원을 받는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영적으로 깨어 있어 시대를 알고 백성들을 깨우쳐야 할 지도자들(파수꾼들이 문제였기 때문에 나라가 외

과 백성들이 잘 모르고 있다는 현실입니다. 더 큰 문제는 영적으로 죽어있는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 그렇다 해도, 길ियो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목사와 성도들조차도 제대로 현실을 파악 못하고 여전히 맘몬주의

세 침입에 망해가고, 국내적으로는 자기들이 영적으로 무지몽매함으로 자멸하고 있는 것을 모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직 이사야 선각자 한 사람만이 깨어있어 외롭게 고군분투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오늘날 조국 대한민국이 주사파 종북 좌파 정권이 들어와 엄청난 대한민국 헌법과 정통성을 무시하고 급속도로 공산화되어가고 있음에도 많은 지도자들(파수꾼들)

사상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조국의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고 정의와 진리를 외쳐야 할 파수꾼들이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아니 더 나아가 일부 몰지각한 목사들이 좌경화, 공산화에 더 앞장서서 날뛰는 모습을 볼 때 참으로 오후통재라 가슴을 치다 못해 갈기갈기 찢고 싶은 심정입니다.

오늘 본문이 이사야의 그런 피를 토하는 심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자주 방위 능력을 상실해가고 있는 현실이 대한민국입니다.

10절, "파수꾼들은 소경이요 다 무지하며 벼어리 개라. 능히 짓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요 누운 자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니."

나라를 지켜야 할 지도자 파수꾼들이 소경이라 보지 못하고 있고, 영적으로 무지하여 짓지도 못하는 벼어리 개처럼 되었고, 다 비현실적인 이상한 꿈만 꾸고 있고, 정신

개는 바로 목자들이라고 확실히 지적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타락한 목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 이유가 모두가 탐욕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이익만 도모하니까 나라와 백성은 생각지 않고 자기 배만 부르면 되고, 자기 교회만 부흥하면 그뿐인 몰지각한 목사들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 배를 채워도 죽한 줄을 모르고 계속해서 자기 것으로만 채우기에 급

실천적 복음주의 신학의 새로운 물결

미드웨스턴 침례신학대학원

학위과정:

성경사역학철학박사 PhD / 목회학박사 DMin / 교육목회학박사 DEdMin / 목회학석사 MDiv
선교목회학 DMin in Missions
설교목회학 DMin in Expository Preaching

미남침례교단 6대 신학대학원 | 탁월한 교수진 | 저렴한 등록금 | 한국부 517명 재학 | HLC & ATS 정식인가 | 상시입학 | 100% 한국어 강의 | I-20 발행



for the Church
MIDWEST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미드웨스턴 한국부 사무실
최새롬 사모 816-414-3754; ks@mbts.edu; www.mbts.edu





새라김 사모 (TVNG 설립자, TVNEXT.org)

거짓 영과의 치열한 영적 전쟁...사탄교 급성장

미국의 기독교 교회들의 출석률은 내려가고 있는데 사탄교 단체들은 급성장을 경험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미국의 사탄교는 최초로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 블랙 하우스에서 1966년 4월 30일에 안톤 스잔도르 라비(Anton Szandor LaVey)에 의해 "사탄성경"과 함께 설립된 후 그가 1997년에 사망한 후, 피터 로스 길모어(Peter H. Gilmore)가 사탄교 후임 대표로 임명되고 사탄교의 2번째 본부를 뉴욕 맨해튼의 Hell's Kitchen(지옥의 부엌)으로 옮겼습니다.

사탄교에 합류하는 많은 사람들은 가운데는 궁극적인 반란의 형태로 사탄주의를 받아들이는 자들도 있고, 어떤 이들은 성경적 가치관을 수호하는 트럼프 대통령을 반대한다는 정치적 성명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어떤 이들은 사탄이 주는 능력에 끌려서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함이라고 합니다. 이들이 TV쇼나 라디오 쇼에 나오기 시작할지도 이미 몇 십 년째 되었으며 우리 자녀들에게는 비디오 게임, 유튜브(Youtube), T-셔츠(shirts), 음악 등을 통해 이제는 매우 친근한 자들로 이해되는 상황입니다.

사탄교에서는 매주 기교한 의식이 그들의 지하실, 회의장, 공공시설에서 행해지고 있으며 대부분의 미국인은 그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하기에 더 더욱 경각심이 필요한 때입니다.

무엇보다 경각심이 더 더욱 필요한 이유는 진실을 이야기해야 할 대부분의 주요 언론들은 사탄주의자들을 단순히 "오해받는" 평범한 사람들로 묘사하거나 "기독교가 과민한 반응을 함으로 생겨난 피해자"라고 묘사하려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탄주의자들은 사탄 또는 루시퍼가 인간의 역할과 상한 마음을 가장 잘 이해하는 존재처럼 행동하여 사회에 사탄교를 친근감 있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사탄주의의 가치는 현대 사회가 점점 깊어 더 타락할수록 그 시대의 도덕적 가치와 더 정확히 일치하기 때문에 사탄주

의자들은 추종자를 모집하는 데 있어 점점 더 많은 성공을 거두고 있다는 기가 막히고 안타까운 보고입니다.

이제는 미국의 대부분 대도시들 안에 거처를 가지고 있는 사탄교

한 예로, 사탄교 대제사장 아담 다니엘스(Adam Daniels)는 오클라호마시티 중심지에서 "아히리만 교회"를 시작했는데, 아히리만은 페르시아의 악마 인물인 "안그라메인유"의 또 다른 이

(self preservation is the highest law)입니다.

다니엘스는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모독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 그의 중요한 목표라고 공공연히 인정했고 그의 딸이 성경(Holy Bible)책을 어디서인가 받아온 것을 알고 불태워버렸습니다. 그는 자신의 말이나 행동을 통해 하나님과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비참하게 하고 기독교 신앙을 부인하게 하며 고통을 느끼게 하는 것이 목표라고 했습니다.

과거에 미국에서 다니엘스 같

이유가 트럼프 대통령이 기독교를 보호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The Satanic Temple(TST)이라고 불리는 사탄교 공동창설자 Lucien Greaves는 말하기를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당선된 지 36시간 만에 트럼프 대통령을 저주하려는 사람들로 수천 명의 새 교인을 확보했다고 하며 이렇게 순식간에 많이 늘어난 것을 지금까지만 봐도 놀라워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탄교 추종자 수는 약 10만 명 정도이며 이들은 이제 트럼프를 미워하고 증오하는 "트럼프 저항"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참고로, The Satanic Temple(TST, 사탄성전)은 매사추세츠주 살렘(Salem)에 소재한 비신적 종교 및 정치 활동가 그룹이며 대변자인 Lucien Greaves와 Malcolm Jarry가 공동 창립했으며, 몇몇 지부가 있고, 그중 가장 큰 것은 미시간주 디트로이트에 있습니다.

이 사탄성전 단체는 평등주의, 사회 정의(Social Justice) 및 "교회와 국가의 분리(Separation between Church & State)"를 본래의 의미와 다르게 왜곡시키고 왜곡된 의미를 촉진시키기 위해 적극 정치적 로비활동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TST 사탄 성전은 사회와 대중으로부터 주목을 받을 목적으로 대중을 향해 풍자, 연극, 유머 그리고 때로는 직접적인 법적 조치(예: 낙태금지 반대 법안에 대한 반대소송)를 취하기도 하며, 새로운 법률을 제출하여 종교적 위선과 종교의 자유에 대한 침해가 정당하다고 강조하는 것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탄교는 큰 가르침 중 "교만(pride), 개인주의(individualism), 깨우침(enlightenment)"을 지향합니다.

세상속의 "빛과 맛을 내는 소금"으로 부르심 받은 크리스천들이 더더욱 깨어 하나님나라의 정의와 뜻을 잘 분별하고 다음세대를 위해서라도 사회 속에 일어나는 일들을 알아 시대를 분별하여 기도하며 예수그리스도의 빛으로 어둠을 밝혀야 할 때입니다.

sarahspring2009@gmail.com



름인 지옥의 신입니다. 이 사탄교회는 15명의 추종자가 있으며 그들은 다니엘스의 집에서 모이는데, 집의 창고를 사탄 숭배 결핵식과 사탄 숭배의 엑소시즘을 포함한 의식을 행하는 의례실로 개조했습니다.

또한, 35세의 다니엘스는 무장 강도와 몸싸움을 통해 정당방위 살해라는 치명적인 경험을 한 후 사탄주의에 매료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비록 무장 강도였지만 정당방위를 통해 범인을 죽이고 그는 정신적 고통 중에 정신 치료를 찾아가고 여러 종교로 눈을 돌렸습니다. 그는 위안을 찾으려 노력했지만, 기독교인들과 불교인들은 그가 죄를 범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살인 자체를 죄로 보지 않고 오히려 칭송하고 정당화 시키는 사탄교를 시작한 안톤 라비가 쓴 사탄성경(The Satanic Bible)에서 그는 위안을 찾고 사탄 숭배자가 되었다고 밝힙니다.

참고로, 사탄교 설립자 라비의 모토는 '자기 보존이 최고법이다

은 사람들은 매우 드물게 발견되는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오늘날 미국 전국에 크고 작은 모임들로 사탄교회가 퍼져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LA지역 Silver Lake Reservoir의 한 집 지하실에서 모이는 사탄교회에서 Alexandra James는 제단에서 검을 들고 표백된 사람 두개골 앞에서 기다리는 그녀의 남편 Zachary에게 가서 무리가 엄숙하게 지켜보는 가운데 그의 가슴에 점을 그린 다음 그룹을 향해 몸을 돌리며 말하기를 "이제 단에서 우리는 우리의 불의를 다 스리기 위해 칼을 바친다. 사람의 두개골, 죽음의 상징이다. 위대한 어머니 릴리스가 우리 모두를 창조했고 우리 모두를 파괴할 것이다. 사탄을 찬양한다! 사탄을 찬양한다! 사탄을 찬양한다!"라고 외쳤고 무리는 그것을 복창했습니다.

주요 사탄단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 이후 회원 수가 크게 늘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신앙상담



이정현 목사

빛과소금교회 / (310)749-0577
Johnjunghyunlee@gmail.com

Q: 사무엘하 12장을 보면 다윗이 밧세바를 취함으로 간음죄와 살인죄를 짓자 후에 나단선지자의 책망을 받고는 다윗은 즉시 회개했습니다. 그러나 나단선지자도 즉시 하나님께 당신의 죄를 사했다고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죄를 용서하셨지만 그에게 칼이 영원히 떠나지 않을 것까지의 씨인 아이는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죄는 회개하면 용서받아도 우리가 지난날의 죄 값인 형벌은 이 땅에서 받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두렵습니다.

-토랜스에서 전 권사

A: 좋은 질문입니다. 기독교의 일부에서는 다윗의 예를 가지고 철저한 보응론을 들고 나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지난날의 모든 죄를 용서받지만 그가 뿌린 범죄의 씨로부터 반드시 쓴 열매를 거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죄의 형벌은 생전에 철저히 치러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사실 이러한 주장은 유대인의 인과응보 사상이나 개톨릭교회의 사상입니다. 로마개톨릭에서는 죄의 보응론이란 이 교리를 강하게 내세우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 보혈의 피로 우리 죄 값 다 치러 죄 고백하면 더 이상 죄 보응 없어

그래서 죄를 범한 신자에게 고행을 하게 하든지 일정한 기간 특별한 봉사를 하게 합니다. 그래서 과거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도 사제로 있을 때에 자신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로마의 클라리산타라는 빌라도 다리의 28개의 계단을 무릎으로 고행하며 기어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감지 못한 죄의 형벌을 소위 중간상태인 연옥(purgatory)에서 얼마동안 불로 고통을 당하면서 소위 카타르시스(정화)를 받아야 천국으로 가서 구원을 받는다고 합니다. 로마교회의 보응론이나 연옥설은 우리 기독교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비 성경적인 사상입니다.

기독교지도자들 가운데는 다윗의 예를 들면서 죄를 용서받아도 그 값과 형벌은 어떤 모양으로든 치러야 한다는 교리를 가지고 성도들을 불안케 하는 일이 있는데 그것은 철저히 비 성경적인 것이므로 경계해야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 장로교의 신학자였던 칼빈은 그의 주석에서 대답합니다. 다윗의 경우는 매우 예외적이어서 그것을 모든 신자에게 적용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했습니다.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일 뿐 아니라 선지자요 왕이요 제사장으로서 영광스러운 예표 즉 세상에 오실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를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특별한 인물이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범죄를 평범한 사람과 구별해서 다른 것이 틀림없다." 과격한 보응론으로 마음을 불안케 하는 가르침은 우리의 믿음과 사죄의 확신을 흔들어 놓은 마귀의 술책이 되기 싫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만일 과거의 우리의 죄에 대해 일일이 보응을 받아야 한다면 우리 가운데 살아남을 자가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뿐 아니라 그 죄의 값을 더 이상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 죄의 값과 형벌과 저주를 다 치르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했는데 헬라어로는 테텔레스타이입니다. 그 뜻은 "그 값을 내가 다 치렀다는 것입니다(Paid all)".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로 우리의 모든 저주와 죄의 값을 다 치러 주셨기에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더 이상 죄의 보응은 없습니다. 회개하여 죄 용서 받았지만 지난날의 죄 때문에 그 값을 치러야 하는데 "아이가 죽는다면 지, 사고로 다친다면 지, 사업이 망할 수도 있다는 불길한 생각은 비 성경적인 것으로 버려야 합니다.

초특가 온라인 판촉물 전문기업



핀촉상인 US

us.87sangin.com

FREE SHIPPING!

※현수막, 단체T셔츠 주문 환영



신속 정확 착한가격

기독교 서적 및 일반 서적

45% OFF+tax

한국서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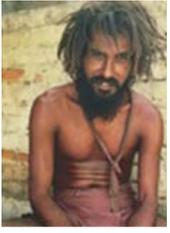
HANKOOK BOOKS

판촉상인 US / 한국서적 HANKOOK BOOKS

◆ Address : 161-21 29th Ave. Flushing, NY 11358 ◆ TEL : 718-762-1200 / 2000 ◆ E-mail : bookskorea@gmail.com ◆ Kakaotalk : moonsyang

종보기도 해주세요!...미전도 종족

인도의 포르자(PORJA)



포르자족은 오리싸, 아쌈, 그리고 안드라 프 레 데 쉬 주에 위치한 인도 종족으로써, 주로 아쌈의 코라푸트 지역에 거주하고 있다.

다-도리어 등 2개 국어를 사용하기도 하며, 아라쿠 주변지역에 살고 있는 대부분의 포르자족은 아디와시 오리야어를 유창하게 구사한다.

못한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다. 그들은 평생을 비참한 운명과 함께 살아야 한다.

삶의 모습

대부분의 포르자족은 농업에 종사하거나 일일노동자로서 살아간다. 그들은 스워드(경작을 태워 만든 작은 대지)를 경작하기 위해 황소를 이용하며, 한 지역에서 2-3년 정도의 농사를 짓고 나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 새로운 터전을 꾸려나간다.

포르자족은 옷가지 짚으로 엮어 만든 집에 거주하고 있다(집의 기둥은 작은 가지와 갈대 등으로 만들었다).

포르자족은 노래와 악기연주, 춤에 뛰어난 재능을 보인다. 특히 전통무용은 매우 독특하기로 정평이 나 있으며, 포르자족에게는 삶의 중요한 표현 수단이며 방식이다.

포르자족의 의상은 테루구족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남자들은 주로 셔츠와 드호티스라고 불리는 허리옷을 걸치며, 여자들은 살리스크라고 하는 화려하고 긴 망토와 함께 블라우스를 입는다.

신앙

포르자족은 전통적으로 "Vaishnavite" 힌두교가 만연해 있다. 이 종파는 여러 남, 여신들과 함께, 비슈뉴(세계의 보존자, 보호자)를 숭배한다.

필요로 하는 것들

우선적으로 포르자족에게는 의료시설과 교육여건의 개선이 필요하다. 이러한 점을 살펴볼 때, 포르자족 선교를 위해서는 교사나 인도주의자, 의료봉사 등의 실질적 지원이 선교의 시작이 될 수 있다.

인터넷 뉴스

Internet News

"Jesus loves you 카드 안 읽는다"

위스콘신 주 여대생이 다니는 대학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Jesus loves you)'라고 적힌 밸런타인데이 카드를 학우들에게 나눠주다 제지됐기 때문이다.



보도에 따르면 올센은 지난 2월 밸런타인데이를 앞두고 하트 모양의 카드에 '주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라거나 '하나님이 당신을 돌보십니다!(You are cared for)' 등의 성경 구절을 적어 학우들에게 나눠주다 학교 경비원의 제지를 받았다.

경비원은 올센을 경비실로 데려간 뒤 카드를 나눠주는 행위가 불쾌하다는 불만이 접수됐다고 말했다. 또 법이 종교에 대해 중립적으로 적용돼야 한다는 수정헌법 1조에 따라 교내에서는 이 같은 행위를 허가할 수 없다고 통보했다.

올센은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어릴 적부터 밸런타인데이가 되면 엄마가 제게 그렇게 카드를 적어 주신곤 했다"면서 "전 학교를 사랑하지만 자유와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고 말했다.

그녀는 소장에서 "이 같은 학교의 정책은 오히려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면서 "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리든 난 카드를 나눠주는 일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생일축하 카드든, 크리스마스 카드든, 초정장이다든, 메모장이다든, 밸런타인데이 카드든 어떤 것이라도 받는 사람의 동의 없이도 내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는 것 아닌가"라면서 "이 자유는 NWTU 뿐만 아니라 전 미국에서 허용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올센의 법률 대리를 맡은 WILL(Wisconsin Institute for Law and Liberty)측은 "NWTU가 학생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려고 하지만 그런 정책은 헌법 정신에 어긋난다"면서 "공공 교육기관에서 학생의 권리 보호 문제를 연방법원에서 타룰 것"이라고 경고했다.

"낙태 반대" 트윗...美 여성칼럼니스트 강간·살해 협박

미국의 크리스천 여성 칼럼니스트가 낙태에 반대하는 내용의 트윗을 올렸다가 강간과 살해 위협에 시달리고 있다고 크리스천포스트가 최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피해자는 데니스 DC 맥엘리스터라는 여성으로 주로 P미디어에 글을 쓰는 칼럼니스트다.

그녀가 올린 트윗이 화근이었다. 새 대법관으로 브렛 캐버노가 지명되면서 낙태 논쟁이 일자 그녀는 낙태를 비판하는 트윗을 올렸다.

그녀는 "낙태 히스테리의 근원은 여성들의 무책임한 섹스를 향한 고배 풀린 욕망"이라거나 "섹스는 그들(낙태 찬성론자들)의 신이고 낙태는 그들의 성체다. 낙태란 비인간적인 타락의 진흙탕을 벗어나 쌓아올린 문명화에서 여성들을 내쫓는 혐오스러운 일"이라고 적었다.

트윗은 낙태 운동가들의 분노를 샀다. 이어 SNS를 타고 오르내리다 급기야 맥엘리스터를 공격하겠다는 위협으로 이어졌다.

맥엘리스터는 "그들의 협박은 트윗터를 넘어섰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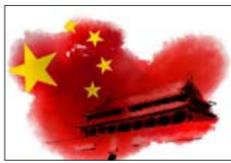
이제 내가 어제 사는지 안다는 말까지 나왔다"면서 "강간하거나 목 졸라 살해하겠다는 협박은 물론 내 가족까지 공격하겠다는 위협까지 있어 경찰에 신고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맥엘리스터의 자택을 수색하는 한편 그녀에게 당분간 트위터 등 소셜 미디어를 멀리하라고 조언했다. 맥엘리스터는 "낙태 반대론자들에 대한 혐오가 오히려 우리를 단단하게 만든다"면서 "만약 우리가 싫어하면 낙태 찬성론자들은 더욱 우리를 공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캐버노 인증청문회가 진행되면서 미국에서는 '선택권(Pro-Choice)'과 '생명존중파(Pro-Life)'로 나뉘어 낙태 논란이 달아오르고 있다.

중국 '온라인 선교' 완전 봉쇄한다

중국 기독교인들은 앞으로 온라인상에서 기도와 성경읽기, 세례, 성찬 등 종교활동을 담은 영상이나 자료를 공유할 수 없게 된다. 외국인 역시 중국 본토의 중국인에게 인터넷을 통해 어떠한 형태의 종교 안내도 해선 안 된다. 중국 정부의 종교 제한 조치가 온라인으로 번지고 있다.



12일 미국 크리스체너티투데이와 아시아뉴스(AsiaNews) 등에 따르면 중국 종교담당 국무처(SARA)는 지난 10일 온라인 종교활동 규제 초안을 공개했다. 초안에는 실시간 종교의식(예배) 방송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종교의식에는 기도와 설교, 향태우기 등이 포함된다.

35개 항목으로 구성된 규제안은 그동안 교회 개혁을 명목으로 종교활동을 제한했던 수준보다 강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종교 목적의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하려면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며 그 내용은 중국 정부가 만족하는 도덕적 건강성과 정치적 신뢰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은 종교단체와 관련 학교는 내부 네트워크용 인터넷에 설교 자료 등을 게재할 수 있으나 외부 공유는 금지된다. 등록된 아이디와 패스워드만 접근이 가능하다. 규제안은 종교단체가 인터넷을 통해 어느 누구도 개종하려 해선 안 되며 성경과 같은 경전이나 종교 자료를 배포할 수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SARA 측은 "이번 규제안은 인터넷 종교활동을 단속하려는 데 있다"며 "이는 중국 사회의 조화와 종교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규제안은 다음 달 9일까지 의견 수렴을 거쳐 확정한다.

최근 중국 정부는 종교 통제를 강화하면서 베이징 최대 지하교회인 시안(錫安)교회를 강제 폐쇄했다. 곳곳에서 신자들에게 개종을 강요하거나 성경과 십자가를 불태우며 예배당 집회를 압수하는 등 종교 탄압이 도를 넘고 있다. 반중 인권단체 '차이나 에이드'는 마오쩌둥의 문화대혁명 시기 이후 가장 강도 높은 기독교 탄압이라고 지적했다.

역올하게 죽은 폭인 청년의 찬양 큰 울림

강도로 오인 받아 총격 사망한 크리스천 청년의 생전 찬양 영상이 페이스북을 달구고 있다.



영상은 지난 8일 'CLJ 프로젝트'이 페이스북에 올린 것으로 12일 오후 현재 25만여회의 조회수와 5300여건의 공유수를 기록했다.

영상에는 보람 웹 진(26·사진)이 지난 2일 미국 델러스의 웨스트 처치 오브 크라이스트에서 찬양곡 '주의 영이 일어나게 하소서(Let the Spirit of the Lord

Rise)'를 부르는 모습이 담겨 있다. 진은 흑인 특유의 리듬감과 가창력을 뽐내며 성도들의 찬양을 선도한다.

CLJ 프로젝트는 영상을 올리면서 유가족을 돕기 위해 1만5000달러를 목표로 인터넷 모금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모금 사이트에는 4일 만에 3만7000달러가 모였다.

사고는 지난 6일 발생했다. 델러스주 여경인 엠버가이저(30)는 퇴근길에 아파트 3층 자신의 집이 아닌 4층 진의 집으로 잘못 들어갔다. 가이저는 진을 강도로 오인, 총을 꺼내 두 발을 쏘았다. 가슴에 총을 맞은 진은 다시 일어나지 못했다.

카리브해 섬나라 세인트루시아 출신인 진은 신앙심이 깊어 교회에서 찬양대를 이끄는 역할을 도맡았다. 인터넷에서는 "당신을 잃어 안타깝다" "하나님의 곁에서 편히 쉬길" 등의 애도가 잇따랐다.

"2017년 민간인 22000명 피살" ...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의 공격으로 2017년 한 해 동안 2만 2000명에 가까운 민간인이 피살됐다는 보고서 나왔다. 매일 60명의 무고한 사람들이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에게 목숨을 빼앗긴 셈이다.



토니 블레어 전 영국 총리가 설립한 비영리 단체 '토니 블레어 인스티튜트 포 글로벌 체인지'는 지난 13일(현지시간) 2017년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의 폭력으로 전 세계 66개국에서 적어도 8만4023명이 목숨을 잃었다는 내용의 보고서 '글로벌 엑스트리미즘 모니터'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사망자 중 이슬람 극단주의자 수는 4만8164명(57.3%)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민간인은 2만1923명(26%)이었다. 1만337명은 보안요원(security personnel)이었고 3307명은 비국가 활동요원(non state actors), 292명은 신원 불명자로 집계됐다.

2017년 한 해 동안 전 세계에서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과 이를 막기 위한 세력 간의 전투는 2만7092회 발생했다.

이 중에서 47개 이슬람 극단주의 집단은 48개국에서 7841회의 민간인 공격을 감행했으며, 이는 모두의 도적으로 이슬람에 대한 대중의 공포를 극대화시키기 위한 것이었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나이지리아의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조직 보코하람이 대표적인 예다. 보코하람의 공격 중 71%는 민간인을 타겟으로 삼은 것이었다.

보고서는 또 시리아와 이라크에서 극단적인 이슬람 수니파 무장단체인 이슬람국가(IS)가 패배했지만 여전히 120여개의 이슬람 극단주의 단체들이 난립하고 있어 전 세계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의 동시다발적인 공격을 선동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IS는 시리아와 이라크에서 축출 당한 뒤 이웃 아프가니스탄에서 현지 조직과 연합해 민간인을 겨냥한 각종 폭력사태를 일삼고 있다는 것이다. 블레어 전 총리는 통신사와의 인터뷰에서 "전 세계가 이에 함께 맞서지 않는다면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은 더욱 늘어날 것이고 폭력 사태 또한 더 많아질 것"이라면서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말했다.

보고서는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의 폭력사태를 억누르고 급진적인 이데올로기의 확산을 막기 위해선 교육 시스템이 절실하다고 제안했다. 극단주의에 대한 편견이 극단주의를 더욱 강화시키고 있으니 교육 시스템으로 상호 이해의 폭을 넓혀야 한다는 주장이다.

9·11이후...1조5천억 퍼트리고도 '테러와의 전쟁' 진행형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던 9·11 테러가 11일로 17주년을 맞았지만 '테러와의 전쟁'은 끝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미국이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시리아 등지에서 전쟁을 하느라 들인 돈만 1조5000억 달러에 달한다. 정작 전쟁의 핵심 목표였던 알카에다는 중동과 북아프리카의 혼란을 틈타 권토중래를 노리고 있다.

미국이 2001년 9·11 테러 이후 지금까지 중동 지역 군사작전에 들인 돈은 1조5000억 달러를 넘는다. CNBC방송이 미 국방부 보고서를 인용해 10일 보도했다. 이 중 49%인 7309억 달러가 이라크 침공 작전에, 39%인 5843억 달러가 아프간 침공 작전에 쓰였다.

미국의 최대 골칫거리는 아프간 전쟁이다. 현재 아프간에는 미군 1만5000명이 주둔 중이다. 2001년 9월 시작한 전쟁이 아직도 끝나지 않아 베트남전쟁을 제치고 미국 역사상 가장 긴 전쟁으로 기록됐다. 지금도 미국은 아프간에서 매달 29억 달러를 쓰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 전쟁 종식을 위해 탈레반 반군 측과 직접 대화에 나섰지만 아직까지 가시적인 성과가 보이지 않는다.

시리아 내전도 미국의 발목을 잡고 있다. 현재 시리아에는 미군 2000명이 주둔하며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 격퇴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리아 주둔군 철수 의향을 자주 내비쳤지만 실행에 옮기지는 못하고 있다. 미군 철수는 사실상 바샤르 알 아사드 시리아 정권을 지원하는 러시아와 이란 등 반미(反美) 진영의 승리를 뜻하기 때문이다. 또 미군의 공격을 틈타 한때 궁지에 몰렸던 IS가 다시 세력을 얻을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9·11 테러를 자행한 알카에다는 미국 등의 소탕작전에 한때 궤멸 직전까지 갔지만 최근 불안한 지역 정세를 틈타 중동과 북아프리카 지역에서 다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로스앤젤레스타임스(LAT)에 따르면 알카에다 조직원과 추종자는 시리아에서만 1만~2만명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역시 내전이 진행 중인 예멘과 소말리아는 각각 4000~6000명, 리비아에도 5000명 정도로 추산된다. 알카에다는 파키스탄과 아프간 간 국경지역에서도 상당한 세력을 유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영국의 테러전문가 리타 캐츠는 LAT에 "알카에다는 이념이다. 최첨단 무기로 지도자를 살해하고 시설을 파괴한다고 해서 이념까지 없앨 수는 없다"고 말했다.

알카에다는 행동 방식도 바꾼 것으로 전해졌다. 무차별적 테러 공격과 잔혹한 공개처형, 자국적인 홍보 같은 IS 활동은 지양하고 보다 부드러운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다는 것이다. 내전으로 큰 피해를 입은 나라의 수니파 이슬람교도들로부터 자발적인 지지와 지원을 얻어내려는 목적에서다.

타임지, IT기업인에 팔려

미국 유력 시사주간지 타임이 실리콘밸리의 IT기업 세일즈포스 창업자 겸 최고경영자(CEO) 마크 베니오프에게 1억9000만 달러에 매각됐다고 블룸버그통신이 16일 보도했다.



타임이 속한 타임사는 지난해 11월 18억 달러에 출판미디어그룹 메레디스에 매각됐었다. 메레디스는 이날 타임을 다시 베니오프에게 팔았다. 이어 타임사가 소유한 포천, 머니, 스포츠일러스테리트도 매입 대상자를 모색할 예정이다. 메레디스는 잡지산업 전반에 불어닥친 불경기 탓에 타임을 팔 대상을 찾기 어려웠다. 인수 희망자가 타임의 편집권을 보장할 것인가가 관건이었다. 앨런 머리 타임 최고콘텐츠책임자(CCO)는 "베니오프는 기업 이익보다 진실된 저널리즘을 우선시해 인수자로 적합했다"고 말했다.

최근 거대 IT기업이 전통적인 언론매체를 인수하는 사례가 허다하다. 제프 베조스 아마존 최고경영자는 2013년 워싱턴포스트를 사들였다. 2015년에는 최근 은퇴를 선언한 마윈 알리바바그룹 회장이 홍콩 영자매체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를 인수했다. 미디어 컨설턴트 로빈 스타인버그는 월스트리트저널 인터뷰에서 "이들은 모두 언론의 힘을 믿는 공통점이 있다"고 분석했다.

안국 선교 그 역사를 찾아서

-8.15 해방 전 한인 선교사



손상웅 목사 (한미교회사연구소 소장)

59. 권중흡(1871-?)

1920년 미국 인구조사에 의하면 권중흡은 1871년경에 한국에서 태어났다. 21세가 되던 1892년 고종 29년 승정원일기에 그는 호군(護軍)이었다. 36세의 그가 1907년 10월 25일에 가족을 한국에 두고 혼자 도미하여 상항에 도착했고, 그날 공립신보에 1달러를 기부했다. 1911년에는 그가 네브라스카 소년병학교의 농장을 맡았는데 6년 후에는 남가주 클레아몬트에 거주했고, 1919년에는 리대종과 손양선과 함께 남가주 업랜드의 국민회 파출소원이었다.

그 후 그는 중가주 리들리로 이주한다. 중가주 리들리는 1888년에 세워진 다뉴바 인근 도시다. 이곳에 한인교회가 세워지기는 1919년이었고, 1922년에 미국 남감리교가 내지선교로 승인했다. 한인들은 리들리 제일감리교회에서 찾을 수 있다.

이야기하는 취미도 귀하거나 그와 함께 느낀 로맨틱한 향수도 겪어 지우기 쉬운 것은 아니었다.

1928년 10월 데비스 목사의 사회로 미국 남감리교 중가주 계약회에서 권중흡이 서기로 책정되어 회부 처리에 들어갔다. 권사이자 주일학교 교장인 권중흡이 보고하였는데 그는 권사와 주일학교 교장직을 겸임하게 된다. 그해 성탄절은 세 부분으로 나누어 매우 성대한 순서로 진행됐다. 오창곤의 사회로 일곱 조목의 재미있는 절

다. 이 회의에서 권중흡은 전도사 직분을 계속하기로 했다.

이날 한인부 회의에서 주일학교는 미국 주일학교 통일공과를 사용하고, 국어학교는 조선어 독본을 쓰기로 하고, 미국 남감리교 부흥목사 콜 박사를 초청하여 12월에 상항, 스타튼, 리들리 등의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기로 했다.

그해 10월에 있었던 마영준의 가족 송별회에서 권중흡은 섬섬한 정을 기도에 담았다. 답사에 나선 마 부인은 '사업상 관계로 떠날 때 이 같은 귀한 모임을 미주 20성상에 처음입니다... 우리 집에는 큰 영광으로 압니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그해 11월 추수감사절은 3부로 구성됐다. 먼저 이튿날 오후 5시에 리들리 여관에서 연회를 베풀었다. 동포 40여 명이 모인 가운데 한석원 목사의 기도 후 김형순이 보낸 터키 세 마리도 이흥섭이 장만 한 터키 요리를 먹은 후 진영규와 최학선의 '유산단가'를 비롯한 여흥이 있었다.

2부는 감사절 예배였다. 찬송가 제창에 이어 권중흡이 기도하였고 한석원 목사가 '감사와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였다. 올해보다 오는 일 년 동안에 많은 축복이 내려 새로운 일이 일어나기를 힘쓰자고 강조한 후 해외에 있는 우리는 기쁘고 즐거운 감사를 받았으니 지금 조국에서 입을 것과 먹을 것과 있을 것이 없이 추운 겨울에 삶의 길을 찾는 우리의 형제를 돕자고

속도하여 예배를 마쳤다. 제 2부에서 어린 학생들이 '고요한 밤'을 부를 때 산타클로스가 들어와서 예물을 나누었고, 밤 9시에 폐회했다.

1930년에도 권중흡은 전도와 선교에 열중했다. 새해 1월 1일부터 5일까지 강사를 초청하여 다른 제목으로 설교를 맡겨 신년 기도회를 개최했다. 1일 밤에는 마주흥이 '믿음과 생활'을, 2일 밤에는 다뉴바의 이삭음이 '민족과 독립정신'을, 3일 밤에는 오창곤이 '은혜와 감사'를, 4일 밤에는 이치완이 '금주와 금연'을, 마지막 날인 5일 아침에는 한석원이 새해의 표어인 '예수여 오소서'를 그리고 그 날 밤에는 권중흡이 '하나님의 교회'를 설교했다.

그해 3월에 리들리 한인예배당에서 데비스 목사의 사회로 미국 남감리교 중가주 구역 제 1개척회가 있었다. 구역 목사 한석원과 전도사 이치완의 보고에 이어 권중흡이 보고했고, 오창곤 전도사와 마주흥 목사의 보고가 그 뒤를 이었다.

이날 권중흡은 재정 유사와 주일학교 교장에 선임되었다. 그리고 김형순과 장유문이 권사가 되고, 장유문과 김형순과 권영복과 강순태가 탁사가 되고, 장유문이 유사사가 되고, 오창곤과 진영규가 교육 위원이 되고, 이치완과 진영규가 생명록 조사 위원이 되고, 김형순이 평신도 인도자가 되고, 권영복이 부인선교위원이 되고, 지방회 평신도 총대에 김태부 부인이 피선되

임되었다. 그해 결론회원, 결의위원, 전도사 인허위원, 교육부 위원, 교회 건축부 위원 그리고 재정부 위원 등 6개 위원회가 있었다. 이해 리들리, 태프트, 딜라라 등의 리들리 구역의 인종 총 75명 중 출석은 50명이었으며, 지난 1년간 세례받은 자는 유아세례자 1명뿐이었고, 총 헌금액은 966달러였다.

권중흡의 나라 사랑은 1929년에 다뉴바의 국어학교인 고려학원에 기부한 2달러 50센트에서 보인다. 이는 '대한인의 과거말은 우리 민족의 생명인 바 이 생명의 진리로써 우리 소년 남녀를 교육하는 교육 기본금이었다. 두 달 후 삼일절 기념식에서 고병관, 윤액네스, 김형순, 박윤서, 김춘성과 더불어 그도 나라 사랑을 강조했다. 이날 선언한 아래의 '앞으로 우리의 의무'는 귀담아들 만하다.

"3월 1일 오늘은! 대한 사람이 십 년 전에 처음으로 독립을 부르짖은 기념할 날이다. 대한 사람이! 태극기 날리는 그 아래 모여라. 정신을 살리자! 힘을 모으자! 일을 하자! 그리하여서 우리는 자유의 나라를 만들자! 무궁화 뿌리를 튼튼히 박혀 주어라! 우리는 그 그늘 아래서 영원히 살자! 우리 대한 사람들아! 우리의 외치는 대한 독립만세의 소리로 천벌을 뒤집어 놓자! 힘껏 목이 터지도록 만세를 높이 불러라. 사랑하는 형제여! 자매여! 싸우자! 우리의 독립이 오는 그 시간까지. 민국 11년 3월 1일."

그해 10월에 한인 아동교육기관 기성발기위원 리들리 대표로서 한석원과 진영규와 함께 그도 '국어학교'에 필요한 교과서와 참가집과 기타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기숙사나 양생소를 마련하고, 자국의 정신과 사상을 연계할 방침을 연구하여 실행하기로 했다.

1930년은 슬픔의 해였다. 6월 남강 이승훈 선생의 추도회에서 권중흡은 이치완과 강화종과 진영규와 오창곤과 함께 추도사를 맡았고, 이웃 정봉준이 중가주 스타튼 병원에서 별세하였다.

귀국

1933년 권중흡은 남가주 업랜드에서 농업에 종사한다. 그해 8월 그는 '사랑하는 형제여 고향을 신한민보에 게재하고 여러 형태의 번지를 일일이 알지 못하는 고로 광고하는데 세음조를 보내 주신다면 보조 해주신 것 같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적었다.

"같이 늙어가는 터민족 늙은이의 노동 생활이 극난한 것을 잘 아시겠지요 세음조 이는 형제에게 고합니다. 김병규 10달러, 이병학 189달러, 이상창 100달러, 유진의 40달러, 박동규 100달러, 윤병희 128달러, 진영규 10달러, 장유문 23.25달러. 이상."

본국 수제 구제금 2달러를 기부할 때인 1936년 그는 '알타 로마에 사서함을 가지고 있었다. 그해 12월 19일에 나무에서 떨어져 얼굴과 목에 중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하다가 월말에 퇴원하였다. 66세가 되던 1937년 6월 10일 여생을 정다운 고국에 돌아가 보내기 위하여 상항에서 '아사마 마루' 선편으로 귀국했다. 그 후 그의 이름을 찾을 수 없다.

damien.sohn@gmail.com

1929년 미남감리회 지방회서 리들리한인교회 전도사로 파송 재정 유사와 주일학교 교장 역임...자비량 선교, 구제도 힘써



리들리 제일감리교회

차를 진행한 1부에 이어 2부에는 권중흡의 사회로 11가지 취미 있는 순서를 진행하였다. 3부에는 진영규의 사회로 희락과 여흥 등의 유쾌한 순서가 있었다.

1929년 1월에 미국 남감리회 지방회는 권중흡을 리들리 한인교회 전도사로 파송한다. 그 외에도 전도사로 오창곤과 마주흥이 있었고, 담임목사는 한석원이었다. 또한 권중흡은 임정구 목사와 함께 '교회 건축부 위원'으로 임명되었는데 위원장은 황사선 목사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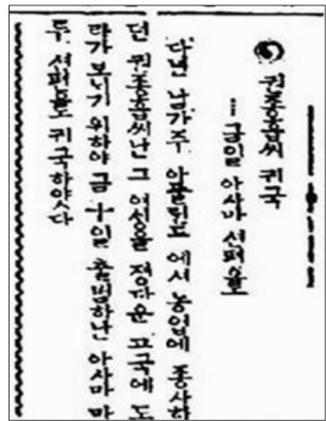
그해 6월에 중가주 스타튼에서 미국 남감리교 구역대회가 있었다. 상항 예배당 건축위원장 황사선 목사의 보고에서 상항 한인교회 건축헌금 모집위원을 사도, 오를랜드, 스타튼, 리들리에 두 명씩 선정하였는데 권중흡은 임정구 목사와 함께 상항을 맡았다. 그리고 신령상 위원장 임정구 목사의 제안에 따라 중가주의 태프트와 딜라라 등에 거주하는 동포의 전도를 리들리교회 한석원 목사가 담당하였으므로 본 교회 전도사 권중흡도 동행하게 된다.

버클리 웨딩교회 증정실에서 모인 가정동양인 선교연회는 그해 9월에 있었다. 내슈빌의 총선교부 클락 박사와 태평양 연회의 손님이 참석한 가운데 해이 감독의 주관으로 지방 목사들의 보고에 이어 전도사들의 보고가 있었는데 권중흡도 보고하였

강격과 눈물로 역설하였다. 감사절 헌금 순서가 있었고 이 헌금은 본국에 보내기로 했다. 총 46달러 30센트였고, 권중흡은 2달러를 헌금했다. 제3부 순서는 마주흥의 집에서 연접집에 기과의 간략한 연회가 있었다. 신한민보는 "우리 각 교교(교회)에서 감사절을 성대히 지켜 내지에서 굶고 있는 형제를 생각하자"라는 제목을 달아 이날의 감사절을 크게 보도했다.

그해 성탄 축하회에서 권중흡이 사회를 맡았다. 12월 24일 저녁 7시 30분에 권은식과 권정식이 '거룩한 밤'을 하모니카로 부르면서 1부 예배를 시작했다. 찬송가 63장을 다같이 불렀고, 마주흥의 누가복음 2장 8-20절의 봉독과 이치완의 이사야서 9장 1-7절의 봉독 후 오창곤이 기도하였고, 권형식이 '고요한 밤'을 불렀다.

이어서 한석원 목사가 '예수님의 오심'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한 목사가 기도한 후 찬송가 1장을 다같이 불렀고 이어 그가



귀국. 신한민보 1937년 6월 10일

그해 4월 리들리 한인예배당에서 미국 남감리교회 4년 총회에 참석하기 위하여 한국교회 대표로 은 양주삼 목사 부부의 환영회가 있었다. 김형순의 사회 하에 일동이 일어나서 애국가를 부른 후에 권중흡이 기도를 하였다. 그달에 상항 한인예배당에서 데비스 목사 주관으로 지방회가 있었다. 권중흡은 불참했지만, 그도 오창곤, 이치완, 노순대, 김필권 등과 함께 풍행을 통과하고 전도사 2명으로 승급하고 전도사 직책을 계속했고 '신령상위원'으로도 선

리들리 한인교회 전도사

중가주 리들리와 인근 다뉴바의 모습은 문교부 장관을 지낸 오현석이 뉴욕 칼럼비아 대학교에서 공부하던 때인 1929년 10월에 신한민보에 기고한 '태평양 연안 지방 여행'을 마치고"라는 글에서 듣는다.

"다뉴바의 열대를 연상시키는 하루 저녁은 독특한 맛을 주었다. 본국 시골에서 보는 듯한 예배당 안에서 삼일 기도회를 지키는 적삼 바람의 교우들, '오발돌'에 몸을 싸고 맨발로 들락날락하는 귀여운 아이들, 청춘과 건장의 상종이라 할 만한 포도 따는 학우들- 이러한 분들과의 모임은 저녁 한 끼 안이라. 하루 종일 굶고라도 늘 가지고 싶도록 친절한 맛이 있었다. 날이 짙듯이 덥거나 말거나, 비 맞든 지 오래 땅에 고인 먼지가 겹겨나 말거나, 포도밭이랑 가에서 포도를 따고 있는 동포들을 대할 때의 기쁨은 여간한 애인을 만났던 비길 수 없었다. 내가 범석 잡은 그들의 손이 겹겨나 말거나, 거칠거나 말거나 그들에게서 흐르는 내 몸에서 흐르는 동족의 피는 그때 한참 풀도 불같이 터운 해에도 비길 수 없었다. '포도 좀 잡수시오!' 하면서 폭포수 같은 송이를 따서 주던 그의 사랑! 불결같이 찢쩍 끓는 낮이 가고 서늘한 열대 지방의 저녁 바람에 땀 떨어지고 있는 리들리를 찾을 때는 이미 밤 8시가 가까웠다. 한인 예배당 걸 밟기 딱 앞 나무 밑에서 놀던 그 녀 녀들을 집안으로 모시고 동네 여러분들과 갈게를 펴고 부침을 부치며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서부(CA)교회안내

감사한인교회 담임목사 : 구봉주 주일 1부 예배: 오전 7:30 주일 2부 예배: 오전 9:30 주일 3부 예배: 오전 11:30 E.M. Youth 예배: 오전 11:00 주일 학교: 오전 11:00 금요영양회: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영아예배: 오전 9:30, 11:30	나성순복음교회 담임목사 : 진유철 주일 1부 예배: 오전 7:30 주일 2부 예배: 오전 9:30 주일 3부 예배: 오전 11:30 안락교회연합회: 오후 2:00 금요영양회: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나성영락교회 담임목사 : 박은성 주일 1부 예배: 오전 7:00 주일 2부 예배: 오전 8:30 주일 3부 예배: 오전 10:00 주일 4부 예배: 오전 11:30 주일 5부 예배: 오후 1:30 (청년) 새벽기도회: 5:30(월-금), 6시(토)	나성제일교회 담임목사 : 김곤수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E.M. 예배: 오전 11:00 수요찬양회: 오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남가주든든교회 담임목사 : 김현인 주일 1부 예배: 오전 9: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E.M. Youth 예배: 오전 11:00 주일 학교: 오전 11:00 금요영양회: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40(월-토)	남가주사랑의교회 담임목사 : 노창수 주일 1부 예배: 오전 7:20 주일 2부 예배: 오전 9:20 주일 3부 예배: 오전 11:20 영아예배: 오후 1:20 영아전 (영소:KDC, 킹덤드림센터) 1부: 오전 9:20 2부: 오전 11:20	대중장로교회 담임목사 : 권영국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 2부 예배: 오전 9:30 주일 3부 예배: 오전 11:00 주일 4부 예배: 오전 11:30 영아예배: 오전 9: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금요예배: 오후 7:30	디아스포라선교회 대표 : 진영자 목사 "세계속에서 흩어져 있는 우리의 동족을 위해 일하는 선교회" 주일예배: 오후 2:30
베델한인교회 담임목사 : 김한요 주일 1부 예배: 오전 7:15 주일 2부 예배: 오전 9:15 주일 3부 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 예배: 오후 2:00 성요셉영양회: 오후 7:00 영아예배: 오후 1:30(수요일-금), 6:00(토) 주일학교: 오전 9:15, 11:30	LA 복음연합감리교회 담임목사 : 김호용 주일 1부 예배: 오전 9: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아동부/청소년부: 오전 11:00 청년부 성경학교: 오전 11:30 주일 학교: 오전 11:00 수요찬양회: 오후 7:00 성경대학(목요일) 오전 10:00 새벽예배: 오전 6:00	복음장로교회 담임목사 : 김상택 주일 1부 예배: 오전 9: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영아예배: 오전 2:00(대학부) 금요예배: 오후 7:30	세계소망교회 담임목사 : 오세훈 주일 1부 예배: 오전 8:3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 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 예배: 오후 1:45 금요기도회: 저녁 8:00 새벽예배: 오전 5:30(월-토)
은혜한인교회 담임목사 : 한기홍 주일 1부 예배: 오전 7:30 주일 2부 예배: 오전 9:20 주일 3부 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 예배: 오후 2:00 금요성경회: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6:00(토) 세계기독교선전: 365일 24시간	주님세운교회 담임목사 : 박성규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 예배: 오전 1:30(청년) 주일 학교: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성령대방회: 오후 7:00(금)	주님의영광교회 담임목사 : 신승훈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 예배: 오전 11:00 주일 4부 예배: 오전 11:30 주일 5부 예배: 오전 1:00 주일 6부 예배: 오전 1:30 새벽예배: 오전 6:00(월-금)	중은마교회 담임목사 : 신현규 주일 1부 예배: 오전 7:30 주일 2부 예배: 오전 9:30 주일 3부 예배: 오전 11:45 주일 4부 예배: 오전 11:45 목요기도회: 저녁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콘네티컷 교회 담임목사 : 이종용 주일 1부 예배: 오전 9: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수요일 예배: 오전 7:30 주일 4부 예배: 오후 1:45(월-토)	토렌스노교회 담임목사 : 김우준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0:00(청년) 주일 3부 예배: 오전 11:00 주일 4부 예배: 오후 2:00(EM) 주일 5부 예배: 오후 2:00(청년) 영아예배: 오전 10:00 수요예배: 오후 7:30	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들을 찾습니다 L.A.: Tel. (323)665-0009 Fax. (323)665-0046 N.Y.: Tel. (718)886-4400 Fax. (718)886-0074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	

리더십 코멘터리 (73)



손동원 박사
(미드웨스트대학교 교수, 리더십학자)

관계회복의 영적 솔루션

성경은 관계의 책

현대인들은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관계를 소홀히 여기면서 살아간다. 관계가 핵심이고 나머지는 사소한 것들이다. 수많은 관계가 있다.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관계, 나 자신과의 관계, 자연과의 관계, 물질관계 등이 그것이다. 성경은 관계의 책이라고 불릴 정도로 수많은 관계에 대하여 증언하고 있다. 관계 중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후에 죽음이 찾아왔고 불행이 찾아왔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려고 세상에 오셨다. 십자가는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의 열쇠가 된다.

리더의 성공 여부는 관계에 있다

최근 리더십과 관련해서 세상이 주목하고 있는 주제 가운데 하나는 바로 관계이다. 이것은 곧 리더십의 성공 여부가 업적이나 결과에 있는 것이 아님을 반증하는 것이다. 리더가 사람들에게 큰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서는 건강한 인간관계를 형성해 나가야 한다. 건강한 인간관계를 세우지 못한 리더는 결코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없다.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그들을 움직이게 하는 가장 근본적인 힘은 바로 그들과 건강한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것이다. 그렇게 될 때 리더는 자신의 영향력을 통해 다른 사람들과 함께 위대한 업적과 탁월한 결과를 얻게 될 것이다.

주변에 있는 사람을 돌아보라

성공한 리더인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주변 사람들과 어떤

인간관계를 맺고 있는가를 살펴보는 것이고, 건강한 인간관계를 맺고 있는가를 확인하는 방법은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살펴보는 것이다. 리더인 내가 지금 죽는다고 해도 나와 같은 사명과 비전을 가지고 조직과 공동체를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만약 그런 사

현대사회 핵심인 관계는 영성...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 살리고 세우고 주는 것...사람 아닌 문제공격, 해결보다 화해

람이 있다면 당신은 성공한 리더로 평가 받을 것이다. 조직과 공동체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만약 당신이 당신과 같은 생각과 가치관을 가지고 움직이는 사람을 세웠다면, 그래서 당신이 그 조직에서 잠시 자리를 비우더라도 당신이 있을 때와 다를 바 없이 그 조직이 움직이고 있다면, 당신은 성공한 리더이다. 리더여, 오늘 당신 주변에 있는 사람을 다시 한 번 돌아보라.

살리고 세우고 주어야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리더십의 내용은 3가지로 압축된다. 살리고 세우고 주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리더는 살리는 리더십을 나타내야 한다. 남을 살리면 내가 살고, 남을 죽이면 내가 죽는다. 심는 대로 거두는 것이 성경의 법칙이다. 리더는 세우는 리더십을 나타내야 한다. 남을 헬뜰고 시기하고 모함해서 파괴하는 세상 가운데 리더는 희망을 세우고 비전을 세워서 그것을 이루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리더는 세우는 일에 더욱 힘쓰고 모든 투자를 해야 한다. 리더는 주는 리더십을 나타내야 한다. 준다는 것은 희생한다는 의미이다. 영향력 있는 리더는 헌신과 희생의 본을 보여주어야 한다.

관계 맺기의 달인이 되라

리더는 관계 맺기에 능해야 한다. 진정한 리더십은 관계를 잘 맺는 것이다. 좋은 관계를 위해 기도하고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 사람들이 죽음 앞에서 후회하는 것이 있다. 사람들과 관계를 잘 맺지 못한 안타까움이 있다. 관계를 잘 맺는 인생은 후회가 없다. 인간관계가 중요하데 인간의 본성을 이해해야 한다. 인간은 자기중심적, 이기적인 삶을 살아간다. 어떤 리더가 욕심을 부리고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을 뉴스에서 접하게 될 때, 그를 미워하기보다는 원래 인간의 모습이 그렇다고 이해하면 스트레스를 덜 받게 될 것이다.

리더의 관점에서 구약의 잠언을 연구해보면 인간관계의 교과서인 것처럼 관계에 대한 많은 리더십 이론들이 등장한다. 잠언 속에 모든 인간관계의 지혜가 기록되어 있다. 특별히 정직함에 대한 언급이 눈이

뜨인다. 정직한 리더는 신뢰를 얻고 정직하지 못하면 신뢰가 깨진다. 신뢰가 깨지면 관계가 무너진다. 리더여, 정직을 연습하고 실천해서 관계 맺기의 달인이 되라.

관계회복의 영적 솔루션

①필요를 채워라
대부분의 갈등은 필요가 충족되지 못할 때 일어나는데 그 필요가운데는 하나님만이 채워주실 수 있는 것들이 있다. 하나님을 제외한 누구도 인간의 필요를 채워줄 수 없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마음을 쏟아놓으라.

②먼저 다가가라
당신이 피해자이든 가해자이든 상관없이 리더십을 발휘해서 먼저 다가가라. 뒤로 미루면 분노만 깊어지고 문제는 더 심각해진다. 갈등은 시간이 해결해 주지 않고, 시간이 지나면 상처는 깊어간다.

③감정에 공감하라.
갈등을 해결하려 하기 전에 먼저

사람들의 심정이 어떤지 들어 주라. 리더는 감정이 진실 되지 않거나 논리적이 못해 의심과 두려움이 있을지라도 상대방을 배려 해주어야 한다.

④나에게도 잘못이 있음을 고백하라.

인간은 누구든지 완전하지 못하다. "내가 문제인가? 내가 비현실적이고 둔한가? 혹은 내가 너무 예민한가?" 하는 질문을 깊게 생각하고 리더 자신을 돌아보아야 한다. 핑계를 대거나 책임을 전가하기 전에 실수를 겸손히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리더가 되라.

⑤사람을 공격하지 말고 문제를 공격하라.

잘못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가리는데 노력을 쏟으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리더십을 발휘하려면 갈등이 있을 때에도 비난, 비교, 판단, 모욕, 멸시, 그리고 빈정대는 태도로 사람을 공격하는 무기들은 절대 사용하지 말라.

⑥할 수 있는 한 협력하라.

평화에는 항상 대가가 따른다. 그 대가가 리더의 자존심일 수도 있고 자기중심성일 수도 있다. 그러나 화목을 위해서 리더는 양보하고, 상대방에게 맞추며 그의 필요에 호의를 보이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⑦해결이 아닌 화해를 강조하라

해결은 문제에 초점을 맞추지만, 화해는 관계에 초점을 맞춘다. 사람들 사이에서도 정당하고 솔직한 의견 차이나 이견이 있을 때 불쾌감을 주지 않으면서 그 의견에 반대할 수 있다. 화해가 아닌 연합을 꾀하는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문제에 대해 같은 시각이 아니어도 공존이 가능하다. 이것은 문제의 해결책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 논의하고 논쟁해야 할지라도 모든 것이 영적인 조화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관계는 영성이다. 누가 영성이 깊은 리더인가?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과의 관계를 잘 맺는 리더이다. 관계는 행복의 열쇠가 된다. 관계가 잘되는 곳에 화목과 평화가 난다. 지금은 리더가 관계의 중요성을 철저히 기억하고 이것을 구체적으로 실천해야 할 때이다.

sondongwon@gmail.com

건강 길라잡이



이영직 내과전문의

게양성 장염

혈변과 함께 설사와 복통호소

서구화된 식습관과 사회 발달로 한국인의 질병 양상은 점점 서양인과 비슷해지고 있다. 과거에는 한국인에게 거의 보지 못했던 게양성장염이나 크론병 같은 염증성 장 질환도 드물지 않게 진단되고 있다. 미국에 이민 온 일본계 미국인의 사례를 예로 들면 이민 1세 일본인과 비교했을 때 이민 2세, 3세로 내려갈수록 질병의 양상이 미국인과 유사해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모든 것이 환경이 질병의 발병에 미치는 영향을 말해주고 있다.

-20대 초반의 대학 2학년생인 임 모씨는 2개월 전부터 대변을 볼 때마다 붉은 피가 섞여 나오는 것을 발견했다. 처음에는 화장지에 피가 묻어 나와서 깜짝 놀라 인터넷을 찾아보니 변비 때문에 피가 나올 수 있다고 해서 안심했다. 하지만 피는 계속 나오고 2주전부터는 설사와 함께 복통도 있었다. 대학에서 생물학을 전공하는 임씨는 학기말 시험 준비로 스트레스가 매우 심한 상태였고 식사도 제대로 못했다. 임씨는 힘들게 시험을 모두 마치고 병원을 찾았다. 임씨는 로스앤젤레스에서 나고 자랐고 대학 진학을 위해서 동부로 왔다. 처음 겪는 동부의 춥고 어두운 날씨 때문에 첫 해는 정신적으로 무척 힘들었지만 잘 이겨냈고 지금은 잘 적응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고등학교 때 시험 때면 설사와 변비를 번갈아가면서 하는 과민성 대장 증상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의사로부터 들은 적이 있었다. 담배도 피우지 않고 술은 전혀 마시지 않으며 주말마다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있다. 임씨의 의학적 검진상 특별한 이상은 없었다. 직장 수치 검사상 혈변이 묻어 나왔고 치질의 소견은 보이지 않았다. 혈액검사를 했는데 직장에 게양이 보였고 조직 검사상 게양성 장염으로 진단 받았다. -

게양성 장염은 크론병과 함께 염증성 장 질환의 일종으로 주로 북유럽이나 영국계 미국인에서 많이 발견된다. 하지만 서구화된 식생활 변화와 육류 위주의 식사, 스트레스가 많은 사회 환경 등으로 한국계 미국인이나 한국인에서도 게양성 장염의 진단이 늘고 있다.

게양성 장염의 원인은 유전과 환경 모두 관계가 있다고 보고 있지만 정확한 원인은 규명되지 않고 있다. 15-30세에 가장 흔하지만 중년이후에도 발병할 수 있다. 아직 한국에서는 염증성 장염이 상대적으로 드물기 때문에 세균성, 바이러스성, 결핵성, 허혈성 장염이나 방사선 치료 후에 오는 장염 등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다.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동부(NY, NJ)교회

뉴욕부르클린제일교회 담임목사: 이윤석 주일예배: 오전 11:00 영양예배: 오전 10:00 수요일예배: 오후 8:45 금요일예배: 오후 8:45 새벽기도: 오전 6:00(월-토) 성경공부: 오전 10:00 화,토 Tel: (718)265-2584 14 Gravesend Neck Rd., Brooklyn, NY 11223 www.kccb.org	뉴욕빌라델비아장로교회 담임목사: 김재현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2:00(영양) 수요일예배: 오후 8:30 새벽기도: 오전 6:00(월-토) 주일학교: 오전 11:00 Tel: (516)883-1977, Fax: (516)883-1961 2 Beacon Hill Road, Port Washington, NY 11050 www.kcb.org	뉴욕사백별장로교회 담임목사: 정기태 주일1부예배: 오전 11:00 주일2부예배: 오전 1:30 주일3부예배: 오후 1:15 청년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6:00 세 배 기도회: 오전 6:00 (화-토) Tel: (917)733-7387 45-16 162 St., #204, Flushing NY 11358 chungkilee@yahoo.com	뉴욕새생명장로교회 담임목사: 허준준 주일1부예배: 오전 9: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1:3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주일학교: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8:30 금요일예배: 오후 8:30 새벽기도: 오전 6:00 세 배 기도회: 오전 6:00 Tel: (718)637-1470 45-50 162 St., #2F, Flushing, NY 11358	뉴욕새사람교회 담임목사: 이종원 주일예배: 오전 10:30 영 양 예 배: 오전 12:45 수 목 예 배: 오후 8: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6:00 주일학교: 오전 10:30 Tel: (718)886-4040, Fax: (917)373-3411 46-04 162 St., Flushing, NY 11358	뉴욕센트럴교회 담임목사: 김재열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http://www.cpcofny.org Tel: (516)387-9940, 9942(EM) 154 Old Westbury Road Old Westbury, NY 11568	뉴욕순복음안디옥교회 담임목사: 이만호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전 11:30 금요일예배: 오후 8:30 금요일예배: 오후 8:30 새벽예배: 오전 5:30(월-토) Tel: (718)406-9199, Fax: (718)361-9433 12-25 Clintonville St., Whitestone NY 11357 www.moakyang.org		
뉴저지성도교회 담임목사: 허상희 주일예배: 오전 11:00 찬양예배: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8:10 새벽기도회: 오전 5:40(화-금) 금요일기도회: 오후 8:30 (매주 1주, 3주) Tel: (201)342-9194, Fax: (201)943-5204 309 State St., Hackensack, NJ 07601 http://sungdochurch.org/	리빙스톤교회 담임목사: 유상열 주일예배: 오전 10:50 주일학교: 오전 10:50 청년성경공부: 오후 1:30 주일학교: 오후 12:30 주일학교: 오후 1:30 수요일예배: 오후 8:30 수요일예배: 오후 8:30 Tel: (718)961-2171, Fax: (718)961-3631 215-29 42 Ave., Bayside, NY 11361	빛과소금교회 담임목사: 정순원 주일 1부 오전 7:30분 주일 2부 오후 1:45분 주일학교: 오후 1:45분 청년예배: 오후 8:00분 새벽기도: 매일 오전 6시 목요일 오후 8시 토요일 오후 7시 30분 www.pcov.org Tel: (347)513-1351, cheongsoonwon@yahoo.com 45-11 149 St., Flushing, NY 11355	주비리교회 담임목사: 이규본 주일예배: 오후 12:30 주일학교: 오전 10:00 금요일기도회: 오후 5:00 영양예배: 오후 1:00 Tel: (718)787-8999, bonrhee@hotmail.com 70 Plandome Rd., Manhasset, NY 11030	퀸즈장로교회 담임목사: 김성국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0:30 주일3부예배: 오후 12:15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6:00 Tel: (718)886-4040, Fax: (718)358-7789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www.kapcc.org	퀸즈한인교회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1:30 수요일예배: 오후 8:00 NCF영어: 오후 1:30 Tel: (718)672-1150 Fax: (718)672-1151 89-00 23rd Ave., East Elmhurst, NY 11369 www.kcny.org	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회회를 찾습니다 L.A.: Tel: (323)665-0009 Fax: (323)665-0046 N.Y.: Tel: (718)886-4400 Fax: (718)886-0074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		
<div style="text-align: center;"> <h3>세계로 뻗어가는 교회</h3> <h1>하와이 및 북미 지역</h1> </div>						밴쿠버빌라델비아교회 담임목사: 김성훈 주일1부예배: 오전 9: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목요일예배: 오후 7:30 금요일예배: 오후 7:30 금요일예배: 오후 7:30 Tel: (604)584-5780, Fax: (604)584-5717 9135 132nd St., Surrey, B.C. Canada, V3V 5P6	브라질 서울교회 담임목사: 하경남 주일1부예배: 오전 11:00 찬양예배: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40 Tel: 3277-1489, Fax: 3209-9343 Rua Joaquim Piza, 281 Cambuci S. Paulo Cep 01528-010	브라질 한인교회 담임목사: 한봉현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1:30 목요일예배: 오후 7: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45 Tel: 011-55-11-3270-9233, 3277-3141 R. Livreiro Alves 16 Liberdade SP CEP 01505-010
브라질 새소망교회 담임목사: 박재호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0:3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주일5부예배: 오후 5:00 주일6부예배: 오후 7:00 Tel: (5511)6693-9754, 6692-1165 RUA SANTA RITA, 215-PARAÍ-340 PAULO-SP-BRASIL	아르헨티나 제일교회 담임목사: 최광언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1:00 주일4부예배: 오후 3:30 주일학교: 주일 12:00 Tel: (54)114-631-1788 AV. CARABOBO 1253, CAP.FED., B.S., A.S., ARGENTINA	칠레 한인연합교회 주일오전예배: 오전 11:00 주일저녁예배: 저녁 7:00 수요일기도회: 저녁 9:00 714호브기도회: 아침 7:40 유, 초, 중, 고등부예배: 오전 9:30(주일) Tel & Fax: (562)556-7828, (562)341-0389 Santiago Correo - 3 Casilla 325 Chile	토론토 가든교회 담임목사: 김성민 주일1부예배: 오전 9:30 주일2부예배: 오전 11:30 주일3부예배: 오후 2:00(영양)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5:30 금요일예배: 오후 7:30 Tel: (416)490-9060 http://www.torontogarden.org/ 260 Yorkland Blvd., North York, ON M2J 1R7	하와이 행복교회 담임목사: 이남수 주일1부예배: 오전 9:30 주일2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Tel: (808)585-1859 1130 N. Limitz Hwy C-100 Honolulu HI 96817	호놀룰루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조일규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30 주일3부예배: 오후 12:30(영양) 주일4부예배: 오후 7: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금요일기도회: 오후 8:00 Tel: (808)947-5252, Fax: (808)947-5151 www.hawaiichurch.org 2122 Metcalf St., Honolulu, HI 96822	멕시코 선교 본부 교회 선교사: 임한근 목사 멕시코 번식 신학교 교수 주일1부예배: 오전 10:00 주일2부예배: 오후 3:00 주일3부예배: 오후 6:00 (1, 2부 새벽나눔 설교) Tel: (52)333-3507-4111 E-mail: hanjkr@hanmail.net Goya 530 Manuel, Acuna, Guadaluajara MEX(멕시코)		



목회서신



이재근 목사 (주사랑선교교회 담임)

사탄의 10대 전략

‘사탄학’을 연구해보면 사탄이 적어도 10가지의 전략을 통해 우리 인간을 유혹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세상 만사를 살아가고 있는 마지막 성도로서,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知彼知己, 百戰百勝)한다”는 손자병법(孫子兵法)대로 사탄의 전략을 바로 알아 영적 싸움에서 승리자가 되어야 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원치 않는 인구 조사를 한 것도 그의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이처럼 교만은 가장 오래된 사탄의 전략으로 지금도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1. 교만(Arrogance, Pride) 가장 오래 되었으면서도 효과적인 사탄의 유혹 방법은 바로 교만이란 무기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도 하나님과 동등해지려는 교만 때문이었고, 하나님의 사탄이 다윗이 밧세바를 취한 음행도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다”는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또

2. 절망(Despair, Hopelessness) 교만이 사탄의 부추김이라면, 절망은 사탄의 방해전략입니다. 교만은 좀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많이 적용되고, 절망은 자신이 못났다고 생각하는 열등감이 있는 사람들에게 많이 적용됩니다. 절망은 자포자기나 자살에 이르는 병입니다. 절망은 낙심으로 시작해 자살로 이어집니다. 최근 들어 빈번하게 발생하는 자살사건들은 바로 절망의 표현이며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절망이 영적전쟁에서의 사탄의 전략임을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3. 비교의식(Comparison, Parallel) C. S. 루이스는 현대의 마귀는 비교의식을 통해 인간을 유혹한다고 했습니다. 이 비교의식은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기도 하며, 절망에 빠뜨리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과는 결코 비교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는 비교의식을 통한 사탄의 전략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4. 의심과 불신(Doubt, Unbelief) 의심은 때로는 진리탐구의 자극제가 되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믿음의 큰 장애물이 되기도 합니다. 불신은 거짓말의 믿음이 아님, 지옥으로 가는 안내자입니다. 불신은 개인적으로는 실패의 원인이 되며, 사회적으로는 협동을 깨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의심과

불안의 뒤에는 항상 사탄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의심과 불신을 통해 사탄이 인간을 천국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길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5. 거짓말(Lia-Liar) 거짓말의 본질은 사탄에서 비롯됩니다. 사탄은 거짓말의 아버지기 때문입니다(요8:44). 이같이 거짓말은 사탄으로부터 시작되어 세상에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인간관계를 깨뜨리는 것이 바로 거짓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입니다. 사실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신뢰인데, 거짓말은 이 신뢰를 근본적으로 흔들어 버립니다. 사탄의 거짓말 전략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입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6. 미움(Hate) 미움은 전혀 모르는 사람이나 멀리 있는 사람에게는 거의 없습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납니다. 미움의 뿌리는 시기과 질투에서 비롯됩니다. 미움은 사탄이 인간에게 뿌린 영적 전염병과 같아서, 일단 이것이 마음에 들어 가면 암처럼 골게 되고 마침내 터지게 만듭니다. 심자가의 사견 없이 미움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미움의 장벽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만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7. 불평과 원망(Complaint & Grumble) 불평과 원망의 속성은 점점 심해진다라는 점입니다. 즉 불평은 또 다른 불평을 낳고, 원망은 또 다른 원망을 낳게 됩니다. 마침내 불평과 원망은 습관이 되고 맙니다. 불평과 원망의 내용을 살펴보면, 문제가 커서 불평,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좁기 때문입니다. 불평과 원망은 비교에서 비롯됩니다. 불평과 원망의 병을 치유하려면 먼저 하나님의 주권을 전적으로 믿고 내가 원하는 것을 감사의 조건으로 삼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내게 가장 좋은 것을 믿어야 합니다.

8. 지연(Delay, Lateness) 사탄은 선한 일을 계획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선한 일을 계획하면 그것을 지연시킵니다. 이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오늘 할 일을 미루지 않아야 합니다. 사실 일을 지연시키는 것은 게으르고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이 지연작전이 사탄의 전략이라는 사실입니다. 사탄의 지연작전에 빠지지 않고 성공하려면, 망설이지 말고 즉시 행동으로 옮겨야 합니다. 해보지도 못하고 지연하다가 실패하는 사람은 가장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9. 불성실(Insincerity, Untruthfulness) 사탄은 자신의 일에 부지런한 사람들을 유혹하지 않고, 항상 게으른 사람, 불성실한 사람들을 골라서 유혹해 이용했습니다. 성실이 성공의 친구이듯, 불성실은 실패의 가장 친한 친구입니다. 벤자민 프랭클린은 “정직과 성실로 그대의 벗으로 삼으라. 백 권의 책보다 하나의 성실한 마음이 더 큰 힘으로 사람을 움직일 것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성공하는 사람은 특징은 항상 노력하고 뛰어나다 사람입니다. 성실만이 성공을 만들고 사탄의 유혹을 피할 수 있습니다.

10. 외식(Hypocrisy)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것은 외식입니다. 외식은 천국 가는 길을 막는 마지막 전략이기 때문입니다. 외식은 누룩과 같아서 그냥 있지 않고 점점 부풀어 번져가기 때문에 신앙인에게 가장 무서운 독소입니다. 그러므로 종교개혁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외식주의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과 성경 읽는 것, 교회 가는 것과 봉사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을 막을 수 없을 때 사용하는 마지막 무기가 바로 외식에 빠지게 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외식전략에 넘어가지 말아야 합니다.

청소년 위한 ‘하이어콜링’ 집회 연다

12월19-22일, 27-29일...아틀란타, 뉴욕, 하와이에서도

한인청소년들을 위한 영적각성집회 유스 하이어콜링 컨퍼런스(2018 Youth Higher Calling Conference)가 오는 12월 27일(목)부터 29일(토)까지 샌디에고 타운 앤 컨트리 호텔에서 열린다. 이를 위한 기자회견이 11일 오전 11시 제이제이그랜드 호텔에서 열렸다.



유스하이어콜링 컨퍼런스를 알리는 기자회견에서 관계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있다

기자회견은 이상우 목사(대회 실행위원장)의 사회로 열려 한기형 목사(공동 대회장)가 대표로 기도하고, 송정명 목사(미주성서화운동본부 대표회장)가 인사말을 전했다.

이가 있었다. 세대를 초월해 동일한 은혜를 누리는 기쁨은 있어왔지만 각 연령별로 갖고 있는 관심사와 세대 간 채워지지 않은 갈증들이 집회를 마치고 나면 항상 아쉬움으로 남았다. 따라서 올해는 청소년들과 청년들을 분리해서 집회를 열고 집회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자리를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송 목사는 “한인 2세들의 영적 건강과 복음화를 위해 열리는 이번 컨퍼런스가 많은 한인청소년들이 영적으로 많이 태어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참여를 독려해주시고 후원 해주시길 기대 한다”고 말했다.

하이어콜링 컨퍼런스 일정은 오는 12월 19일부터 22일까지 남가주와 북가주의 대학청년들을 위해 샌디에고 타운 앤 컨트리 호텔에서 열리며, 27일부터 29일까지 남가주와 북가주는 물론 라스베가스과 아리조나 등 서부지역 청소년들을 위해 아틀란타에서도 열린다.

박종술 목사(순 무브먼트 대표)는 “이번 컨퍼런스는 ‘Unashamed(롬 1:16)’이라는 주제로 열린다”며 “집회를 통해 복음에 대해 부끄러워하지 않는 세대가 세워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리고 2019년 1월 2일부터 5일까지 뉴욕에서 ‘뉴욕 하이어콜링 컨퍼런스’가 열리며, 1월 2일부터 4일까지 하와이에서 열리게 된다.

이번 컨퍼런스의 특징은 참가대상의 세분화로 볼 수 있다. 지난해까지 컨퍼런스는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함께 참여했던 집회였지만 올해는 대학청년들이 크리스마스 전인 19일부터 22일까지 컨퍼런스를 갖고 크리스마스 이후인 27일부터 29일까지 청소년들을 위한 컨퍼런스로 열리게 된다.

집회 등록비(숙박비 포함)는 200달러이며, 각 교회마다 사전 등록이 가능하다. 주최 측은 미자립교회들 학생들을 위해 등록비 조정 감안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박종술 목사는 “2010년부터 작년 까지 중학생부터 대학생은 물론 청년들까지 함께하는 집회를 가져왔다”며 “많은 10년 이상의 연령차

▲문의: (213)210-8248, 389-5222. www.highercallingyouth.org (박준호 기자)



PCA한인서남노회에서 선출된 신임임원들(사진 왼쪽이 정공필 노회장)

PCA서남노회 신임 노회장에 정공필 목사 한길교회 박목사 노회가입 및 은성교회 목회회한 정권위에 일임

PCA 한인서남노회(노회장 조형수 목사)는 제 71차 노회를 한길교회에서 갖고 신임 노회장에 정공필 목사(라스베가스 장로교회), 부노회장에 한성운 목사(나성남포교회)를 선출했다.

정공필 목사는 “노회장으로서 최선을 다해 노회와 노회원들을 섬기겠다. 많은 지도편달 부탁 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노회는 지난 3월18일 공동의회를 통해 가결된 한길교회 노진준 목사 담임목사 사임에 대한 전

권위원회 보고를 받기로 결의했다. 그리고 한길교회 새 담임목사로 청빙된 박찬섭 목사에 대해서는 박목사가 KPCA에서 PCA로 교단변경 및 서남노회 가입을 위한 필담고사에서 헌법과 성경과목에 대해 통과가 되지 않았다.

하지만 필담고사 준비과정이 너무 짧았으며 고시부 사정상 면접 및 구두고시를 제대로 시행하지 못한 관계로 이날 플로어테스트를 통해 박 목사의 서남노회 가입 및 본 교회 담임 목사 사임에 대한 전

박 목사는 KPCA에서 PCA로 전임된 목사지만 목사안수를 PCA에서 받았기에 필담고사 등 행정절차가 지나친다는 지적도 나왔다. 또한 이우여하를 막론하고 필담고사 절차에 대한 부실이 플로어 테스트 대체된 점은 향후 판례로 남아 필담고사 대신 플로어테스트로 대체해달라는 청원이 발생할 여지가 생겼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편 은성교회의 경우 황명길 담임목사의 사임이후 담임목사로 청빙된 권도근 목사는 본교회가 청빙절차 및 담임목사 취임에 대해 노회보고 없이 이루어진 점이 불법으로 결정돼 은성교회 황명길 목사의 목회연고 해소와 권도근 목사 목회연고를 위한 전권위원회를 결성해 모든 권한을 전권위원회에 맡기기로 결정했다.

다음은 제71차 PCA 한인서남노회 새 임원 명단이다.

△노회장: 정공필 목사 △부노회장: 한성운 목사 △서기: 정한식 목사(한길교회) △부서기: 정대니얼 목사(리디머장로교회) △회의록 서기: 권승룡 목사(예수가족교회) △회의록 부서기: 주진혁 목사(한길교회) △회계: 신정훈 장로(벨리벨장로교회) △부회계: 이양훈 장로(은성교회). (박준호 기자)

‘국내및해외 한국어교육자 체험수기 공모전’ 디지털서울문화예술대학교 주최, 제 9회

Advertisement for the 9th Domestic and Overseas Korean Language Education Experience Story Competition. It includes details about the competition's purpose, categories, and prizes. The competition is organized by Digital Seoul Culture & Arts University (SCAU) and is open to all Korean language education workers. Prizes include cash awards and certificates. The deadline for submissions is October 31st.

응모기간은 오는 10월 31일(수)까지이며 응모주제는 외국인 및 재외동포, 다문화 구성원을 대상으로 한국어 및 해외에서의 한국어 및 한국문화 교육과 관련된 다양한 교육방법 및 생활한 지도 체험 등의 내용이다.

응모대상은 외국인 및 재외동포, 다문화 가정 구성원에게 한국어 및 한국문화를 지도해 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능하며 원고분량은 200자 원고지 25매 내외, A4 용지 4매 내외(글자크기 11포인트, 행간 160%)이다.

응모방법은 본 대학 한국어문화학과(class.scau.ac.kr/language) 및 국제언어교육원(language.scau.ac.kr) 홈페이지에 접속, 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아 작성 후 원고와 함께 대학응모 전용 이메일(essay@scau.ac.kr)로 접수하면 된다.

시상내역은 △최우수상(본교총장상) 1명(상장 및 상금 백만원) △재외동포재단이사장상 1명(상장 및 상금 50만원) △세종학당재단이사장상 1명(상장 및 상금 50만원) △세외동포교육진흥재단이사장상 1명(상장 및 상금 50만원) △우수상 2명(상장 및 상금 50만원) △우수상 5명(상장 및 상금 20만원) △입선 10명(상장 및 상금 10만원)이다.

당선작 발표 및 시상식은 오는 11월 중순예정이며 본 대학 한국어문화학과 및 국제언어교육원 홈페이지에 공지된다.

▲문의: 82-2-2287-0381, 0396, 0331 (기사제공: 디지털 서울문화예술대학교 한국어문화학과 및 국제언어교육원)



살롬장애인선교회는 제40차 사랑의 휠체어 보내기 발송식에서 참석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있다

우간다와 우즈베크에 휠체어 발송

살롬장애인선교회 제40차...19년간 총63,884점

살롬장애인선교회(대표 박모세 목사)가 아프리카 우간다와 중앙아시아 우즈베키스탄에 휠체어를 발송한다. 살롬장애인선교회는 제40차 사랑의 휠체어 보내기 발송식을 12월 19일(수)에 가졌다. 이번 발송식에는 수동 휠체어 432pcs, 전동 휠체어 3pcs, 워커 226pcs와 기타 의료보조기구, 여성옷 등을 포함해 총3,022점이 모였다. 이 모어진 물품들은 오는 9월 20일 롬비차항에서 선적돼 중앙아시아

우즈베키스탄과 아프리카 우간다로 각각 1컨테이너씩 보내지게 된다.

이날 박모세 목사는 “일반인들도 하기 힘든 일을 장애인들이 40회에 걸쳐 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며, “이번에 보내지는 물품들은 3천명 이상을 도울 수 있는 물량이며 의료기구만 1400점 정도”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 7월에 열린 휠체어 사랑이야기 기금으로 1500명 장애인

들게 되었으며 지역사회 여러 교회와 성도님들 그리고 단체들에 감사 드린다”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나라의 장애인들에게 조금이나마 소망과 격려가 돼, 하나님의 또 다른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길 소망하며 또 다른 생명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사역보고를 통해 말했다.

박모세 목사의 부인인 박성철 사모는 “너무 감격스럽다. 19년 동안 40번 보낸 것은 하나님 은혜이고 남가주는 물론 타 지역에겐진 보내지마는 대해 사랑의 손길과 기도로 도움 주셔서 가능했다. 앞으로 더 많은 협조와 사랑이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지금까지 살롬장애인선교회의 사랑의 휠체어 보내기 프로젝트를 통해 제3국과 빈민국에 보내진 휠체어(수동·전동)의 수량은 12,138pcs, 기타 의료보조기구 51,746pcs 등 총 63,884점에 이른다.

(박준호 기자)

동부교계 게시판



뉴저지 한인침례교연합부흥회

뉴저지 한인침례교연합부흥회가 "Cheer Up! Together"이라는 주제로 9월 21일부터 23일까지 열린다. 강사는 진재혁 목사(한국 지구촌교회 담임)로 일정은 다음과 같다. △21일 저녁 8시 지구촌교회(담임 김주현 목사) △22일 저녁 8시 등대교회(담임 김화용 목사) △23일(주) 오후 2시 주사랑교회(담임 송재현 목사).

▲문의: (201)265-1487

뉴욕교협 제 4차 임·실행위원회

뉴욕교협(회장 이만호 목사) 제 44회기 마지막 제 4차 임·실행위원회가 9월 28일(금) 오전 10시 30분 뉴욕그레이트네교회(담임 양민석 목사)에서 열린다.

▲문의: (718)279-1414

2018 청소년 할렐루야 복음화 대회

2018 청소년 할렐루야 복음화 대회가 10월 19일(토)과 20일(주) 오후 7시 프라미스교회(담임 허연행 목사)에서 열린다. 이 대회는 뉴욕교협이 주최하는 할렐루야 복음화대회의 청소년 집회로 강사는 리사 송 목사(뉴저지 베다니연합감리교회)이며 "Fearless"(1 John 4)라는 주제로 진행된다.

▲문의: (718)279-1414

이보교 복지교회 방문 설명회

이만자보호교회(이보교) 복지교회 방문 설명회가 지난 16일 친구교회를 시작으로 진행되고 있다. △9월 30일: 뉴욕우리교회 △10월 14일: 뉴욕 어린양교회 △21일 한울림교회 △28일 후리성제일교회.

▲문의: (646)450-8603

미주한인여목협 창립 10주년 기념 음악예배

미주한인여목회자협의회(회장 김에스터 목사) 창립 10주년 기념 음악예배가 10월 14일(주) 오후 5시 뉴욕 에벤에셀선교교회(담임 최창섭 목사)에서 열린다.

▲문의: (201)655-0199

퀸즈장로교회 교사 세미나

퀸즈장로교회(담임 김성국 목사)가 주최하는 교사 세미나가 9월 28일(금)과 29일(토) 오후 8시에 본 교회에서 열린다. 강사는 정성국 목사(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교수).

▲문의: (718)886-4040

상처치유 찬양토크 콘서트

찬양 및 공감토크 콘서트가 "상처를 사랑하다" 주제로 9월 26일(수) 저녁 8시 뉴욕베데스다교회(담임 최현준 목사)에서 열린다. 강사는 강훈 목사(멘토브리지 대표, 국제 코스타 강사, CGN TV 나침반 강사).

▲문의: (718)478-8900

제 2회 마하나임 코리안 푸드 페스티벌

뉴욕마하나임선교교회(담임 박춘수 목사)가 주관하는 제 2회 마하나임 코리안 푸드 페스티벌이 10월 14일(주) 오후 3시 30분부터 6시까지 열린다. 장소는 220 Berry Hill Road, Syosset NY 11791.

▲문의: (917)930-5502

장순자 케냐 선교사 별세

뉴욕센트럴교회(담임 김재열 목사) 제 1호 파송 선교사인 장순자 선교사가 케냐 가리사 지역 문요야 부족 마을에서 76세로 별세했다. 장 선교사는 1995년 남편 최동훈 선교사와 함께 케냐 선교사로 파송받아 23년간 사역을 감당해왔다. 장례는 지난 18일 케냐한인연합교회에서 윤석재 목사 집례로 치러졌다. 유족으로는 남편 최동훈 선교사와 사이에 1남1녀가 있다.

▲문의: (646)391-6483 최은주



지역사회 시장 등 패밀리터치 방문

지난 9월 17일 리틀페리 시장(Mauro D. Raguseo)과 보로장(Paula J. Cozzarelli)이 패밀리터치 새 오피스를 방문해 타운의 가족이 된 것을 환영하며 감사패를 전달했다. 또 이 자리에서 앞으로 지역사회와 패밀리터치가 힘을 모아 개인과 가정을 건강하게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하는 뜻 깊은 시간을 가졌다.

패밀리터치(대표 정정숙 박사)는 지난 8월 말 레오니아에서 리틀페리로 이전하고 앞으로 가정, 타운에서 카운티까지 상담과 교육을 통해 건강한 사회를 세우나갈 계획을 세우고 있다. 프로그램 문의는 www.familytouchusa.org (201)242-4422로 하면 된다. <기사제공: 패밀리터치>



글로벌한인여성목회자연연합회 창립 2주년 감사예배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KAPC 가든노회, 뉴욕동노회 정기노회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KAPC) 가든노회(노회장 허상회 목사)와 뉴욕동노회(노회장 목사) 제 83회 정기노회가 지난 11일 뉴욕양무리장로교회(담임 이준성 목사)에서, 18일에 주사랑장로교회(담임 목사)에서 각각 열렸다. 노회는 오전 10시30분부터 시작했다.

헌신의 깃발 든 "행복한 노회" 로

가든노회

가든노회는 회무처리를 통해 직전 노회장 박형기 목사에게 감사패를 증정했으며, 뉴욕제일장로교회(조성훈 목사)로부터 박창준 목사 후보생 고시허락 청원을 처리했다.

회의에 앞서 드린 개회예배는 노회장 허상회 목사 인도로, 기도부서기 이준성 목사, 성경봉독 회록서기 박해창 목사, 설교 노회장, 성찬예식 부노회장 김재호 목사, 축도 이원호 목사, 광고 서기 이종식 목사의 순서로 진행됐다.

허상회 목사는 "행복한 노회"(창 2:18-25)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행복한 노회가 되어 한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사랑하고 존경하는 노회가 되어 한다"고 강조하고 행복한 노회가 되기 위한 구체적인 방향성을 언급했다.

허상회 목사는 "깃발 든 한사람이 매우 중요하듯 내가 먼저 돕는

자가 되기 바란다. 하나님께서는 혼자 있는 것이 보기 좋지 못해 돕는 배필을 주셨듯, 좋은 동역자를 붙여주셔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주의 은혜가 우리 노회 안에 가득해 혼자 있는 불쌍한 사람이 없기를 기도한다. 행복한 노회는 돕는 자가 많아야 한다. 내가 돕는 자가 돼서 상대방을 수용하고 부족을 채워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영적 질서가 세워지는 노회, 거룩함이 있는 노회,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최우선 순위가 될 때 행복한 노회가 된다. 찬송이 사무치고 기도의 손이 올라가고 말씀으로 회복돼 헌신하는 깃발 든 동역자들로 인해 행복한 노회가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가든노회는 뉴저지시찰 7교회, 뉴욕시찰에 고편말라 서머나교회(염현일 목사)를 포함 5개 교회로 구성돼 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지키라"

뉴욕동노회

지난 18일 오전 10시부터 주사랑장로교회에서 열린 뉴욕동노회에서는 △뉴욕성실장로교회(이길호 목사) 장로 2명 증택 청원 △뉴욕참교회(문득연 목사) 장로 3명 증택 청원 △주사랑장로교회(정준성 목사) 장로 3명 증택 청원 △주사랑장로교회 김성일 씨 목사회원 가입 및 부목사 허락청원 △뉴저지 임마누엘교회(장기수 목사) 교회이전 주소변경 허락청원 △조영길 목사 추천 조셉전(전주현) 씨 목사 후보생 고시 청원 △베이직교회(이상만 목사) 추천 김파 장로고시 청원 등의 회무를 처리했다.

각부 보고에서 청소년지도부는 지난여름 총 61명이 참석한 글로벌수련회 보고를 했으며 전영구 도미니카공화국 선교사의 선교보고, 회계보고(이월금 9,397.24달러, 수입 4,870달러, 지출 6,380.07 달러, 잔액 7,887.17달러), 교육부의 목회자수련회(8월 27-29일, 뉴포트 로드 아일랜드) 보고가 있었다.

뉴욕 시찰은 성실장로교회(담임 이길호 목사)의 건축 준비를 알렸으며, 뉴저지시찰은 10월 22일 가을소풍을 알렸다.

회의에 앞서 드린 예배는 노회장 이상만 목사 인도로 기도 문득연 목사, 설교 이상만 목사, 성찬예식 장기수 목사, 축도 황상하 목사, 광고 정준성 목사의 순서로 진행됐다.

이상만 목사는 "사람의 본분"(전 12:9-14)이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솔로몬 시대는 물질적으로 이스라엘 최고 전성기였으며 모든 것을 다 가졌던 솔로몬이었지만 그의 말년에 이 모든 것이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며 "그가 강조한 2가지는 젊었을 때 첫째, 하나님을 경외하고 둘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는 것이었다. 우리도 우리의 남은 시간을 이 2가지를 지켜 의미 있는 삶을 살기 바란다"고 전했다.

뉴욕동노회는 뉴욕과 뉴저지 2개 시찰 하에 13개 교회, 목사회원 41명, 선교사 12명, 장로총대 7명이 소속돼 있다.

(유원정 기자)

"어머니 마음으로 세계를 품는다"

글로벌한인여목연 창립 2주년 감사예배

글로벌한인여성목회자연연합회(회장 전희수 목사)가 창립 2주년을 맞아 지난 12일 감사예배를 드렸다.

오전 10시30분 뉴욕순복음연합교회에서 드린 예배는 뉴욕회장 권금주 목사 인도로 임마누엘찬양단(인도 마요셀 전도사)의 찬양에 이어 시작했다.

심화자 목사의 기도 후 박도보라 목사가 성경봉독했으며 CBSN방송 합창단의 특송과 김삼수 목사(대구 푸른하늘교회 담임)가 말씀을 전했다.

김삼수 목사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라"(사35:1-2)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고, 경험하고 그 길을 걸으라"고 말하고 "모태신앙으로 교회생활에 익숙했던 제가 3가지 광야(경제적 빈곤, 건강, 교회개혁)를 거치면서 모든 것 내려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며 "우리 모두 기도하는 사람이 돼 나를 통해 하나님나라가 세워지게 하자"고 전했다.

이어 안경순 김사라 목사의 헌금 특송, 장만자 목사의 헌금기도, 전희수 목사의 인사말이 있었다.

전희수 목사는 "지난 2년간 본회가 성장할 수 있도록 협력해준 뉴욕교계 목회자와 언론들에게 감사한다"며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헌신자들의 눈물의 기도와 헌신이 있었기에 오늘이 있다고 말하고 "여성이 가진 은사로 영혼구원을 목표로 달려왔다. 어머니의 마음으로 세계를 품는 어머니기도회

가 되도록, 그리하여 가정과 교회와 열방을 향해 구원역사를 이루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각 지역 회장소개가 있었다. 이날 캐나다와 텍사스, 뉴저지 코네티컷 지역회장이 참석했으며 권금주 뉴욕회장은 지난 1년간 연합회의 활동을 영상으로 보며 소개했다.

축사를 맡은 뉴욕교협회장 이만호 목사는 "목회 신앙의 기쁨이 기도와 구제인데, 본회는 이 2가지를 잘 살려왔다며 뉴욕교협과 목사회를 위해서도 기도함으로 연합을 이루자"고 말했다.

미동부국제기아대책기구 회장 유상열 목사는 "본회가 성별보호의식 유혹에서 자유롭게 사역해왔음을 축하한다"며 "특히 여성의 특성을 잘 살려서 어머니기도회를 지속적으로 이끌어오고 있음을 축하한다"고 축하했다.

이어 서은주 캐나다회장과 김희숙 목사 대독으로 한국어머니기도회 정사라 회장, 오하이오 어머니기도회 김옥경 회장 등이 축하했다. 또 민미량 목사가 축사를 낭독했다.

예배는 윤세웅 목사 축도로 마쳤다.

오찬기도는 조상숙 목사가 했으며 오찬 후에는 제 22차 어머니기도회가 진행됐다. 기도회 말씀은 신동숙 사모(블루스카이영성원장)가 전했다.

▲연락처: (646)247-8258

(유원정 기자)



KAPC 가든노회 정기노회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KAPC 뉴욕동노회 정기노회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뉴욕노회 목사안수식을 마치고 임직자와 노회 목회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뉴욕노회 목사안수식...전성호, 첸위지 목사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KAPC) 뉴욕노회(노회장 문종은 목사)는 11일 저녁 노회 폐회 전인 오후 7시, 목사안수식을 가졌다. 이번에 목사안수를 받은 임직자는 퀸즈장로교회 소속 전성호, 첸위지 목사다.

안수식은 임병순 목사 인도로 기도 이종원 목사, 성경봉독 정기태 목사, 특별찬양 글로리아싱어즈, 말씀 문종은 목사, 서약, 안수기도, 찬양, 특별찬양 CM파이어, 권민 이규본 목사, 축사 이영상 목사, 답사 전성호 목사, 축도 손찬권 목사 순서로 진행됐다.

문종은 목사는 "주께 받은 사명"(행20:22-24)라는 제목의 말씀에서 "뉴욕노회에서 하나님의 종을 세우는 것을 감사한다"며 "목회의 길이 순탄치 않으나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확실히 깨닫고 낙심하지 말며 죽을 때까지 이 은혜의 복을 전하는 일에 사명을 다해 달려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규본 목사는 "첫째, 성경을 많이 읽어야 둘째, 꿈(비전)을 가져야 셋째, 기도의 사람이 되라"고 권면했다.

이영상 목사는 고린도전서 4장 1-2절을 언급하며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고귀한 일을 맡은 목사가 된 것을 축하한다"며 "우리의 할 일은 충성뿐"이라고 축하했다.

전성호 목사는 "퀸즈장로교회에서 36년간 신앙생활하면서 장영준 원로목사님의 가르침과 사역의 길을 걸을 때 품어주시는 김성국 목사님께 감사한다"고 말하고 "생명 길고 복음을 전한 사도 바울처럼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주님이 가는 곳에 가고, 하라는 일을 하고 멈추려면 멈추는 예수님만 쫓아가는 목사가 되겠다"며 "부족함을 위해 기도해달라"고 답사했다.

(유원정 기자)

뉴욕청소년센터 창립 30주년 기념행사

10월 7일(주) 오후 5시 친구교회

뉴욕교협 산하 청소년센터(AYC)가 창립 30주년을 맞아 기념행사를 갖는다.

청소년센터(사무총장 김준현 목사, 이사장 강영규 장로)는 지난 18일 오후 3시 교협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감사음악회를 소개했다.

기자회견에 사무총장 김준현 목사도 이사장 강영규 장로, 황영송 목사(수정성결교회 담임, 직전 AYC 회장), 주영광 목사(뉴욕한민교회 담임)이 함께 했다(사진).

사무총장 김준현 목사는 "지난 30년간 청소년센터는 이민 초기의 가정이나 교회에 감당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지원을 제공했다"며 "특히 청소년들이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학교 현장에서 사역자들이 함께 예배드리고 공동체를 이룬 학원사역을 비롯해 △신앙증진을 위한 청소년 할렐루야대회, △건강하게 여너지를 발산하도록 도와 온

농구대회, △학업능력 향상을 돕는 SAT클래스, 아울러 △불가피한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게 된 청소년과 가정을 돕는 법률지원, 그리고 상담 등 뉴욕 지역의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부분이라면 어떤 것이라도 도울 수 있는 역량을 갖게 됐다"고 말하고 "앞으로 청소년센터는 지난 30년간 남긴 유산을 되새기며 더욱 풍성한 열매를 맺는 30년이 되도록 열심히 기도하며 섬기겠다"고 말했다.

감사음악회는 10월 7일(주) 오후 5시 친구교회(담임 빈상석 목사)에서 열린다. 저녁 만찬이 준비된다. 이날 소나타 다 끼에스타 챔버와 콰이어가 공연하며, 이정석(지휘 및 오보에), 이선영(음악감독), 김하얀(소프라노), 오화평(바리톤), 민경기(트럼펫), 한나연(비올라)가 출연한다.

(유원정 기자)



PIM선교교회 가입 등 회무처리

KAPC 로스앤젤레스노회 아리조나서 열려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KAPC) 로스앤젤레스노회 31회 정기노회가 11일 오전 10시 갈보리한인교회(담임 조정기 목사)에서 열렸다. 회의에 앞서 드러진 개회예배는 김성일 목사의 사회로 시작 돼 기도 이훈우 목사, 설교 차병학 목사

가 맡았다. 차병학 목사는 '예수님이 명하신 길'(마18:16-20)의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며 김현인 목사와 김성일 목사의 집례로 성찬예식을 가진 뒤 박대원 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이어진 회무처리에서 이훈우 목사의 Peace International Mission 선교교회(PIM선교교회)의 가입 청원을 허락했으며 동문교회 김광삼 목사로부터의 교회 탈퇴 청원은 분

명한 이유를 확인하기 위해 반송키로 했다. 한편 회계 박영수 장로의 사임 청원은 그대로 받기로 했다. 로스앤젤레스 노회는 금번 노회 장소가 아리조나 갈보리한인교회여서 LA지역에서는 먼 곳이었으나 회원들은 노회발전을 위해 함께 모여 토의하며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다.

(정리: 이성자 기자)



로스앤젤레스노회 회장 박대원목사(우)와 서기 김성일목사



동양선교교회에서 열린 교회음향세미나에서 박경배 박사가 강의하고 있다

“좋은 음향으로 예배를 풍성하게”

OMC 교회음향세미나, 강사 박경배 박사

동양선교교회(담임 김지훈 목사)는 교회음향세미나를 16일 오후 5시 본 교회 비전센터에서 열었다.

박경배 박사(동아방송예술대학교 방송예술융합학부 겸임교수)가 강사로 나선 가운데 열린 세미나는 인간이 들을 수 있는 주파수대와 예배당 디자인시 스피커의 위치 및 좋은 소리를 내기위해 생각해야 할 것, 그리고 찬양팀의 악기위 위치, 마이크 사용법 등에 대해 나누었다.

박경배 박사는 “예배당을 디자인할 때 장방형 구조의 예배당이 소리가 더 풍성하다”고 말하고 “스피커는 좋은 제품을 사용하는 것보다 위치선택이 더 풍성한 소리를 낼 수 있게 해준다”고 설명했다. 박 박사는 “예배는 음향 때문에 살아나기도 하고 방해가 되기도 한다”고 언급하고 “영상담당자가 음향에 대해 잘 알고 있으면 예배를 더 풍성하게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준호 기자)



은혜선교관 봉헌예배에서 예배를 마친후 관계자들이 테이프 커팅을 하고있다

은혜한인교회, 은혜선교관 봉헌예배

10월 1일 은퇴선교사 첫 입주 시작

오는 10월 1일 은퇴선교사 첫 입주를 앞둔 은혜선교관 봉헌예배가 13일 오전 10시30분 은혜선교관이 위치한 은혜한인교회 파킹랏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이날 예배는 은혜한인교회 설립 목사인 김광신 목사를 비롯, 신승훈 목사(국제총회 총회장), 이서 목사(OC교회회장), 덕 채피 풀러턴 시장 등이 참여한 가운데 열렸다.

담임 한기홍 목사는 “선교사님들이 은퇴 후에 불안해하는 것은 거처할 곳이 마땅치 않아서이다. 요즘은 노인아파트 구하기도 어렵다. 그래서 장기로 거처해서 살 수

있도록 마련하고 선교사님 가운데서도 오셔서 지낼 수 있도록 하고 이제 시작이다. 앞으로 계속 확장해 나갈 것이며 이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심을 느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신승훈 목사는 “정말 감사하다. 선교사님들은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지만 미래대책이 없다. 아파트 지어놓으니 힘 있게 일할 수 있고 교회가 너무 귀한 일했다. 아름답게 해서 얼마나 좋은지 모른다”고 감사를 표했다.

(박준호 기자)

치매상담 및 가족지원 서비스 실시

소망소사이어티, Archstone재단 그랜트 받아

소망소사이어티는 최근 알츠하이머 오렌지카운티와 상호 향후 업무를 돕고 교육하기 위해 MOU를 체결했다. MOU사업의 일환으로 각 지역에 따라 한 달에 한 번 한인들을 위한 치매상담, 가족들을 위한 지원 서비스를 실시하게 됐다.

이 서비스는 10월부터 시작되며 새로 시작하는 지역은 Fullerton과 Laguna Woods 지역이다. Fullerton의 경우는 풀러튼 커뮤니티 센터(340 W Commonwealth Ave)에서 매월 첫째 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11시 30분까지, Laguna Woods의 경우는 South County Adult Day Services(24260 El Toro Road)에서 매월 넷째 주 목요일 오후 2시부터 3시30분까지 치매환자 가족

지원 모임을 가지게 된다. 이 모임의 준비는 없으며 알츠하이머 또는 치매와 관련된 치매 환자 가족 및 친구, 그리고 간병인들에게 열려있다.

또한 소망소사이어티는 얼마전 Archstone 재단으로부터 그랜트를 받아 치매 간병인 교육 부분의 사역을 확대하며 그 첫 번째 시작으로 치매 돌봄 교육시리즈를 시작한다. 치매 돌봄 교육시리즈는 총 5회로 첫 번째 강의를 ‘치매에 관한 이해와 예방’(강사: 에린 김)이다. 시간은 오전 10시30분부터 오후 12시까지이고 소망 소사이어티 소망홀에서 열린다.

▲등록 및 문의: (562)977-4580 (기사제공: 소망소사이어티)

강사 김동희, 김문주 선생

LA온누리교회 암예방 세미나

LA온누리교회(담임 이정엽 목사)가 주최한 암예방 세미나가 15일 오후 4시에 열렸다.

이날 강사 김동희 선생(시더스 사이넬 연구소 코디네이터)이 △암이란 무엇인가 △암 발병 위험을 높이는 요소 △암을 예방할 수 있는 7가지 방법에 대해, 김문주 선생(고려보건진료소)이 △암 검사의 중요성과 방법 △일반적인 암의 증상 △무료 유방암, 자궁암 전립선암 검사에 대해 강의했다. (박준호 기자)



LA온누리교회에서 열린 암예방세미나에서 김동희 선생이 강의하고 있다



UGN복음방송 주최 블록체인 및 ICO 밋업 행사에서 여운영 목사가 강의하고 있다

UGN복음방송 주최 블록체인 및 ICO 밋업 행사

UGN복음방송(대표 여운영 목사) 주최 블록체인 및 ICO 밋업 행사가 11일 오후 6시30분 샬롬센터에서 가졌다.

이번 행사의 강사로 나선 여운영

목사는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의 관심이 높아졌다”며 “암호화폐는 2세대를 지나 3세대에 진입하고 있다. 1세대는 비트코인과 라이트코인이 있으며 채굴기에 의해

서부교계 게시판

한가위 추석알리기, '아리랑 투게더'

미국교단인 크리스천처치(제자회)는 오는 23일(주) 오후 4시 패서디나 크리스천교회(789 N. Altadena Dr)에서 한가위 축제 '아리랑 투게더'를 개최한다. 이 행사는 미국교단에도 한국 최대 명절인 추석을 알리려 다양한 민족의 문화 중 한국의 명절 문화를 전파하는 계기로 삼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문의: (213)820-8855

감신동문회 제 1회 장학금 모금 골프대회

감신대 미서부지역 동문회(회장 조명환 목사) 주최 제 1회 장학금 모금 골프대회가 24일(월) 오전 10시 샌드 캐년 컨트리클럽(27734 Sand Canyon Rd)에서 개최된다. 회비는 1인 100달러(카드와 식사포함).

▲문의: (805)389-3161 이상영 목사

남가주연세과이어 정기연주회

연세대학교 남가주 총동문회 산하 남가주연세과이어(지휘 이정욱, 단장 송재홍)가 오는 29일(토) 오후 7시 월셔연합감리교회(4350 Wilshire Blvd.)에서 정기 연주회를 개최한다.

▲문의: (323)333-6634

동부사랑의교회 '청년의 삶' 세미나

동부사랑의교회(담임 박승규 목사)는 지난 8월 26일부터 매달 남가주 최고의 전문가들을 초청한 가운데 청년들을 위한 '청년의 삶'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다. 두 번째 강의는 9월 30일, CMF선교회 대표이며 크리스천 결혼교실을 진행하는 김철민 장로가 강사로 서며 10월 28일 임상심리학 박사인 김경준 교수가, 11월 18일에는 코스타 강사인 박수용 장로가 각각 강사로 선다.

▲문의: (714)330-0674

나성금란연합감리교회 제 4대 담임 파송감사예배

나성금란연합감리교회 제 4대 목사로 파송된 이석부 담임목사 파송감사예배가 30일(주) 오후 4시 본 교회에서 열린다.

▲문의: (310)973-5106

찬양선교음악회

미주찬양선교회(대표 이재근)는 오는 10월 7일(주) 오후 6시30분 홀러턴장로교회에서 제 4회 찬양선교음악회를 개최한다. 이번 음악회는 최정원 소프라노를 비롯해 LA 남성선교합창단, LA 목사중창단, 레위 남성성가단, 소노리스 싱어즈, 오렌지 미션과이어 등이 출연한다. 본 음악회는 찬송가 보급과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찬양사역자 및 찬양팀을 후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2년마다 열리고 있다.

▲문의: (562)714-0691



제13회 LACS 정기연주회가 월셔연합감리교회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제 13회 LACS 정기연주회 성황

LA크리스천 싱어즈(LACS 단장 문혜원) 제13회 정기연주회가 15일 오후 7시 월셔연합감리교회(담임 신영각 목사)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찬미의 가락'이라는 주제로 열린 연주회는 정장수 목사(울림픽장로교회 담임)의 기도로 시작, 바이올리스트 조니 남, 첼리스트 에릭 영희, 피아니스트 김경미가 트리오로 나서 '예수로 나의 구주삼고'를 연주했으며 소프라노 김영안, 문혜원, 김미진, 크리스틴 정, 박은미, 김은혜, 양유진, 바리톤 김철이, 장상근, 테너 최원현, 오위영, 베이스 류정상과 LACS가 무대에 올라 아름다운 찬양곡을 선사하며 가을하늘의 밤을 은혜롭게 수놓았다.

이날 연주회는 LACS가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앵콜곡으로 부르며 막을 내렸다.

(박준호 기자)

푸/른/초/장

(4면에서 계속)

그 사회가 어떻게 부패되고 불법화 되는 것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신뢰도와 인지도가 얼마나 무섭게 떨어지는지도 모른 채 말합니다. 나라와 내가 속한 사회가 어떻게 타락해가고 망해가고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자유 민주주의가 좋은지 공산사회주의 고려연방제가 좋은지 분간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조국 대한민국은 참으로 독특한 나라입니다. 오천년 역사 속에 수많은 외침을 당해도 잡초처럼 살아남은 나라입니다. 아무리 없애려고 밟고 밟아도 살아남는 잡초처럼 말입니다. 우리나라는 아무리 외침을 당하여 죽이고 또 죽이려 해도 살아남았습니다. 그런 역사의 이면에는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사랑하셔서 시대마다 깨어있는 파수꾼들을 세워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내용은 여기에 일일이 열거 안 해도 우리는 대한민국 역사를 통하여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곧 닥칠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위기 앞에 하나님이 쓰시는 시대의 파수꾼들은 누구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잘 깨닫고 깨어 일어나는 파수꾼들입니다.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영적으로 보지 못하여 소경이 되어 짓지 못하는 병어리 개가 되지 말고, 영적으로 바로 깨어 일어나서 적이 누구라는 것을 백성들에게 알려 주라는 것입니다.

파수꾼의 사명은 밤에 잠도 안자고 적이 오는 것을 보고 백성들에게 알리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적이 누구지를 아는 지식이 필요합니다. 영적으로 무지하면 적이 누구지를 분간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안에 적이 누구지

를 분별이 안되니까 백성들이 우왕좌왕하고 있는 것입니다.

깨어 일어나는 또 하나의 파수꾼은 그 적을 제대로 분별하여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일을 교회 지도자들의 해야 할 텐데 자기 탐욕만 채우는 개같이 자기 먹을 것만 챙기면서 자기 이익만 생각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오늘 날 교회 지도자들의 파수꾼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을까요? 바로 자기 배만 채우는 탐욕과 자기 이익만 챙기고 있기 때문이라고 본문은 강하고 따끔하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어느 시대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의 능력으로 깨어 있는 파수꾼들이 그 시대를 바로 이끌어 갑니다. 지금 조국의 위기 앞에 있는 이 시대가 깨어있는 파수꾼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국내외적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영이 바로 깨어있는 파수꾼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외국에 나와 있다고 조국의 현실을 방관해서는 안 됩니다. 조국이 있어야 우리 존재를 인정받습니다. 그래서 외국에서도 영적으로 깨어 일어나 조국을 위하여 기도하며 함께 힘을 합하여야 합니다. 해외에서도 깨어 조국을 위하여 힘을 합할 파수꾼들이 필요합니다. 지금 이 시대 하나님께서 그런 깨어있는 파수꾼으로 우리를, 그리고 나를 부르십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그 부르심에 이사가 대답합니다. “그 때에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사6:8).

그래서 이사는 결론적으로 이렇게 선포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네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음이니라”(사60:1). 아멘! 오직 예수! 마라나!

rhokisong@yahoo.com

2018 교단 총회

예장합동

총신대 정상화·은급재단 이사 재구성 결의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합동(총회장 이승희 목사)은 대구 반야월교회에서 진행 중인 제103회 총회 둘째 날 회무에서 교단 최대 현안인 '총신대 정상화' '은급재단 이사사회와 남골당 문제' 등을 집중 논의해 교단 신학교 사유화 저지, 은급재단 이사 재구성 결의 등을 이끌어냈다.

이날 회의의 시작은 교단과 신학교의 단절을 막기 위한 규칙 개정이었다. 총대들은 총신대 규칙 개정을 통해 '총회가 직영하는 학교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 총신대학의 법인인사는 총회 총대여야 하며 운영이사사회에서 선임해야 한다'는 문구를 삽입하기로 결의했다. 이는 총신대 사태가 이어지는 동안 출근 촉구해왔던 '정관회복'과 직결된 사안으로 총회가 총신대 운영의 전면에서 나서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정처부 보고에서는 총신대 사태 유발자(총장 재단이사 및 보직 교수 등)에 대한 처벌의 건이 상정됐다. 총대들은 김영우 총장, 재단이사를 비롯한 관계자를 처벌하는 안을 총회임원회에 맡겨 처리하기로 했다. 총신대 운영지원진상조사, 총신대 사태 유발자 옹호 노회를 처벌하는 건에 대해 특

별위원 15인을 구성하되 위원 선정은 총회임원회에 맡기기로 했다.

학교 정상화를 외치며 졸업 거부에 나선 학생들을 구제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총회 고시부는 총신대 사태로 2017년 2학기

를 이수하지 않은 총신대 신학대학원 학생들에 대한 강도사 고시 합격을 결의해 달라고 요청했다. 총대들은 동의했다.

17번째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목회자 은급재단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사 전원의 사임서를 받아 이사회를 재구성하기로 했다. 은급재단 조사처리위원장 장재덕 목사가 "제102회 총회 결의대로 목사 안수 혹은 교단 가입 시 연

금 의무가입 등 기존 연금에 대한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참고사항에 그쳤다.

여성사역자 지위향상 및 사역 개발위원회(위원장 고영기 목사)는 여성사역자 정년 65세 설정과 총회세계선교회(GMS) 독신 여성 선교사와 홀사모 선교사의 성례권을 계속 시행하는 방안 등 5개 청원사항을 상정해 총대들의 동의를 얻어냈다.

이대위, 김노아·정동수 목사 '참여금지' 결론

이단대책위원회 보고자로 나선 서기 유웅상 목사는 김노아 목사와 정동수 목사에 대한 심의부터 발표했다. 유 서기는 김 목사에 대해 "분명하게 정통교회와는 다른 이단 사상이 있어 보인다"며 "김 목사의 집회에 참석하거나 교류를 금한다"고 밝혔다. 단, 김 목사가 이대위가 지적한 문제점을 모두 삭제하고 김 목사 소속 교단 목회자들이 2박3일 동안 재교육을 받을 경우 재론할 수 있다는 조건을 달았다.

정 목사에 대해서도 이단성이 있어 보인다고 분석했다. 유 서기는 "2018년 8월15일 현재 이대위의 권고에도 수정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며 "정 목사가 속한 교단에서 열리는 모든 행사에 참여를 금지하고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엄격하게 경계해야 한다"고

이대위, 김노아·정동수 목사 '참여금지' 결론

발표했다. 이 경우에도 정 목사가 그간의 주장을 공개적으로 회개하고 관련 자료를 폐기할 경우 예외주시하기로 했다.

이대위는 전대식 목사와 최바울 선교사(인터콥)에 대해서는 재심을 요청한 뒤 총회의 허락을 받았다. 강덕섭 목사의 이단성 조사는 감리교 이단대책위원회 조사 결과를 토대로 보고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이대위는 인터넷 사이트 '바른 믿음'과 관련된 정이철 목사에 대해서는 이단성이 없다고 봤다. 총회는 "정이철 목사는 이단성은 갖고 있지 않지만, 교단 내 목회자들에 대한 비판 글을 삭제하도록 지시하고, 총신대 교수들의 신학 사상을 더 이상 비판하지 않도록 엄히 경고한다"고 결의했다.

"목사 재안수 않는다"

총회 셋째 날 긴급회의인 논의에서 동서울노회가 청원한 헌법 정치 15장 13조 적용문제 질의의 건에 대해 헌법대로 하기로 결의했다. 사실상 오정현(서울 사랑의교회) 목사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이승희 총회장(사진)은 긴급회의안 결의 후 총대들에게 "해당 안건은 '이미 목사 안수를 받은 자에게 재안수하지 않는다'는 헌법 내용대로 적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총대들은 별다른 논의 없이 결의를 수긍했다.

예장통합

명성교회 세습, 재판국 재심으로 넘어가

나흘간 이어진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통합(총회장 림형석 목사) 총회 총대들의 명성교회 세습 논쟁이 13일 일단락 됐다. 새롭게 구성된 재판국원들로 명성교회 세습 적법 여부 판결이 다시 이뤄질 예정이다. 총대들은 헌법위원회와 규칙부 보고 등 명성교회 세습과 관련된 모든 부서 보고에서 세습은 잘못이라는 의사를 명확히 표현했다.

이날 총대들은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의 청빙을 반대한 서울동

남노회 헌의위원회(당시 김수원 위원장)가 법을 위반했다는 규칙부 해석을 부결했다. 지난해 10월 헌의위원회는 김 목사의 청빙 서류를 총회 헌법위원회에 질의하겠다고 반려했다.

이에 대해 안옥섭 당시 규칙부장은 총대 앞에서 "목사 청빙 서류는 헌의위가 임의로 반려했을 수 없기에 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했다. 반면 서울동남노회 박은호 목사는 "당시 서울동남노회의 특수성을 감안해야 한다"며 "불법 서

류를 무조건 본회의에 올려야 한다면 헌의위는 왜 필요한가"라고 되물었다. 결국 이날 총대 798명 중 559명이 규칙부 보고 채택을 반대하며 김수원 당시 위원장의 손을 들어주었다. 총대들은 앞서 11일 '세습금지법'(헌법 제28조 6항)이 기본권을 침해해 개정이 필요하다"는 헌법위원회의 보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국 보고는 총회 폐회 직전 이뤄졌다. 보고에서 대전노회 강흔석 목사는 "직전 헌법위원회와 재판국장은 정중히 사과하라"며 명성교회 세습 문제에 대한 책임을 요구했다. 이에 림형석 총회장은 "그분들의 소신으로 한 것으로

인민재판을 하듯이 하면 안 된다"고 만류했다. 재판국 보고는 보고서로 갈음했다.

변창배 예장 통합 사무총장은 "새롭게 선출된 재판국원들로부터 서울동남노회정상화를위한비상대책위원회(김수원 위원장)가 재판국에 제기한 명성교회 청빙 무효 소송 재심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103회기 총회 재판국장은 서울강남노회 강홍구 목사가 맡게 됐다.

한편 총회는 귀어신학과 임보라 섬돌향린교회 목사가 이단성이 있다고 결의했다.

"이슬람 46.1%, 불교 19%, 개신교3%"

진실역사교육연구원, 역사교과서 종교편향 지적

진실역사교육연구회(대표 홍영태)는 11일 서울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역사교과서의 편향적 종교서술 문제를 지적했다. 연구회는 중·고교 역사교과서가 기독교를 '크리스트교'라 잘못 기록하고 이슬람에 편향권을 계속 시행하는 방안 등 5개 청원사항을 상정해 총대들의 동의를 얻어냈다.

홍영태 대표는 "역사교과서의 종교서술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이슬람이 46.1%, 불교 19.0%, 천주교 15.5%, 힌두교 10.4%, 개신교 3.0%로 이슬람교가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다"며 "지금의 왜곡된 교과서로 교육을 받으면 우리의 다음세대는 세계문명 흐름이

이슬람을 중심으로 형성됐다는 비뚤어진 역사시식을 갖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홍 대표는 "그런데도 교육부는 이슬람에 편향성이 없다는 주장만 되풀이하고 있다"면서 "분량이나 기술면에서 종교 간 불균형을 바로잡고 불공정한 집필자를 배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승빈 한국장로교총연합회 이슬람대책위원장도 "편향적인 역사교과서는 이슬람을 평화의 종교인양 미화한다"면서 "이슬람은 태생적으로 세계의 이슬람화를 추구하는 지하드 사상을 갖고 있는데 이는 한국사회의 안전을 위협하고 사회적 분열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동성혼 옹호 이석태 헌법재판관 후보자 사퇴를"

동반연 등 314개 단체 기자회견 열고 촉구

바른군인권연구소와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 등 314개 단체는 1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석태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의 사퇴를 촉구했다.

김영길 바른군인권연구소 대표는 "이 후보자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 출신으로 균형법 폐지소송단장과 김조광수동성결혼소송 변호인단장을 맡았던 편향적 인사"라면서 "1남1녀의 결혼만 허용하는 헌법을 부정하는 사람을 재판관에 세우겠다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고 헌법을 파괴하겠다는 발상과 같다"고 비판했다.

박은희 차세대바로세우기학부모연합 공동대표도 "지난해 광주에서 2만명, 대전에서 3만명이 모여 동성혼을 허용하려는 헌법 모정을 막은 바 있다"면서 "전 국민의 반대가 있었음에도 동성애와 동성혼을 옹호·조장하는 인사를 재판관에 임명하려는 시도는 국민의 의사를 완전히 무시하겠다는 뜻"

이라고 목청을 높였다.

남성 간 성행위와 에이즈 확산의 긴밀한 상관관계마저 무시한 이 후보자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최보길 전남대 약학부 교수는 "국내 에이즈 확산의 주된 감염 경로는 동성 간 성행위로 이미 밝혀져 있는데도 이 후보자는 그렇지 않다고 주장했다"면서 "의학적·과학적 사실마저 왜곡하고 동성애를 윈손잡이처럼 선천적이고 불가항력적인 것으로 보호하려는 이 후보자는 자신 사퇴하는 게 맞는다"고 촉구했다.

최은영 바른군인권세우기운동본부 이사도 "현재 균형법 위헌법률심판제청 소송이 진행 중인데도 헌법재판관 후보자라는 사람이 공정한 입장을 표명하기는커녕 과거 동성혼을 허용하려는 헌법 모정을 막은 바 있다"면서 "이 헌법의 위위마저 훼손하겠다는 발상으로 그 자질이 매우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예배 참여 권유가 범죄라니..."

부기총 등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법률안' 규탄집회 열고 철회 촉구

교계와 시민단체들이 13일 오후 경기도 부천시 부천역에서 종교단체 복지시설에서 직원 등의 종교행위를 강제할 수 없도록 하는 개정안에 대해 규탄집회를 열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 11인(대표발의 김상희)은 지난달 6일 '사회복지사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표했다. 시설의 직원과 거주자, 이용자 등에게 예배를 비롯한 종교행위를 강제해선 안 된다는 내용인데,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에 1300여 교회로 구성된 부천시기독교총연합회(부기총)와 부천통일광장기도회, (새)부천시노인장기요양시설협회 등의 회원들은 법안 철회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성명을 낭독했다. '김상희 의원은 종교사회복지시설처벌법(가칭)을 철회하시기 바랍니다'라는 제목의 성명을 시민과 언론에 배포했다. 경기도 고양·수원·시흥시기독교총연합회 등도 성명을 냈다.

이들 단체는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악법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또 법안 철회 의사가 없다면 지역구에서 공청회를 열고 관련 질문에 해명하라고 했다.

공동발의자인 '조정석 정춘숙 권미혁 유은혜 서삼석 이규희 소병훈 백해련 최인호 진선미 의원'의 지역구 기독교총연합회는 해당 의원에 법안 철회를 요구하라고 주문했다. 각 교단 총회는 유럽에서 기독교와 기독교인을 공공영역에서 퇴출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시설의 직원과 거주자, 이용자 등에게 예배를 비롯한 종교행위를 강제해선 안 된다는 내용인데,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한다는 것이다.

김재우 부기총 사무총장은 "종교계가 복지시설을 만들고 운영할 때는 대부분 종교적인 색채를 띠고 있다"며 "이 법안은 복지시설을 많이 운영하는 기독교 발전정책이다. 우리가 기도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부천통일광장기도회 대표 성시학 목사는 "예배 참여 권유가 범죄라니 말이 되는가"라고 반문했다.

의명을 요구한 한 사회복지시설장은 "일부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을 주니 종교행위를 하거나 강제하면 안 된다고 하는데, 이는 잘못이다. 보조금은 국가 대신 소외이웃을 돌보는 시설에 주는 돈이다. 종교행위와 연관지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예장고신

임원선거 첫 '스마트 보트' 신임총회장 김성복 목사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고신(총회장 김상석 목사)은 11일 충남 천안 고려신학대학원에서 '화평함과 기록함을 따르라'는 주제로 제68회 총회를 개최하고 부총회장 김성복(연산중앙교회·사진) 목사를 신임 총회장으로 선출했다.

임원선거에서 총대 과반수의 표를 얻은 김 목사는 "겸손한 자세로 총회를 섬기겠다"고 밝혔다. 그는 앞선 개회예배 설교를 통해 "오늘날 교회가 사회적 지탄을 받는 건 교회가 거룩함을 상실했기 때문이라고 본다"며 "거룩함이 사회 부패를 방지하는 소금이다. 한국 교회는 거룩을 회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성결하고 합당해야 한다"며 "거룩함을 간직한 채 화평함을 이루는 고신이 됐으면 한

다"고 강조했다. 이날 총회에는 전국 34개 노회

에서 총대 526명 중 522명(목사 261명, 장로 261명)이 참석했다. 임원선거는 처음으로 스마트폰을 이용한 '스마트 보트'로 이뤄졌다. 선거 시간 단축을 위해 기표표를 마련하지 않고 대신 지정된 총대

석에서 투표하는 방법으로 효율을 꾀했다. 후보 발언 역시 3분으로 제한했고 사무총장 후보자들은 준비한 영상으로 출마 발언을 대신했다.

김성로 목사, 이인규 권사 '참여 자제'

총회 첫날인 지난 11일 춘천 한마음교회 김성로 목사에 대해 참여 자제 판정을 내렸다. 예장고신은 김 목사에게 잠정적 위험 요소가 있다는 이단대책위원회 보고를 받아들였다.

앞서 지난 67회 총회에서 경남 노회와 서경노회, 수도노회는 김 목사의 사상과 이단성 문제에 관한 총회 조사를 요청했다. 당시 총회는 김 목사의 신학적 문제는 신학대학원 교수회에 의뢰해 연구하게 하고, 그 활동에 대한 연구와 조사는 이대위와 이단대책상담소에 맡겨 처리하기로 한 바

있다. 이대위는 김 목사가 부활을 지나치게 강조하면서 십자가 의미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대위는 김 목사 주장은 청중에게 때때로 큰 호응을 불러일으킬 수 있고 대중 집회에서 큰 효과를 발휘할 수도 있지만 교인들에게 균형 잃은 신앙을 갖게 할 위험성을 안고 있다"고 말했다.

예장고신은 김 목사 신학 사상을 옹호해 온 이단 연구가 이인규 권사(기독교이단대책협회)에 대해서도 참여 자제를 결정했다. 김 목사와 마찬가지로 지난 총

회 때 사상과 활동에 대한 조사 청원이 올라왔던 글로벌타임즈 운영자 주요한 목사는 참여 금지를 결정했다. 이대위는 보고서에서 구 목사 사상이 은사주의나 신사도 운동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진단했다. 이어 구 목사가 기성교회를 무너뜨리고 와해하려는 이단적 공격성을 보인다고 지적했다.

예장고신은 여성 안수를 허용한 네덜란드개혁신교회에 재고를 권하기로 결의했다. 고신은 1967년부터 네덜란드개혁신교회와 자매 관계를 맺어오고 있다. 네덜란드개혁신교회는 지난해 6월 여성에게도 목사 장로 집사 등 모든 직분을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백석대신

귀어신학, 전능신교 이단으로 지정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대신(총회장 이주훈 목사)이 13일 교회 내 동성애를 옹호하는 이론적 기반인 '귀어신학'과 중국 사이버 종교인 '전능신교'를 이단으로 지정했다.

교단 총대들은 "귀어신학을 이단으로 지정해 달라"는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의 요청을 허락했다.

지난 11일 귀어신학을 주장하는 임보라 섬돌향린교회 목사를 이단으로 지정한데 이어 2일만에 귀어신학까지 이단으로 지정할 것이다.

총대들이 귀어신학을 이단으로 지정한 것은 "동성애를 죄로 여기지 않는 귀어신학이 기독교의 신학 정체성을 훼손하고 동성애를 두둔하는 종교로 만들려고 한다"

는 신학자들의 비판에 근거한다. 귀어신학은 예수님을 동성애자 내지 여성적 요소를 지닌 남성으로 간주하며 성육신한 예수의 몸을 생물학적으로 자동동체적 존재로 해석한다.

특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예수 옆구리에서 나온 피와 물이 여성의 성기에서 나온 액체이자 젖이라는 외설적 해석을 한다.

또한 부활한 예수의 몸이 다(多)젠더적이라는 해석으로 성경을 왜곡하고 동성애를 죄로 여기지 않는다.

총대들은 중국 흑룡강성 조양산에 의해 1990년대 생겨난 사이비 종교집단인 전능신교에 대해서도 이단으로 지정했다. 전능신교는 내연녀인 양향빈을

재림주 여자 그리스도도 떠받들고 있는데, 한국에는 2008년 들어왔다.

2012년 시한부 종말론을 외쳤으며, 탈퇴자들에 대한 살인과 폭

연금재단 등 쟁점사안 논의 후 폐막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대신(총회장 이주훈 목사) 총회가 13일 오후 5시경 폐막했다.

총대들은 천안 백석대에서 개최된 총회 마지막 회무에서 연금재단 이사회 구성, 목회자 정년 적용, 세계선교회 통합 등의 문제를 두고 장시간 토론을 벌였다.

결국 연금재단 이사회는 재정 건전성과 이사들의 책임감 강화를 위해 '이사는 5000만원 이상 출연한 자로 한다'는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70세 목회자 정년은 그대로 유지하되 교회가 원할 경우 73세가 지 가능하다는 규정을 교회에만

행, 협박이 계속되고 있다.

서울 부산 안산 부평 횡성 보은 등지에 전능신교 교회가 있으며, 신도들이 집단생활 하고 있다.

적용하고 총회 공직에는 70세가 지만으로 한정하기로 했다. 구 대신세계선교회와 구 백석세계선교회위원회의 통합 건은 평행선을 걷다가 추후 재논의하기로 했다.

총회 전 임원회는 양측 목회자들의 이해관계가 얽혀있어 기구의 활동을 중단하고 새로운 조직을 만들라고 요청했지만 불발에 그친 것이다.

총회선거제도는 현행 선거제로 유지하기로 했으며, 세례교인 분담금은 40%를 연금재단에 전입하지 않고 전액 총회 운영비로 편성키로 했다.

선교의 창 (109)

송종록 목사
(대학선교, Ph.D)



선교사 루비 켄드릭(Ruby Kendrick)

가을은 열매의 계절이다. 추수절을 전후하여 햇곡식과 여러 종류의 과일들이 주렁주렁 열린다. 사과, 배, 감, 대추 등이 눈에 선명히 떠오른다. 우리 인생도 가을이 있다. 가을엔 열매로 말을 해야 한다. 과실이 없는 나무는 부끄러움을 타듯이 인생과 교회도 마찬가지이다.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어 가고 있는가? 열매는 과일 나무 혼자서 맺을 수 없다. 태양 빛과 바람과 공기와 땅 속의 수분과 영양분이 합성되어야 한다. 여러 종류의 유기물과 무기물의 희생을 필요로 한다는 것이다.

한국교회는 올해로 선교 133년째이다. 익히 아는 바 한국교회는 세계선교 역사 속에서 빼 놓을 수 없는 부흥의 간증을 낳았다. 뿐만 아니라 선교대국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작금의 실태를 보면 깊은 한숨이 나온다. 모두가 이대로 가면 안 된다는 위기의식이 있다. 문제의 핵심은 무엇인가? 희생이다. 희생을 거부하는 것은 기독교가 아니다.

남을 위해 자기 자신을 희생한 대표적인 모델은 서울 양화진에 있다. 그곳에는 조선에서 선교하다 돌아간 신교사와 평신도들의 묘가 167기나 있다. 그 중에서도 우리의 눈길을 끄는 묘비가 하나 있다. 루비 켄드릭(Miss Ruby Rachael Kendrick, 1883-1908)의 것이다. 그녀의 묘비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다. "만일 내게 일천 생명이 있다면 그것을 모두 조선에 주겠노라."

1. 생애

루비 켄드릭(Ruby R. Kendrick, 1883-1908)은 1883년 1월 28일 미국 텍사스 남감리교회의 독실한 가정에서 태어났다. 그녀는 꿈 많은 소녀 시절부터 불신자들에게 대한 구령의 열정으로 가득했다. 그녀는 해와 선교사가 되기로 결심하고 캔자스 여자성경학교에 진학했다.

1905년 6월에 졸업한 그녀는 선교사로 지원하였다. 그러나 선교사 파송 연령제한에 걸리자 교사로 1년, 대학 학부과정 1년을 수학하면서 해외 선교를 위해 착실히 준비했다. 마침내 그녀는 북텍사스 엡워스 연회(North Texas Conference Epworth League)의 후원으로 남감리회 여자 외국선교부 소속 선교사

로 파송됐다. 그녀는 1907년 8월 29일 미국을 떠나 서울에 도착한 때가 9월이었고, 11월에 황해도 개성에 도착했다. 조선에 온 그녀가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말을 배우고 선교를 준비하는 것이었다. 그녀는 한국말을 배우면서 한영학원에서 교사와 개성 남부감리교회에서 주일학교 교사의 일을 맡았다. 루비 선교사는 비록 말이 통하지 않았으나 아이들과는 사랑이란 언어로 자유롭게 소통했다.

이렇게 언어와 문화를 배우며 사역하던 중 이듬해인 1908년 6월 9일에 급성 맹장염이 걸렸다. 당시 개성에는 서양병원이 없었으므로 서울 제중원으로 급히 옮겨졌으나 열흘 뒤인 6월 19일 스물다섯 살의 나

선교는 자기 희생이다.

루비 켄드릭은 조선 땅에서 자기 뼈를 묻었다.

오늘 우리의 문제는 주님을 위해 죽겠다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데 있다.

이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 조선에 온지 불과 9개월 만이었다. 젊은 나이에 미처 선교의 꽃을 피우지도 못하고 세상을 떠난 것이다.

2. 마지막 편지

"사랑하는 아버지 어머니!" 이곳 조선 땅에 오기 전 집 뜰에 심었던 꽃들이 활짝 피어났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하루 종일 집 생각만 했습니다. 육신쟁이 수지가 그 씨앗을 받아 동네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다니 너무나 대견스럽군요. 아마 내년 봄이 되면 온통 우리 동네는 내 가슴은 노란 꽃으로 덮여있겠군요. 아버지 어머니, 이 곳 조선 땅은 참으로 아름다운 곳입니다. 모두들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 같습니다. 선한 마음과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보아, 아마 몇 십 년이 지나면 이곳은 예수님의 사랑이 넘치는 곳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복음을 듣기 위해 20km를 맨발로 걸어오는 어린 아이들을 보았을 때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오히려 위로를 받습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탄압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저께는 예수

고 또 다른 씨앗을 만들어 내겠지요.

저는 이곳에서 작은 씨앗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제가 씨앗이 되어 이 땅에 물리게 되었을 때 아마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조선 땅에는 많은 꽃들이 피고, 그들도 여러 나라에서 씨앗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땅에 저의 심장을 물렸습니다. 바로 이것은 조선을 향하는 저의 열정이 아니라, 조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사랑합니다.

3. 선교 도전

1908년 엡워스 청년회가 텍사스에서 선교대회를 열고 있을 때였다. 조선에서 사랑이 가득 담긴 편지 한 통이 도착했다. 당시에 보낸 편지는 보내면 일본을 거쳐서 샌프란시스코까지 선박으로 갔고 다시 미국 내에서는 육로를 통하여 수개월씩 걸려서 전달되었다. 내용인즉, 조선의 기후를 비롯하여 아름다운 금수강산을 소개하는가 하면 인심이 넉넉한 조선 사람들을 극찬하면서 하루 빨리 이들에게 복음이 들어가 행복한 나라가 되기를 염원하는 내용으

로 꼭 들어왔다.

그러면서 "내게 천의 생명이 있다면 그 모두를 조선을 위해 바치겠다"는 내용이였다. 그 편지를 읽을 때 많은 사람들은 감동을 받았다. 그런데 이튿날 루비 켄드릭이 세상을 떠났다는 전보가 도착되었다. 편지는 수개월을 걸려서 전해지지만 전보는 즉시 전달되기 때문이다.

그녀가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 주변 사람들에게 유언을 남겼다. "만일 내가 죽으면 텍사스 청년들에게 열 명씩, 스무 명씩 조선선교사로 오라고 일러 주십시오" 이 말이 텍사스 엡워스 청년회 선교대회장에 전달되었다. 그들은 모두 큰 충격에 빠졌고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는 슬픔에 잠겼다.

성령께서 역사하시 이 슬픔은 오히려 선교 열정으로 승화되게 했다. 그들 중 20여 명은 루비 친구처럼 자기들도 이방 땅에 가 심장을 물겠다고 결심을 하게 된 것이다.

맺음 말

"내게 천개의 생명이 주어진다며, 그 모든 생명을 조선을 위해 바치리라"(If I had a thousand lives to give, Korea should have them all). 한 자매의 죽음과 그 묘비명이 우리의 가슴을 울린다.

루비 켄드릭은 선교를 했다고 말

할 수 없을 정도로 사역 기간이 짧았다. 1년도 아닌 불과 9개월이었다. 그러나 우리가 감동한 것은 조선인들에 대한 그녀의 사랑과 희생이다. 25세의 꽃다운 나이에 낯설고 물 설은 땅에 와 외롭게 뼈를 묻은 그녀를 어찌 우리가 잊을 수 있는가?

우리 한인 크리스천들은 루비 선교사처럼 낯선 영혼들을 위해 땀과 눈물과 피를 쏟으신 그 사랑과 열정을 계승해야 한다. 이는 한 알의 밀알 되신 그리스도의 희생을 의미한다. 날로 인본주의와 쾌락과 물질 만능주의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이때 우리는 너무 안일을 추구하고 있지는 않은가? 슬픈 것은 주변을 둘러봐도 루비 선교사처럼 계산하지 않고 청춘을 불살라 청년들이 잘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기성세대는 어떠한가? 십자가 희생을 회피하는 신앙은 뭔가 문제가 크다.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생명을 걸어 보겠다는 사람들은 복된 자들이다. 어차피 우리네 인생은 종말이 있다.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내 묘비에는 무슨 말이 쓰여지기를 원하는가?

jsong007@hanmail.net

선교 편지

와이마

유난히 고국의 여름이 더웠다 소식을 들으며 저희는 이곳 남태평양 섬나라이지만 적도아래 남반부이기에 오히려 한국보다 쾌청한 날씨 속에서 지냈습니다. 우주와 세상을 주관 하시는 창조주 앞에서 겸허하게 다시 가을을 맞이하고 있는 모습에 감사하고 또 감사하게 됩니다. 예정대로 1년여 동안의 안식년을 마치고, 6월 23일 한국을 출발해서 이곳에 도착하여 각 부족들을 방문하며 반갑게 맞이해 주는 사람들과 귀한 교제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특별히 7월초 10여일 동안 한국에서 이곳을 방문한 동역자들과의 본부와 마을 방문은 부족 사람들뿐 아니라 저희에게도 많은 격려와 위로의 시간이 되었습니니다. 각 부족의 형제들은 고국에서 수많은 성도들과

교회들이 각 부족을 품고, 사역을 품고 기도하며 동역해 주고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와 사역은 저희가 비록 몸이 떨어져서 사역을 한다고 하더라도 계속 될 것을 눈으로 보게 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기 각 부족의 소식을 간단하게 드립니다.

와이마 부족: 번역 출판된 신약성경과 듣는 성경을 통해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구역번역이 많은 진도가 나간 것 같아 신실하게 사역을 감당해온 우교 형제를 비롯해서 마을 사람들이 계속해서 구역번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번역위원회 모임을 통해 마음을 모아 번역팀을 더 잘 도울 것을 약속하며, 말씀의 귀함을 깨달아가는 부족사람들을 보게 되는 것은 저희에게 축복이었습니다.

나라 부족: 번역이 진행되는 중심마을인 '오로이'마을에 아름다운 예배당이 건축을 마치고 출판보급 된 족복음(마가복음)을 사용하며 언제 성경이 마쳐지겠느냐고 물어보는 마을 추장님의 간절한 눈빛을 보았습니다. 저희의 짧은 방문을 위해 새벽부터 먼 바닷가에 가서 잡아온 싱그러운 생선과 바나나를 선물로 받아 돌아오면서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가득한 '알루아' 집사님의 노년의 열정에 오히려 저희가 감동하였습니다.

가바디 부족: 7월 중순, 연합교회 노회가 '베누'마을에서 열렸고 노회에서는 10월에 열리게 되는 세 단체(이 나라에서 성경번역을 진행하고 있는)의 연합수련회를 주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제 서서히 이 나라의 교회들이 말씀번역에 대한 중요성을 알아가고 있는 것 같아 소망을 가져봅니다. 저희가 지역대표사역을 하면서 시작하게 된 이 연합수련회가 의미 있고, 서로에게 격려가 되며 무엇보다 교회들이 주인의식을 갖게 되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주최마을이 되어 이 모임을 준비하고 있는 가바디 부족의 번역 코디인 '아로' 추장과 마을 지도자들, 그리고 노회 교회 지도자들의 아름다운 동역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도우라 부족: 저희가 다시 도우라 부족 소식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황보현/김미라 선교사 가족이 도우라부족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김미라 선교사의 건강에 어려움이 생겨 8월초에 사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안타깝고, 마음이 아파서 도우라 부족마을에 황보 선교사와 함께 가서 마무리를 하고 돌아와서는 이덕신 선교사는 며칠 앓아누웠었습니다.

(14면으로 계속)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해외 교회

금란교회 담임목사: 김정민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1:30 주일5부예배: 오후 7:30 www.kumlan.org Tel: (82)2-490-7000, Fax: (82)2-436-5770 서울시 중랑구 망우동 340-1(131-231)	든든한교회 담임목사: 장항희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1:30 수요예배: 오전 11:00, 7:00 금요철야예배: 오후 9:00 Tel: (031)977-8383~9, Fax: (031)977-8382 (우)410-831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산동 1670-1	로마한인교회 담임목사: 한병우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3:00 새벽기도: 오전 6:00(매일) Tel: 39-06-827-3585, 39-348-339-1726 39-06-843-8676(교우관)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호매동 1312번지 VIA DEI QUINTILI 32-38 00175 ROMA, ITALY	새이덴교회 담임목사: 소강석 주일1부: 오전 7:30 주일2부: 오전 9:30 주일3부: 오전 11:00 주일4부: 오후 12:30 주일5부: 오후 2:30 수요예배: 오후 3:00 새벽기도: 오전 6:00(매일) (젊은이를 위한 헌신예배) 대표전화: (031)896-1000, 팩스: (031)896-6077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서호동 1312번지	성문교회 담임목사: 황정식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0:0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새벽기도회: 오전 5:00 새벽기도회: 오후 6:30 Tel: (82)2-2646-3191~3, (82)2-2646-3184 서울시 강서구 목동2동 520 (156-808)	성실교회 담임목사: 김영복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3:00 수요예배: 오후 7:00 www.seongsil.or.kr Tel: (82)2-990-9998, Fax: 3927-1008 서울 강북구 수유동 22-43 (142-073)	성일교회 담임목사: 윤상욱 주일1부예배: 오전 5:3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3:00 수요예배: 오전 7:30 새벽기도: 오후 3:00 (토요일은 쉰다) Tel: (82)2-2643-8553~4, Fax: 2648-4662 서울특별시 양천구 양천5동 713-26호
수정교회 담임목사: 이성준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7:30 수요예배: 오후 7:30 Tel: (82)32-568-0191, Fax: (82)32-562-2738 인천시 서구 불로동 416-1(404-270)	승중교회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전 1:30 주일4부예배: 오후 3:00 수요예배: 저녁 7:00 Tel: (02)732-2341~3, 사택: (02)389-2235 (110-290) 서울시 중로구 민사동 137번지	시온소교회 담임목사: 김철승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전 5:00(일-토) 새벽기도: 오전 5:00(일-토) Tel: (031)253-1004, Fax: (031)253-1010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이리동 419-2	신길교회 담임목사: 이기용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3:00 주일5부예배: 오후 7:00 Tel: (82)2-842-1968, 사택: (011)82-2-842-1968 서울 영등포구 신길1동 63-3, (150-051)	신천교회 담임목사: 박영석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전 12:50 주일5부예배: 오후 3:00 새벽기도회: 오전 5:00/6:00 Tel: (02)418-0481, HP: (02)422-0751 서울시 용마루동 172-29(삼일동) www.shincheon.org	신촌교회 담임목사: 박노훈 주일1부예배: 오전 6:00 주일2부예배: 오전 7:30 주일3부예배: 오전 9:30 주일4부예배: 오전 11:30 주일5부예배: 오후 1:30 Tel: (82)2-3142-6080, Fax: (82)2-336-4188 서울 마포구 노고산동 49-45 www.eshinchon.org	안암 제일교회 주일1부예배: 오전 9:2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전 2:30 주일4부예배: 오전 7:30 금요기도회: 오후 8:00 Tel: (82)2-926-4508 서울시 용마루구 안암1동 550-1 www.anamjil.or.kr
양곡교회 담임목사: 지용수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40 주일4부예배: 오후 7:30 수요예배: 오전 10:30/오후 7:30 새벽기도회(매일): 오전 5:30/6:30/9:00 Tel: (055)210-5500, Fax: (055)210-5510 (841-370)경남 창원시 성산구 월영로 415 www.yangokg.org	왕성교회 담임목사: 김요나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1:30 Tel: (82)2-888-4813, 331-284-7204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1641-24 (151-029)	장위제일교회 담임목사: 신일권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3:00 주일4부예배: 오후 7:00 금요침야기도회: 오후 9:30 Tel: (02)842-6881, Fax: (02)842-6882 (136-631) 서울시 성북구 장위동 79-12	주안교회 담임목사: 주중증 주일1부예배: 오전 6:00 주일2부예배: 오전 8:00 주일3부예배: 오전 10:00 주일4부예배: 오후 12:00 주일5부예배: 오후 2:00 주일6부예배: 오후 4:00 주일7부예배: 오후 7:00 Tel: (82)2-527-1009 인천광역시 부평구 신곡4동 294-1(1403-838)	창대교회 담임목사: 최홍도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3:00 금요기도회: 새벽 5:30 Tel: (82)2-482-3536, Fax: (82)2-488-4508 서울시 강동구 성내동 448-23	청주주님의교회 담임목사: 최현석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2:00 주일4부예배: 오전 11:30 금요기도회: 저녁 9:00 새벽기도회: 새벽 5:30 Tel: (043)275-9191, Fax: (043)273-8114 361-833 충북 청주시 흥덕구 사당동 259-12	충신교회 담임목사: 이진호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8:3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전 1:30 주일5부예배: 오후 1:30 Tel: (82)2-793-7740 서울시 용인구 이촌동 302-67 (140-031)

기독교 경영 전략

기독교 경영 전략(Christian Business Strategy) 강의 (26)



제임스구 교수 (그레이스미션대학교 행정처장)

성경적 회계 전략(3)

A. 정직과 속임

그리스도인 기업가는 속임(Deceit)에 특별히 약하다. 이 속임은 회계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 하나님은 속임과 사기, 그 자체를 미워하신다. 속임은 인간 본성의 한 부분이다(시5:6, 잠20:10, 렘17:9-11).

B. 회계 공시 (Accounting disclosure)

진실한 회계 공시(Accounting disclosure)의 중요한 성경적 근거는- 정직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와 속임에 대한 미움에 덧붙여서- 어떠한 비밀도 하나님에 감출 수 없다는 것이다(시44:21, 전12:14, 렘17:10, 롬2:6, 고전14:25, 히4:12-13).

이것이, 집단의 일치된 관점을 따를 때보다 잘못된 관점을 가지기가 더 쉽다. 감시/회계 감사에 대한 성경적 적용은 인간의 죄성, 외부 이해 관계자의 정직한 정보에 대한 요구, 외부인으로 하여금 사실의 진위를 확인하도록 하는 합리성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

보호 장치-오도할 정보 금지, 내주정보 근거한 주식거래 금지, 공정한 공시 요구, 재무제표에 대한 독립적 감사, 회계전략은 성실, 정직해야...돈은 악하지 않지만 지배 받지 말아야

그리스도인 회계 담당자는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시32:2)와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슌3:13)라는 권면을 명심하면서 업무를 수행해야 할 것이다. 속임의 반대는 정직이며, 하나님은 정직한 정보를 요구하신다.

한 이야기가 경제 신문에 난 적이 있다. 그렇다면 법적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을 어떻게 비교할 수 있을까? 양자는 매우 유사한 것처럼 보인다. 하나님과 인간의 두 기준은 매우 간결하고 포괄적이다. 정보가 오도되자 말아야 한다는 법적 기준은 정직한 보고에 대한 하나님의 기준과 매우 유사하다(출20:16, 잠12:17).

처럼 GAAP은 포괄적인 규칙이 아니라 그것의 적용은 판단이 요구한다. 기독교 경영에 있어서 회계 전략은 달란트의 비유처럼 성실하고 정직해야 한다. 특히 회계는 돈을 다루는 분야이다. 성경은 돈을 악하다고 하지 않는다. 단 돈의 지배를 받지 말라고 한다. 돈은 사람을 악하게도 만들고 선한 일을 하게도 한다. 우리는 청지기이다.

C. 감시/회계 감사

감시/회계 감사 제도는 거래나 사건에 대한 객관적 증거를 제시하는 증인의 성경적인 역할과 유사하다. 왜 객관적 증거가 필요할까? 사람이란 만약 자기 마음대로 하게 된다면 자기 자신이 설정한 관점에 맞게 사람을 합리화 할

처럼 GAAP은 포괄적인 규칙이 아니라 그것의 적용은 판단이 요구한다. 기독교 경영에 있어서 회계 전략은 달란트의 비유처럼 성실하고 정직해야 한다. 특히 회계는 돈을 다루는 분야이다. 성경은 돈을 악하다고 하지 않는다. 단 돈의 지배를 받지 말라고 한다. 돈은 사람을 악하게도 만들고 선한 일을 하게도 한다. 우리는 청지기이다.

dr.jameskoo@yahoo.com

(13면에서 계속)

그러나 오직 우리의 행편과 처지를 잘 아시고 주관하시는 주님께 의지하며, 감사함으로 황보현 선교사를 보내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 마지막 주 세 부족의 6명의 번역자들이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 모여 앞으로 사역방향을 계획하고 기도하며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너무 오래 된 컴퓨터로 인해 힘들었던 번역사역도 새로 마련하게 된 컴퓨터로 번역 프로그램도 새로 전환할 수 있게 되어 사역에 다시 박차를 가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한국에 있으면서도 현지인 번역자들이 수도에 있는 센터에 나와 인터넷으로 저희들에게 번역한 자료를 보내고 받는 일을 시도해 보려고 합니다. 각 부족 마을에서는 인터넷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들이 수도에 나와야 합니다.

앞으로의 사역

지난 6월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말씀드린 대로 이번 파푸아뉴기니 사역은 저희 사역 방향의 전환을 위한 4개월의 짧은 기간입니다. 이곳 파푸아뉴기니의 본부 행정진을 만나서 오는 11월부터 3년 동안 비거주 사역 (Remote Assignment)이 시작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한국에서 주로 지내면서 1년에 한두 번 이곳을 방문하며 사역을 하게 됩니다. 이곳 파푸아뉴기니 사역은 주로 번역의 자문점검과 성경활용을 위한 사역을 담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GBT 본부의 일을 하게 될 예정인데, 자세한 사역내용은 다음 편지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별을 수없이 경험했던 선교사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이 나라를 떠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떠나는 준비를 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지난 주말에는 이곳의 한인 공동체와 함께, 이번 주말에는 본부에서 함께 가족처럼 지냈던 센터 근처 부족의 사람들과 함께 이곳 전통음식 요리방법(무무)을 하며 서로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난 30여년 동안 이곳에서도 함께 해온 동역자들이 있었기에 지금까지 저희가 걸어올 수 있었음에 다시 감사드립니다.

10월26일 새벽 이곳을 출발하여 한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표를 예매 하였습니다. 앞으로 이곳 사역을 마무리하게 되는 두 달 남짓, 오직 주님의 은혜 안에서 주께서 주시는 힘으로 감당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롬1:16).

9월에 들어서며 로마서를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각 부족에서 말씀을 번역하고 있는 와이마족, 나라족, 가바디족의 형제들이 말씀 한 구절구절을 자기들의 말로 번역 할 때 성령께서 말씀해주시고, 그 말씀을 경청하고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각 부족을 살려내는 영적인 지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이 복음의 능력이 이들의 삶을 통해 끊임없이 선포되어지도록, 그리고 겉과 여려분 한분 한분의 삶을 통해서도 같은 은혜를 부어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귀한 사랑과 기도, 동역에 감사드리며,

김남수 이덕신 선교사 드림. namsoo_kim@sil.org/duckshinkim@gmail.com

감사, 기도제목

1. 안식년을 은혜로 마치고 6월 23일, 선교지로 귀임하여 지난 두달 동안의 사역에 함께 해 주신에 감사. 현지인 사역자들과 그 가족들을 주안에서 보호해 주시고, 각 부족 마을들을 방문하며 앞으로의 사역 방향을

나누고 계획하게 하심에 감사. 각 부족에서 세운 계획들이 교회와 연합하여 잘 진행되어 나가도록.

2. 7월 1일부터 10일까지 한국에서 4명의 개인 동역자들이 파푸아뉴기니를 방문하여 본부와 부족 마을들을 하며 귀한 시간을 보낼 있도록 해주심에 감사.

저희와 오랫동안 동역하고 있는 교회들, 개인 동역자들에게 계속해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동역의 기쁨을 나눌 수 있도록.

3. 7월 마지막 주, 세 부족의 6명의 번역자들(주 사역자들(이구뵈, 우꼬, 알리, 아우나, 모래아, 마오나)과 함께 앞으로의 사역을 계획하는 워크숍을 하게 하심에 감사.

매월 한 번씩 모여서 서로 격려하며 사역한 내용을 주고받는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어지도록.

4. 8월6일-24일 이덕신 선교사가 어린이 학교 교사훈련 과정에 참석해서 돕고, 배울 수 있게 하심에 감사. 앞으로의 사역에 잘 활용되어 질 수 있도록.

5. 10월8일-12일 제4차 중부지역 연합수련회가 가바디 부족마을에서 열리게 되는데 준비, 진행과정을 통해서 20여개의 부족 번역팀들이 힘을 얻게 되는 시간이 되어 지도록.

6. 이덕신 선교사 어머니의 건강이 더 악화되지 않고, 어머니께 평강을 주시도록, 전임사역자들로 지내고 있는 딸 아이들 가정(히란-미국, 한나-V국)이 주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거하도록.



Worldwide Church Directory: A grid of 24 church listings across various cities including Galbraith, Wagon, Buxton, Benelux, Boston, Saltwater, and others. Each listing includes the church name, pastor's name, contact information, and service times.

Food in Bible(6)

유류 및 유제품 (Milk & Dairy Product) (상)



최성은 (Ph.D, RD, 퀸즈칼리지 교수)

뜨거운 여름을 뒤로 하고 학교에서는 새로운 학기가 시작되었다. 이 새 학기에 우리 믿음의 차세대들의 많은 성장을 기대하고 이번 글에서는 성경 속의 음식으로 성장에 중요한 요소를 포함한 유류 및 유제품을 살펴보고자 한다.

“네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와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출23:19, 34:26, 신14:21).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멩에를 메어 보지 아니한 젖 나는 소 두 마리를 끌다가 소에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 보내고”(삼상6:6-7). “그 사람들이 그

거두고 나의 꿀송이와 꿀을 먹고 내 포도주와 내 우유를 마셨으니 나의 친구들이 먹으라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이 마시라”(아5:1). “시스라가 그에게 말하되 청하노니 내게 물을 조금 마시게 하라 내가 목이 마르다 하매 우유 부대를 열어 그에게 마시게 하고 그를 덮으니”(삿4:19). “시스라가 물을 구하매 우유를 주되 곧 영긴 우유를 귀한 그릇에 담아 주었고”(삿5:25).

성경엔 소, 염소, 양의 우유 언급...버터, 치즈 유제품 만들어 '젖' 은 신앙적으로 장성하지 못한 자의 양식으로 언급되기도

우유를 얻을 목적으로 가축을 길렀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성경의 배경이 되는 목축문화권에서는 우유와 유제품이 중요하고 귀중한 식품으로 사용되어져 왔음을 성경 곳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같이 하여 젖 나는 소 둘을 끌다가 수레를 매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삼상6:10). “우유를 많이 마셔서인지 우유의 흰 빛깔이 좋은 비유로 종종 등장하고 있기도 한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던 약속의 땅이 성경 여러 곳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표현되고 있다.

“그의 그릇에는 젖이 가득하며 그의 골수는 윤택하고”(욥21:24). “그러므로 내가 너를 동방 사람에게 기업으로 넘겨주리니 그들이 네 가운데에 진을 치며 네 가운데에 그 거처를 베풀며 네 열매를 먹으며 네 젖을 마실지라”(겔25:4).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사55:1).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되다”(창49:12). “전에는 존귀한 자들의 땀이 눈보다 깨끗하고 젖보다 희며 산호돌보다 붉어 그들의 윤택함이 갈아서 빛낸 정육 같더니”(애4:7).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출3:8). (출13:5, 33:3, 레20:24, 민13:27, 14:8, 16:13, 14, 신6:3, 11:9, 26:9, 15, 27:3, 31:20, 수5:6, 겔20:6, 15, 렘11:5, 32:22).

성경에 나타난 우유 및 유제품

성경의 배경이 되는 중동지방에서는 현재 소, 양, 염소나 버펄로(water buffalo) 심지어는 낙타로부터 얻어지는 우유가 소비되어지고 있지만 성경에는 주로 소와 염소, 양의 우유가 언급되고 있다.

또한 우유로 버터나 치즈 같은 유제품을 만들어 먹었음과(“대저 젖을 저으면 영긴 젖이 되고 코를 비틀면 피가 나는 것 같이 노를 격동하면 다투어 남이니라”, 잠30:33, “주께서 나를 젖과 같이 쏟으셨으며 영긴 젖처럼 영기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욥10:10) 이러한 식품이 귀한 접대용으로 사용되어졌음도 다음의 구절들에서 엿볼 수 있다.

한편, 신앙적으로 장성하지 못한 자의 양식으로 ‘젖’이 언급되어지기도 한다.

“소의 영긴 젖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에서 난 숫양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신32:14). “염소의 젖은 낙하여 너와 네 집의 음식이 되며 네 여종의 먹은 것이 되느니라”(잠27:27). “누가 양 떼를 기르고 그 양 떼의 젖을 먹지 않겠

“때가 오래 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니 그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히5:12-14).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밤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고전3:2).

cse1001@gmail.com

전화령 목사(캄보디아선교사)

whiteyou11@yahoo.com

매일가정예배

월 연보준비 방법(고후10:5-7)찬474장

사도는 연보를 바로 하는 원리를 가르칩니다. 첫째, 역지로 하지 말아야 합니다(7).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하나님이 하고 싶은 마음을 주심으로 연보를 하게 하십니다. 물질이나 현물 이전에 그의 마음을 하나님이 산제물로 받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둘째,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자원의 마음은 우리로 충동적이지 않고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게 하려고 미리 준비하게 만듭니다. 모리아 제단 위에 이삭

을 바친 아브라함처럼 그 자신부터 먼저 제물이 되어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이 받으신 것입니다. 셋째, 즐거움으로 해야 합니다(7). 헌금은 드리는 자신의 마음이 인심을 쓰거나 구제하는 마음으로 행하는 유혹을 경계해야 합니다.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제물이 돼 전능자가 사용하신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기뻐해야 합니다. 이런 연보가 교회를 가득 채워야 합니다.

화 사도권의 변증(고후10:8-11)찬197장

사탄은 언제나 교회의 권위를 무너뜨리려고 온갖 방법으로 교회를 도전합니다. 이것을 사도는 대안을 제시함으로 변증합니다. 첫째, 그는 주께로 나온 권위를 주장했습니다(8). 출처가 자기 자신이 아니라 주님이심을 분명히 했습니다. 교회의 지도자는 그 권위가 주께로 나온 것임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행해야 합니다. 사도는 이런 사명관으로 충만할 때 지지치 않았습니까. 둘째, 주의 권세는 온전히 치료

함에 있습니다(8). 건설적 비판은 요구되나 그 대안이 나타나야만 합니다. 사도는 치료하고 세우는 사역에 초점을 맞춥니다. 둘째, 말로만의 주장이 아닙니다(9-10). 사도의 권위를 무너뜨리는 악한 일에 맞서 그는 언행일치의 믿음을 주장했습니다. 행함이 가르침과 동일함을 보여줌이 최대의 변증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수 사도의 사역 태도(고후10:12-14)찬265장

사도는 계속 교회를 섬기는 분을 보여주면서 자신의 기본 태도를 강조했습니다. 첫째, 그는 자기 자랑을 경계했습니다(12). 칼빈의 지적대로, 모든 최악의 뿌리인 자기자랑은 교회사역에 안조입니다. 거짓교훈의 결론은 언제나 인간을 예찬하고 자기를 자랑하기 위해 십자가와 경건의 모양을 이용하기를 잘합니다. 둘째, 절제를 강조했습니다(13). 또한 사도는 자기의 분수에 맞는 절제의 태도를 보여줌

니다. 자기의 한계성을 인정할 때 겸손하게 돼 본래의 사명, 복음생활을 견고하게 하려했습니다. 혼란한 매일수룩 자기자랑의 요소인 자기절제를 힘써야 합니다. 그럴 때 교묘한 사탄의 공격을 이깁니다. 셋째, 그리스도의 복음에 머물게 했습니다(14). 사도는 언제나 우리를 복음 곧, 그리스도의 죽음을 자랑하고 거기 머물고 교회를 그리로 이끌려고 힘썼습니다. 그런 사역의 태도를 배움시다.

목 주께로 오는 칭찬을 구하자(고후10:15-18)찬450장

사람의 재능과 업적을 자랑하는 일에 열심인 혼란한 세상에 서 있는 교회는 어떻게 주께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까? 첫째, 덕을 세우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15). 사도의 복음 증거는 자신의 유익이 남을 유익하게 하는 배려를 가진 것이었습니다. 믿음의 성장은 덕으로 나아가기 때문입니다(벧후1:5-7). 둘째, 복음 증거의 열심을 가져야 합니다(16).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신자는 복음을 증거함으로 자신

이 먼저 영적능력을 경험했습니다. 다음, 이웃이 복음화 될 때 그 은혜는 더욱 증대됩니다. 이것은 주님의 지상명령에 대한 최대의 순종입니다. 셋째, 주께로 오는 칭찬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17-18). 눈에 보이지 않아도 마지막 때에 주께로 오는 인정과 칭찬을 받는 일에 목적을 둘 때 하늘 영광이 우리를 지배합니다. 모든 사역에 오직 주님중심이 가장 안전하고 복됩니다.

금 교회를 위한 사도의 열심(고후11:1-4)찬275장

바울은 교회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을 이루는데 열심을 가졌습니다. 첫째, 그는 하나님의 열심을 가졌습니다(1-2). 하나님의 행동하는 사랑의 열심으로 우리가 살아야 것처럼 사도는 동일한 사랑으로 교회를 섬겼습니다. 자기 일에는 열심이고 하나님의 일에 등한히 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둘째, 그는 종매자로서의 열심을 가졌습니다(2). 약속을 연결시키는 종매자의 희생과 지혜와 인내처럼 사도는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의 연합을

위해 모든 수고를 감내했습니다. 셋째, 거짓교훈을 경계하는 열심을 가졌습니다(3-4). 교회의 외모가 아닌 내면 곧, 진리를 파수하는 일입니다. 다른 영, 다른 예수 그리고 다른 복음의 유혹에 쉽게 감영되기 쉬운 교회가 바른 교훈을 따르도록 항상 말씀으로 깨우치고 따르게 하는 일이 그의 사역의 핵심이었습니다. 항상 바른 설교가 증거되도록 교회는 열심을 가져야 합니다.

토 교회 섬김의 바른 태도(고후11:5-9)찬378장

사도적 권위에 대한 도전으로 교회 섬김의 바른 태도를 보인 사도는 본문에서 무어라 할지? 첫째, 그는 사도적 확신을 가졌습니다(5-6). 다른 사도와 같은 계시를 받아 그 일을 위해 부름 받은 사실을 증거했습니다. 자신의 좋은 것들이 사도의 부르심을 섬기는 도구가기에 그 일을 위해 목숨보다 귀한 것으로 확신했습니다. 둘째, 그는 겸손히 복음을 증거했습니다(7). 복음 자체가 겸손의 그릇에 담겨 전

해졌기에 전하는 자 역시 겸손해야만 이것을 행할 수 있습니다. 자아가 부인되고 자기 십자가를 진 겸손한 자만이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셋째, 그는 자비량 태도를 따랐습니다(8-9). 사역자제도 남의 도움보다 자기의 힘으로 하려는 기준을 가졌습니다. 선한 양심을 따라 누구에게나 누를 끼치지 않으려고 힘썼습니다. 그는 온전히 산제물로서 교회를 섬긴 것입니다. 그 길을 가야 합니다.

글로벌 인재 발굴과 양성을 실현하는 Midwest University

Founded in 1986 www.midwest.edu

학위 취득방법 Study Options

- On Campus 강의 : 유학생을 위한 SEVIS I-20 발행
- On-Line 방법으로 세계 어느 곳에서든지 시간과 장소에 구애 없이 학점 취득 가능
- Blended 강의 : 소집강의와 On-Line 교육을 병행하면서 학점취득 가능

미국 주정부 및 연방정부 교육부의 인준 정규대학교
미국연방정부교육부 USDE 인가 및 CHEA 인가.
ABHE - Midwest University was Granted Accredited Status
USDE (미국연방정부교육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함.
www.ope.ed.gov/accreditation

문의 : 전화 (636)327-4645, 이메일 usa@midwest.edu

학위 과정 Degree Programs

ESL Program	Certificate Program
Bachelor Degree Programs	BA In Business Administration 경영학 BA In Music 음악 BA In Theology 성학, 기독교교육 Biblical Studies, Christian Education Bachelor of Science in Aviation Management 항공학
Master Degree Programs	MA In Counseling 상담학석사 MA In Education 교육학석사 MA In Music 음악석사 MA In TESOL 영어교육석사 MBA (Master of Business Administration) 경영학석사 M.Div 신학석사
Doctoral Degree Programs	Doctor of Ministry 목회학박사 Christian Counseling, Christian Education, Mission Studies, Pastoral Theology Doctor of Music 음악박사 Doctor of Leadership 리더십박사 Ph.D. in Leadership

Midwest University

Main Campus
851 Parr Road, Wentzville, MO 63385 U.S.A
Tel: (636)327-4645 / Fax: (636)327-4715
E-mail: usa@midwest.edu

Washington DC Campus
5103-A Backlick Rd. #24, Annandale, VA 22003
Tel: (571)730-4750 / Fax: (571)730-4751
E-mail: wdc@midwest.edu

아멘넷, 복음뉴스, CSN뉴욕 토크쇼 “프레스 ABC” 공동제작

인터넷 기독교 언론 아멘넷(대표 이종철)과 복음뉴스(발행인 김동욱), CSN(사장 한은경)이 함께 미디어 협력 시대를 열어가기로 했다고 지난 7일 3사 자체 사이트를 통해 발표했다. 3사는 한인 이민 교계에 바른 여론을 선도하고, 교계의 문제점들을 진단하고 개선책을 제시하려는 목표를 갖고, 3사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공개 토크쇼 “프레스 ABC”를 제작하기로 합의하고 9월 19일 첫 방송을 앞두고 있다.

아멘넷과 복음뉴스는 유튜브와 라이브와 페이스북 라이브 링크를 아멘넷과 복음뉴스 사이트에 게재하여 아멘넷과 복음뉴스를 찾는 방문객들이 쉽게 “프레스 ABC” 생방송을 시청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생방송이 끝난 후에는 3개사 홈페이지에서 토크쇼 동영상도 볼 수 있다. 3개사 홈페이지 주소는 아멘넷(usAmen.net), 복음뉴스(Bogumnews.com), CSN(Csntv.net)이다.

“프레스 ABC”는 탁월한 방송 경험을 가지고 있는 임은숙 CSN 부사장의 사회로 진행되며, 아멘넷과 복음뉴스 대표들이 고정 패널로 참가한다. 또 주제에 따라 관련 교계인사들이 게스트로 초대되며, 생방송은 일반에 게도 오픈된다.



왼쪽부터 이종철 아멘넷 대표, 임은숙 CSN뉴욕 부사장, 한은경 CSN뉴욕 사장, 김동욱 복음뉴스 대표

한인교계 바른 여론 선도, 교계 문제점 진단, 개선책 제시 HD화질로 19일 첫 방송

고 있다고 보도했다. 다음은 3사의 공동 발표문. 미동부 3개 기독교 미디어가 힘을 합쳐 “프레스 ABC”라는 이름의 토크쇼를 내놓았다. “ABC”는 A(아멘넷, 대표 이종철), B(복음뉴스, 발행인 김동욱 목사), C(CSN, 사장 한은경) 등 3개사의 이름을 의미하며, 또 기본을 잃어가는 이데 기본으로 돌아가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방송은 매월 3번째 수요일 오전 11시에 진행되며 첫 방송일은 9월 19일이다. 플러싱 CSN의 공개홀에서 진행되는 토크쇼는 CSN 플랫폼을 통해 생중계된다. 지난 7월 여의도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가 참가한 가운데 개국된 CSN은 미주 기독교 방송 최초로 OTT 플랫폼을 선보였으며 CSN 앱, 애플 TV, 로쿠 TV, 아마존 파이어 TV 등으로 스마트 기기와 티브 등을 통해 시청이 가능하다. “프레스 ABC” 공개 방송은 유튜브 라이브와 페이스북 라이브로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중계될 예정이다.

기초회 계절을 맞이하여 9월과 10월의 주제는 선거와 관련이 있다. 9월은 “교계선거 제도의 현황과 방향” 그리고 10월은 “시대가 요구하는 교계 지도자 상과 후보토론”이라는 주제로 진행된다. ABC 3개사는 “프레스 ABC” 토크쇼 뿐만 아니라 뉴스제작 및 기타 사업에도 협조하기로 했다. 3개사가 협력하여 “프레스 ABC” 시작을 발표하며 아멘넷 이종철 대표는 “다양한 미디어 환경의 등장, 그리고 어려워지는 교계 미디어 현실 속에 협력과 연합은 꼭 필요하다”, 복음뉴스 대표 김동욱 목사는 “프레스 ABC를 통하여 교계에 바른 여론들이 형성되어지기를 기대한다”, CSN 한은경 사장은 “다른 미디어와의 협력을 통한 기독교 언론 발달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HD화질로 방송되는 생방송 시청 웹사이트 주소는 아멘넷(usAmen.net), 복음뉴스(bogumnews.com) CSN뉴욕(csntv.net). (유원정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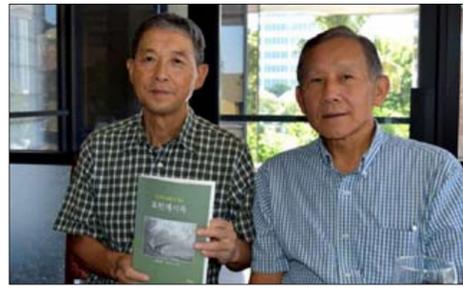
“누구나 읽을 수 있는 요한계시록”

저자 정인열/박동건 목사 공저

정인열 목사와 박동건 목사의 공저 “누구나 쉽게 읽을 수 있는 요한계시록”(그림식 도서출판)이 최근 출간됐다.

저자들은 “요한계시록은 난해한 상징과 예언 때문에 어려운 책으로 여겨져 성도들에게서 멀어져간 사이에 이 단들이 제멋대로 주장을 펴 성도들을 미혹해 온 대표적인 책이다. 이번에 이런 거리감을 좁히고 아주 쉽고 흥미 있게, 분명하게 주해형식으로 만들었다”고 소개했다.

이들은 서문에서 “성경은 하나님의 비밀을 점진적으로 계시하는 예언들을 담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요한계시록은 성경 가장 마지막에 위치하고 있어 점진적 예언의 종결이며 하나님의 말씀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



“누구나 읽을 수 있는 요한계시록”을 소개하는 정인열(좌), 박동건(우) 목사.

일곱째인/일곱 나팔 재앙, 4. 일곱째 나팔의 일곱 대접 재앙을 설명했고 결론으로 1. 사탄과 짐승과 그 세력들의 영원한 멸망, 2. 새 하늘과 새 땅의 새 예루살렘, 3. 맺는 말: 주 예수여 오 시옵소서로 구성했다.

고, 한글번역은 개역개정용, 영어성경은 킹제임스 버전을 따랐으며 예언 부분은 헬라어 원문을 살펴가며 목회자의 눈으로 요한계시록을 보고 학자들의 자료를 참조해 일반 성도들이 쉽

게 읽고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했다”며 “그동안 한인교계에서도 종말론과 관련해 나돌던 ‘짐승의 표 666’이나 베리집, 백투예루살렘은 요한계시록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본서는 서문, 본문, 결론으로 구성됐다. 서문에서는 1. 복 있는 자, 2. 문인과 그리스도의 재림 통고, 3. 계시자 그리스도의 모습, 4. 일곱 교회에 보낸 주님의 편지로 구성됐고, 본문에는 1. 하늘 보좌와 일곱 인으로 봉한 두루마리, 2. 첫째에서 여섯째 인의 개봉, 3.

독자와 거리감 좁히려 쉽고 흥미 있게 주해형식으로 저술

므로 점진적 예언의 최종 결과인 요한계시록을 이해하지 못하고 성경을 이해했다고 말할 수 없다”며, “요한계시록은 사탄과 그 세력이 교회를 잠시 핍박하지만 그리스도와 교회는 반드시 승리하고 진정한 예루살렘을 이루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본서는 신학적으로 현대신학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개혁신학의 무천년주의 입장과 성경신학적 입장을 고수했다”고 밝히고 “계시록의 다양한 해석을 소개나 비판의 논쟁적 성격이 아닌 진리 추구하고 제시에 노력했

고, 한글번역은 개역개정용, 영어성경은 킹제임스 버전을 따랐으며 예언 부분은 헬라어 원문을 살펴가며 목회자의 눈으로 요한계시록을 보고 학자들의 자료를 참조해 일반 성도들이 쉽게 읽고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했다”며 “그동안 한인교계에서도 종말론과 관련해 나돌던 ‘짐승의 표 666’이나 베리집, 백투예루살렘은 요한계시록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본서는 서문, 본문, 결론으로 구성됐다. 서문에서는 1. 복 있는 자, 2. 문인과 그리스도의 재림 통고, 3. 계시자 그리스도의 모습, 4. 일곱 교회에 보낸 주님의 편지로 구성됐고, 본문에는 1. 하늘 보좌와 일곱 인으로 봉한 두루마리, 2. 첫째에서 여섯째 인의 개봉, 3.

하고 담임목사로 시무하다 은퇴했다. 박동건 목사는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UCLA 경영학석사(MBA)를 거쳐 풀러신학교에서 목회학 석사를 받았다. 오렌지한인교회를 시무하고 북미주개혁교단(CRC) 한인사역 디렉터로 사역하다 은퇴했다. 본서는 현재 오렌지카운티 말씀사를 비롯해 미주지역 기독교서점에서 구입할 수 있다. 저자 연락처는 (213)326-6194(정인열 목사), (562)650-4442(박동건 목사). (이성자 기자)

책 소개

“우리가 꿈꾸던 바로 그 교회 안동교회 이야기”

한국교회 미래가 두려운 사람에게 과감히 추천

저자 유승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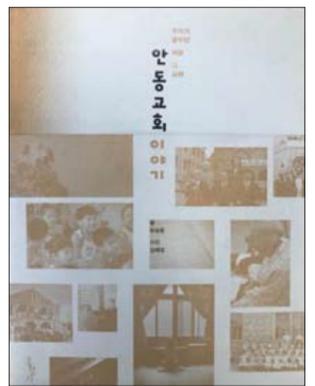
“우리가 꿈꾸던 바로 그 교회 안동교회 이야기”가 최근 흥성사에서 출간됐다.

본서는 지난 2006년 출간된 초판의 개정증보판이며 △제1장: 담임목사 3대가 한 마을에 모여 살던 교회 △제2장: 오직 말씀으로 똘똘뭉친 교회 △제3장: 다른교회가 부흥하기를 바라며 돕는 교회 △제4장: 순종하며 사나기 너무 행복합니다 △제5장: 지역 사회와 함께하는 공동체 교회 △제6장: 안동을 예수 마을로 만들어 가는 사람들 △제7장: 110년 전통을 넘어 다시 청년이 된 교회 등 7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서의 저자인 작가 유승준 씨는 개정판 서문에서 “안동교회는 한국 개신교 역사의 축소판이며 안동교회의 110년 역사를 들여다보면 한국교회 130여 년의 역사를 고스란히 꿰뚫어 볼 수가 있다”며 “지난 세월 한국

교회는 걸로 드러난 성장과 영광의 이면에 부끄러운 치욕과 모순의 시간들을 쫓겨야 살아왔다. 그 어느 때보다 결연한 참회와 회심이 필요한 시기이다. 하지만 혼탁한 역사의 흐름 속에서도 복음의 순수성과 공동체의 본질을 지키고자 고군분투한 아름다운 교회들이 있으며 그중 하나가 안동교회”라고 언급했다.

그는 “안동교회는 지금까지 다녀보고 둘러본 많은 교회 가운데 진심으로 다니고 싶은 교회, 어려울 때부터 꿈꿔왔던 교회, 그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부러웠던 교회, 누구에게라도 당장 다녀보라고 권할 수 있는 유일한 교회”라며 “안동교회는 흠결하나 없는 완벽한 교회는 아니며 흠도 있고 부족한 것도 있고 갈등도 있다. 그러나 신앙과 말씀과 지혜로 이 모두를 풀어내고 녹여내는 교회이다. 그래서 한국교회의 과거가 금강산 사



람, 한국 교회의 현재가 답답한 사람, 한국교회의 미래가 두려운 사람에게 과감히 안동교회를 말해주고 싶다”고 말했다.

(박준호 기자)

세계한인기독교언론협회 주최

제4회 신앙도서 독후감 공모전

해외 한인 크리스천들이 양질의 신앙도서를 읽고 믿음과 삶, 그리고 사역이 보다 영적으로 성숙해 가기를 바라는 취지에서 본 언론협회는 제4회 신앙도서 독후감 공모전을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많이 참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 한국을 제외한 해외 거주 한인 평신도, 목회자, 선교사, 사모 등
- 방법: 추천도서 5권중 한권을 선택하여 읽은 후 독후감을 제출하되 분량은 레터 또는 A4 사이즈 3페이지(글자크기 10포인트, 줄간격 160%)이며 제출 마감은 2018년 10월 31일 오후 5시(미 서부시간 기준)
- 제출처: 이메일 wkcmmailbox@gmail.com으로 제출하되 응모자의 이름, 직분, 출석교회, 전화번호, 거주지 주소를 꼭 명기해 주십시오
- 시상: 심사위원회를 거쳐 선정된 최우수상 1명, 우수상 2명, 장려상 3명을 11월 15일경 발표합니다. 이들에게는 상장과 함께 각각 US \$1,000, \$500, \$200씩의 부상이 전달되며 선정된 독후감은 본 협회 회원사들의 지면 및 인터넷 신문과 방송을 통해 발표됩니다. 시상식은 12월 초에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립니다.

* 참가자 전원에게는 참가상이 주어집니다
* 이미 수상 경력이 있으신 분은 3년 동안 수상대상에서 제외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최: 세계한인기독교언론협회 (회장 임승쾌 장로)

World Korean Christian Media Association

추천 도서

- 은혜받는 습관 (데이비드 마티스/생명의말씀사)
- 어머니 또 부르고 싶은 어머니 (한국문서출판/류태영 외 8명)
- 아멘 다음이 중요하다 (한홍/규장)
- 살피심 (김영재/두란노)
- 페이버 (하영복/침령)

회원사

- 남미복음신문(상파울, 브라질), 미주기독교신문(시애틀, 미국), 미주기독교방송(LA, 미국), 미주복음방송(애너하임, 미국), 미주크리스천신문(뉴욕, 미국), 독일크리스천신문(프랑크푸르트, 독일), 아멘넷(뉴욕, 미국), 크리스천 미디어(시애틀, 미국), 크리스천 월드(토론토, 캐나다), 크리스천 리뷰(시드니, 호주), 크리스천 포스트(토론토, 캐나다), 크리스천 타임스(샌프란시스코, 미국), 크리스천 투데이(LA, 미국), 크리스천 위클리(LA, 미국), 크리스천 헤럴드(LA, 미국), 크리스천 저널(시카고, 미국).

후원

기독교서점협회(회장 전인철 목사)

도서구입처

- 기독교서적 323-737-7699 www.koramdeo.com
- 두란노서원 213-382-5400 www.duranno.us
- 말씀사 714-530-2211 www.lifebook.co.kr
- 베델서적 949-854-9191 bethelbook@hotmail.com
- 조이서적 213-380-8793 www.joyla.com
- 복음사 562-865-4949, 865-1919
- 도르가서점 714-636-7430